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 鐵凝 소설에 나타난 아동기 트라우마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문학전공

유 은 하

# 鐵凝 소설에 나타난 아동기 트라우마

지도교수 전 형 준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문학전공
유 은 하

유은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12월

위 원 장 _____ 김 진 공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이 정 훈 _____ (인)

위 원 _____ 전 형 준 _____ (인)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중국 當代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명이자, 문단과 시장·공직에서 높은 위상을 확보해온 鐵凝의 소설에 대한 연구로, 鐵凝의 주요 장편소설에 나타난 주인공의 아동기 트라우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鐵凝의 소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로 페미니즘 관점에서 여성의 생존이나 욕망, 섹슈얼리티 등을 다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으나, 다수 작품에서 주인공이 아동기에 겪은 文革 경험과 상처, 가정 내 갈등이 재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천착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경험이 잘 나타난 작품들 -《玫瑰門》(1988), 《午后懸崖》(1997), 《大浴女》(2000) 등 - 을 중심으로 주인공의 아동기 트라우마를 아동심리학과 정신분석학 이론을 참고하여 분석하고, 文革을 포함한 어두운 과거사 및 개인의 상처를 대하는 작품 이면의 심리를 탐지해보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鐵凝의 생애와 시대상황, 문학시장 상황에 대한 전반적 탐색과 함께, 중국에서 꾸준히 대중성을 획득해 온 鐵凝 장편소설의 특징과 주요 모티프를 알아보았다. 1957년생인 鐵凝은 아홉 살이 되는 1966년 文革이 시작되어 아동청소년기에 오롯이 文革 10년을 겪었으며 부모와 떨어져 외가에서 고립된 세월을 보내기도 했는데, 소설에서는 그와 유사한 처지의 인물들이 자주 그려진다. 文革이 종료된 후 문단의 주류를 이루었던 傷痕·反思 문학이 대부분 지식인들의 수난사를 위주로 한 文革 재현 서사였던데 비해, 鐵凝은 그 지식인들의 자녀이자 아동기에 文革을 겪은 세대로서 아동의 고통과 상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鐵凝은 주로 액자 구조를 통해 소설 내화(內話)에서는 주인공의 아동기를, 외화(外話)에서는 성인이 된 주인공의 현실 상황을 재현하고 있는데, 3장에서는 내화 또는 과거 이야기에 나타난 주인공의 아동기 트라우마에 대하여 상세히 고찰하였다. 1절에서는 文革이라는 시대적 특수성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살펴보았다. 주인공은 文革 시기 신체적·성적(性的) 폭력이 동반된 잔혹 행위나, 타인을 악의적으로 모함하여 紅衛兵의 습격을 받게 하는 행위 등을 목격하며 큰 충격을 받는다. 주인공은 이 같은 행위를 보고 공포를 느낄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게 죄책감이 결여되어있음을 목도하며 극도의 경멸감을 느끼게 되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다. 2절에서는 가정 내의 특성으로 인한 주인공의 심리·정서적 트라우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동일한 文革시대에 아동기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가족구성원의 성격 및 가정 내 분위기에 따라 아동들에게는 상이한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鐵凝 소설에 나타난 부모 또는 조부모는 자녀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관심을 제공하지 않으며,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이 억압되고 회피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가족들은 서로의 비밀을 묵인하고, 과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주인공은 이러한 환경에서 자신의 감정을 공감 받을 수 없음에 괴로워한다. 소설에서는 不通의 메타포로서 딸꾹질이나 변비, 잠꼬대와 같은 다양한 신체적 증상들이 재현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정신분열에 이르기도 하는데, 이 같은 증상들은 소통의 욕구를 억압받아 생긴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4장에서는 소설의 외화 또는 결말에서 성인이 된 주인공이 어떻게 과거를 인식하고 현실에 대처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주인공들은 성년이 된 후 안정된 직업이나 경제력을 갖고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으며, 고통스럽던 과거를 현재의 성공을 있게 한 밑거름으로서 수용해나가고, 부모나 타인의 과오에 대해서도 점차 포용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또한 주인공은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비롯하여 불편한 진실에 대한 규명을 포기하고, 지난날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합리화하게 된다. 이러한 대응방식은 아동기에 겪은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소설은 주인공이 어린 시절 그렇게 경멸했던 '默認' 및 '책임 회피'란 방식에 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다.

3장과 4장의 분석을 종합하면, 소설의 과거 이야기에서는 아동기의 트라우마가 핍진하게 묘사되며, 역사적·개인적 과오에 대한 폭로와 비판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현재 이야기에서는 그러한 의지가 흐려지고 주인공이 과거를 합리화하며 현실을 수용하는 모습으로 결말을 맞는다. 이러한 괴리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기에, 4장의 4절에서는 상술한 특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작가가 그런 창작을 하게 되었던 사회·역사적 맥락이나 개인적 동기가 무엇일지를 여러 각도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에 소설을 과거사를 묵인하려는 현 중국사회에 대한 정치·사회적 알레

고리로 볼 경우와, 작가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성장소설로 볼 경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화자의 서술태도에 주목하여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鐵凝은 현재에도 창작활동을 지속 중인 작가로, 향후 중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鐵凝이 역사적·개인적 트라우마와 현실의 문제들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처리해나갈지 귀추를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 논의를 확장하여 鐵凝과 세대가 비슷한 작가들의 작품에서 아동기 文革 체험이 처리되는 방식과 비교 검토해본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鐵凝, 아동기, 트라우마, 문화대혁명(文革), 가정, 소통, 반성, 묵인

학　번: 2017-28862

# 목 차

국문초록 ····· i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목적 ····· 1

제2절 연구사 검토 및 연구의 시각 ····· 4

제2장 鐵凝 생애와 소설의 특징 ····· 14

제1절 鐵凝 생애와 창작활동 개괄 ····· 14

제2절 소설의 주요 특징과 모티프 ····· 19

1. 장편소설(1988-2000)의 변화양상과 주요 특징 ····· 19

2. 아동기 文革 체험 세대로서의 文革 모티프 ····· 26

제3장 아동기 트라우마의 형성과 표출 ····· 38

제1절 文革과 관련된 빅 트라우마 ····· 39

1. 잔혹 행위에 대한 공포와 환멸 ····· 39

2. 피해의식과 죄의식의 맞물림 ····· 42

제2절 가정에서 축적된 스몰 트라우마 ····· 47

1. 관계별 소통 억압과 회피 양상 ····· 47

2. 不通의 신체적 증상과 자아분열 ····· 57

제4장 트라우마에 대한 성년기의 합리화와 현실 대응 ····· 63
제1절 부모에 대한 容認과 자기 방어 ····· 64
제2절 성공의 밑거름으로서의 과거 수용 ····· 71
제3절 진실 규명의 포기와 默認 가담 ····· 76
제4절 성년기의 태도 전환에 대한 고찰 ····· 87

제5장 결 론 ····· 96

[참고문헌] ····· 98

[中文摘要] ····· 103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 목적

鐵凝(1957年生)의 장편소설 《玫瑰門》은 파격적인 내용으로 인하여 소설이 발표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再版을 거듭하면서 많은 독자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왔고, 1994년 발표된 장편소설 《無雨之城》과 2000년 발표된 《大浴女》는 중국에서 백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였다.[1]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는 지난 십년간의 세계 문학작품 가운데 대표작 열편을 선정하라면 그 중 하나로 《大浴女》를 꼽겠다고 극찬했고,[2] 王蒙 또한 鐵凝의 문학이 독자에게 극한의 감동과 희열을 주는 경지에 도달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3] 동료 작가들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퍼붓기로 유명한 王朔 역시, 수필 〈榜樣的力量是無窮的〉에서 젊은 날 鐵凝을 자신의 본보기로 삼은 바 있다고 고백하며, 鐵凝의 소설을 읽고 작가로서의 재능에 대한 질투를 느낌과 동시에 엄중한 정신적 자극을 받았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4] 2005년 鄭州大學出版社에서는 당대를 대표하는 네 명의

---

1) 국내에 《無雨之城》은 '비가 오지 않는 도시'라는 제목으로, 《大浴女》는 '목욕하는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으나 본고에서는 원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 두 작품의 인용이 필요한 경우 국내 번역본을 따르며, 《玫瑰門》 및 《午后懸崖》의 인용이 필요한 경우 연구자가 자체 번역하고, 각주에 해당 원문대로 간체자(簡體字)로 표기하였다. 본고에서 인용한 원전은 《玫瑰門》, 人民文學出版社, 2006, 《午后懸崖》, 人民文學出版社, 2006, 《大浴女》, 作家出版社, 2013이며, 한국어 번역판은 《비가 오지 않는 도시 1,2》, 김태성 역, 실천문학사, 2007, 《목욕하는 여인들》, 김태성 역, 실천문학사, 2008을 인용하였다.

2) "《大浴女》這部作品描繪了幾位女性的群像，敘述了從文化大革命後期到九十年代這二十多年的歷史，在這二十多年的過渡期裡，尤其是七十年代初的那段時期，人們的生活比較困苦，鐵凝的作品表現了那幾位女性如何懷著希望爲超越苦難而進行奮鬥的歷程……如果讓我在世界文學範圍內排這個十年間的十部作品的話，我一定會把《大浴女》列入其中。" - 大江健三郎, 《江南・長篇小說月報》, 2015年 第5期.

3) 王蒙, 《讀大浴女》, 讀書, 2000.

4) 王朔는 특히 鐵凝의 《沒有紐扣的紅襯衫》을 읽고 느꼈던 鐵凝의 작가적 재능에 대한 질투심과 《對面》을 읽고 받은 정신적 충격을 토로하였다. - 王朔, 〈榜樣的力量是無窮的〉, 《知道分子》, 北京十月文藝出版社出, 2016, pp. 40-42.

작가로 金庸, 賈平凹, 鐵凝, 余華를 선정하여 《中國當代作家評傳叢書》 네 권을 출간하였는데, 편찬자이자 저명 작가인 賀紹俊은 작가는 곧 하나의 넓은 세계이며 한 명의 작가가 곧 간단한 문학사라 말하며, 당대 문학의 변천에 깊이 관여된 작가 중 한명으로 鐵凝을 손꼽고 높이 평가하였다.[5] 2006년 鐵凝은 57년의 전통을 가진 中國作家協會(이하 '作協')의 주석으로 선출되어 2019년 현재까지 연임해오고 있으며,[6] 中國文學藝術界聯合會(이하 '文聯') 주석 및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도 겸직하여 활동 중이다.[7] 초기 단편소설 〈哦, 香雪〉(1982), 중편소설 《沒有紐扣的紅襯衫》(1983)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백 편 이상의 단편소설, 중·장편소설 및 산문을 발표하며 魯迅문학상과 老舍문학상 등 사십 여개의 문학상을 수상하였고,[8] 다수 작품이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로 개작되는 등 꾸준히 대중적 인기를 얻어왔다.[9]

---

5) "理解作家作品的評傳作者而言，一個作家就是一個廣闊的世界，一個作家就是一部簡易的文學史。大凡深度參與了當代文學之演變的作家，他的身上，一定有著個人內心印痕和時代經驗相交織的奇異景像有景象的人，揭開這個景象，看到的必將是當代文學的重要側面。" – 賀紹俊, 《鐵凝評傳 – 中國當代作家評傳叢書》, 鄭州大學出版社, 2005.

6) 鐵凝은 2006년 11월 中國作家協會(Chinese Writers Association) 주석으로 당선된 이후 13년째 연임해오고 있으며, 또한 2016년 이후 中國文學藝術界聯合會(Chinese Federation of Literary and Art Circles) 주석 역시 겸직하고 있다. 作協의 주석은 1949년부터 1981년까지 茅盾이, 1984년부터 2005년까지 巴金이 맡았다. 鐵凝의 作協 주석 당선과 관련한 인터뷰는 The China Daily November 15, 2006 (http://german.china.org.cn/english/features/cw/189121.htm) 참조.

7)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원회는 당의 최고 정책결정기구라 할 수 있으며, 당의 전체 활동을 지도하며 공산당을 대표한다. 위원회 임기는 5년이다. 2018년에 선출된 중앙위원회 위원은 모두 205명이며, 이들은 당, 정부 군대, 주요 국유기업, 대학, 연구소, 사회단체 등의 기관장을 겸하고 있어 중국의 엘리트 계층을 구성한다. 鐵凝은 作協 및 文聯의 주석으로 18기, 19기 중앙위원을 연임하고 있다.

8) 〈哦, 香雪〉는 1983년 전국 우수단편소설상을 수상 후, 1990년 영화로 각색되어 베를린 영화제 청춘영화최고상을 수상하였으며, 《沒有紐扣的紅襯衫》는 1985년 제3회 전국 우수중단편소설상을 수상하였고, 각색된 영화 《紅衣少女》는 中國電影金鷄獎最佳故事片獎 및 大衆電影百花獎最佳故事片獎 등을 수상하였다. 〈六月的話題〉는 전국우수단편소설상을, 산문집 《女人的白夜》는 魯迅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永遠有多遠》는 제2회 魯迅문학상, 小說月報百花獎, 老舍문학상, 北京시 문학창작상을 비롯하여 각종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수필집 《遙遠的完美》는 제2회 冰心산문상을 수상하였다.

9) 중국에서 영화화 되거나 드라마로 개작된 鐵凝의 주요 작품은 다음과 같다:
陸小雅 導演, 《紅衣少女》, 1985, 100분.
楊亞洲 導演, 《大浴女》, 2007, 東陽靑雨影視文化有限公司, 45분. 22부작.

본 연구는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문단과 시장, 공직에서 높은 위상을 확보해온 鐵凝에 대한 관심 및 그의 작품이 보여주는 흥미로움에서 출발하여 그의 문학세계를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鐵凝의 30년 넘는 작품 활동과 창작 분량을 감안할 때 모든 작품을 다루는 것이 어렵기에 그의 작가적 전성기로 간주되는 1980-90년대에 발표된 장편소설들을 분석의 중심에 두고자 하였다.[10] 대상 텍스트는 鐵凝이 쓴 총 네 편의 장편소설 가운데 세 편 - 《玫瑰門》(1988), 《無雨之城》(1994), 《大浴女》(2000) - 및 중편소설 《午后懸崖》(1997)이며, 필요한 경우 다른 소설들을 함께 언급하며 고찰하고자 한다.[11] 분석을 통해 鐵凝 소설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주인공의 아동기 文化大革命(이하 '文革') 경험 및 가정사 모티프에 대해 집중 고찰하고자 한다.[12] 鐵凝의 소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로 젠더 관점에서 여성의 생존이나 욕망, 섹슈얼리티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으나, 장편소설에서 공통적으로 주인공의 아동기 文革 경험과 상처, 가정 내 갈등이 재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천착한 연구는 부족

---

王好爲 導演, 《哦, 香雪》, 中國兒童電影製片廠, 1989. 90분.
王好爲 導演, 《村路帶我回家》, 北京電影製片廠, 1988, 100분.
陳國星 導演, 《安德烈的晚上》, 2002, 90분.
陳偉明 導演, 《永遠有多遠》, 2001, 中博影視策划公司, 45분. 20부작.
또한 일본 東京 近代文藝社에서 소설집 《給我禮拜八》이 출간되었고, 일본에서 연속극 《遭遇禮拜八》이 방영되었다.

10) 평론가 김현(金炫)은 소설이 길어진다는 것은 작가가 할 말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작가가 세계를 좀 더 폭 넓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한 증거라고 보았다. - 김현, 〈소설의 길이〉, 《우리 시대의 문학/두꺼운 삶과 얇은 삶》, 문학과지성사, 2006. 鐵凝 창작 초기의 단편소설들은 그의 창작의 발원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나, 김현의 말처럼 세계를 꿰뚫는 체험의 폭과 깊이는 장편소설에서 드러난다고 사료되는 바, 본고에서는 필요시 鐵凝의 단편소설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되, 장편소설 세계를 중점 연구하고자 하였다.

11) 이 네 작품은 2006년 人民文學出版社에서 발간한 총 아홉 권의 《鐵凝全集》 중 네 권의 제목이기도 하다. 鐵凝이 쓴 장편소설 중 가장 최근작인 《笨花》(2006)의 경우, 청말부터 민국 초기까지를 배경으로 하여 군인 형상을 묘사한 신역사주의소설로서, 鐵凝의 기존 주된 창작경향과 색깔을 달리하는 바, 본고의 연구대상에서는 배제하고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12) '아동기'는 넓은 뜻으로는 출생에서부터 청년기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교육학에서 쓰는 정의에 따라 초등학교(중국의 경우 소학교)에 입학하는 7세 전후부터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13세 전후까지를 지칭하는 말로 '아동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이형행, 《교육학개론》, 양서원, 2004 참고.

하다. 이에 본고는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아동기에 文革을 경험하면서 얻은 트라우마에 주목하였으며, 아동심리학과 정신분석학 이론을 참고하여 인물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설 해석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였다. 또한, 소설 결말에 나타나는 유사한 패턴을 파악해봄으로써 文革을 포함한 어두운 과거사 및 개인적 상처를 대하는 작품 이면의 심리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鐵凝의 중국내 위상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학술계 연구가 저조한 현황으로, 본 연구는 이를 보충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있다.[13)]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장 서론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2장에서는 鐵凝의 생애와 창작활동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鐵凝 장편소설이 시기별로 변화해온 양상을 살핌과 동시에, 소설들에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소재와 사건, 비슷한 인물 유형 및 인간관계 등을 중심으로 鐵凝 고유의 창작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鐵凝 소설의 주요 모티프로서 文革 시기 아동의 경험에 대하여 알아본다. 3장에서는 액자구조를 가지는 鐵凝 소설 속 내화에 재현된 아동기 트라우마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하며, 1절에서는 文革이란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경험을 중심으로, 2절에서는 주인공의 가정 내 특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 4장에서는 소설 속 외화에 재현된, 성인이 된 주인공의 현실 상황에 초점을 맞춰 결말의 공통된 패턴을 분석한다. 또한 소설에 나타난 주인공의 아동기와 성년기 태도 간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5장 결론에서는 논의를 종합하고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 제2절 연구사 검토 및 연구의 시각

중국의 CNKI(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중국학술정보원)에는 2019년 9월말 기준 鐵凝에 관한 학위논문 259편을 포함하여, 총 2021편

13) 국내에서 鐵凝 관련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해온 최은정 역시 “동시대 여성작가들, 예컨대 張洁 王安憶 등은 물론 그보다 늦게 창작활동을 시작한 陳染, 林白 등에 대한 연구도 드문드문 이루어져온 점을 볼 때, 鐵凝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은 몹시 의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표한바 있다. - 최은정, 〈鐵凝의 《午后懸厓》에 대한 소고〉, 《中國小說論叢》, 2011.

의 鐵凝 관련 논문과 비평이 등록되어 있어 鐵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14] 국내의 경우 鐵凝에 대해 발표된 논문은 총 열세 편으로, 주로 최은정과 박창욱에 의해 주요작품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鐵凝의 산문을 다룬 박종숙의 논문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소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15]

14) 2019.9.30일 CNKI에서 '鐵凝'으로 검색하면 총 2,021건의 결과가 도출된다. 當代 작가 余華의 경우 4,419건, 蘇童 2,365건, 王安憶 3,709건, 張洁 1,362건의 결과가 도출되는 점을 참고하면, 鐵凝 문학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5) 현재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鐵凝 관련 연구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본 논문에서는 작가의 이름을 '鐵凝'으로 표기하였으나,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들의 제목은 원 저자의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 저자들은 '鐵凝', '철응', '티에닝' 등으로 표기하였다.

| 발표연도 | 저자 | 제목 | 출처 |
|---|---|---|---|
| 1997 | 박종숙 | 鐵凝의 산문미학 | 《中國現代文學》 |
| 2002 | 김은희 | 중국 신시기 소설의 문학적 공간 연구 - 여성의 몸을 중심으로 | 《中國現代文學》 |
| 2009 | 최은정 | 1980년대 중국여성소설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 장지에, 왕안이, 티에닝의 작품을 중심으로 | 《젠더와 문화》 |
| 2011 | 최은정 | 鐵凝의 《午后懸厓》에 대한 소고 - 죄 서사의 관점에서 | 《中國小說論叢》 |
| 2013 | 최은정 | 철응(鐵凝)의 《玫瑰門》 다시 읽기 - 인물의 "되기"를 중심으로 | 《比較文化硏究》 |
| 2014 | 최은정 | 철응(鐵凝)의 〈영원유다원(永遠有多遠)〉에 대한 소고 - 여성인물의 욕망을 중심으로 | 《중국어문학》 |
| 2014 | 최은정 | 鐵凝 소설에 나타난 '가족' 담론 | 《中國小說論叢》 |
| 2014 | 최은정 | 중국 신시기 여성소설에 나타난 가족 담론의 일면 - 티에닝(鐵凝)의 《목욕하는 여인들(大浴女)》를 중심으로- | 《比較文化硏究》 |
| 2014 | 박창욱, 백영길 | 鐵凝 소설 《笨花》의 서사적 지향 | 《한국중어중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 2015 | 박창욱 | 철응(鐵凝) 소설 《笨花》에 대한 신역사주의적 접근 | 《中國語文論叢》 |
| 2017 | 이재복 | 티에닝의 《목욕하는 여인들》에 나타난 여성상 | 《비교한국학》 |
| 2017 | 임효청 | 鐵凝의 《七天》 중·한 번역 연구 | 단국대 석사논문 |
| 2019 | 곡운 | 중국 당대 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어머니 형상과 모녀 관계 연구 | 건국대 석사논문 |

국내에서 발표된 첫 鐵凝 연구에 해당하는 박종숙의 1997년 〈鐵凝의 산문미학〉은 鐵凝 활동 초기의 창작의식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鐵凝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산문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박종숙은 그 가운데 총 66편의 산문을 중심으로 그녀의 산문이 추구하는 미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박종숙은 鐵凝의 산문이 미술로부터 계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강조하며, 내용미와 형식미가 함께 어우러진 작품의 풍격 중 가장 큰 특징을 '생명력'과 '천진성'으로 압축한다.

최은정은 국내에서 鐵凝에 대한 단편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하였으며, 《玫瑰門》, 《午后懸崖》, 《永遠有多遠》, 《大浴女》와 같은 鐵凝의 대표작들에 대한 단편논문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세밀한 작품 분석을 보여주었다. 이 중, 〈鐵凝의 《午后懸厓》에 대한 소고 - 죄 서사의 관점에서〉는 중국에서조차 많이 연구되지 않은 《午后懸厓》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최은정은 이 소설이 鐵凝 창작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죄에 대한 서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

중국에서 鐵凝 문학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鐵凝의 창작 행보와 연계하여 진행되어왔으며, 1975년 鐵凝이 단편소설 〈會飛的鐮刀〉로 데뷔한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鐵凝 문학의 초기로 분류된다. 〈哦, 香雪〉(1982), 《沒有紐扣的紅襯衫》(1983) 등 초기작품들에 대해서는 향토소설 또는 知靑소설로 분류되어 논의되었으며 여주인공의 '각성과 희망'에 주목하는 감상적인 해설과 논평이 주를 이루었다.[16] 실제 鐵凝은 1975년 열여덟 살의 나이로 자진해서 하향하여 4년간 농촌생활을 경험하였고 다수 작품들에 이 체험이 반영되었다.

1988년 《玫瑰門》 발표 이후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鐵凝 문학의 발전기

16) 김양수는 鐵凝의 《단추 없는 빨간 블라우스(沒有紐扣的紅襯衫》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여류문학의 차세대 기수 철응(鐵凝)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기성의 눈으로서가 아니라 젊고 싱싱한 감정으로서 다시금 받아들인다. 《단추 없는 빨간 블라우스》에 나타난, 소녀의 눈으로 받아들인 어른의 생활은 기교를 부리지 않은 상식적 수준에 대한 비판이 되었다. 그러나 철응이 상식을 비판하기 위해 이 소설을 쓴 것은 물론 아니다. 이 소설의 매력은 젊은 아가씨의 정확한 감각에 의해 생활이 새로운 매력을 갖고 재현되었다는 데 있다." - 김양수, 《중국 신시기문학 입문》, 토마토, 1995, p. 89.

로 분류되며 평론이나 연구의 각도가 다양해지는데, 그 중 페미니즘 시각에서의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논자들은 鐵凝 소설의 대부분의 등장인물과 화자가 여성이며, 여성 인물들의 숨겨진 자아와 욕망의 발견 및 표출에 대한 치밀한 묘사가 돋보인다는 점을 주목하였고, '여성의 욕망과 섹슈얼리티', '여성 생존', '여성 성장', '여성 의식', '각성'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17]

또한, 1996년 10월 南京에서 개최된 中國當代女性文學 第二屆學術硏討會에서 '초성별의식(超性別意識)'이 뜨거운 화두가 되어 논의된 이후, 鐵凝의 소설에 드러나는 '초성별의식'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18] 降紅燕을 비롯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이 성별관념을 초월한 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鐵凝의 소설이라고 분석하는데, 이유를 요약하면 鐵凝의 작품 안에서는 성(gender)을 초월하여 광대한 서사를 쓰는 경향이 나타나며, 여성의 감정과 운명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성 세계를 반영하고, 여성의 시각만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신과 시각을 통해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욕망과 육체를 현실적으로 그리는 등 여성의 특징에 대한 의식이 반영되면서도

---

17) 洪子誠은 《中國當代文學史》에서 鐵凝 작품을 '여성소설'이란 챕터로 분류하며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鐵凝은 중학교 시절 작품 발표를 시작하여 '知靑' 작가 중 가장 젊은 작가 중의 하나에 속한다. 그녀는 냉정한 현실주의 필법으로 묘사하는 중, 전통과 현대, 순박과 세속, 문명과 야만, 여성의 자주와 의존 등의 모순을 직시한다." - 洪子誠, 《中國當代文學史》, 北京大學出版社 1999, pp. 361-362.
최은정에 따르면 鐵凝은 "王安憶과 더불어 여성욕망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 꼽혔다. 鐵凝의 이 작품들은 여성성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문단에 큰 반향을 일으켰었다. 이후에도 鐵凝은 지속적으로 여성의 욕망에 천착하면서 이로부터 여성의 다양한 생존양태를 드러낸다." - 최은정, 〈철응(鐵凝)의 〈영원유다원(永遠有多遠)〉에 대한 소고 - 여성인물의 욕망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2014.
또한 최은정은 《玫瑰門》에 나타난 여성들의 다양한 생존방식에 주목하여 주인공 司猗紋이 '남성 되기'를 추구하여 '모성의 탈각'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宋竹西는 '유랑자 되기'를, 蘇眉는 '어머니 되기'를 추구했다고 고찰한다. - 최은정, 〈철응(鐵凝)의 《玫瑰門》 다시 읽기 - 인물의 "되기"를 중심으로〉, 《比較文化硏究》, 2013.

18) '초성별의식'이라는 표현은 陳染이 1994년 발표한 〈超性別意識與我的創作〉에서 진정한 사랑은 성별을 초월한다고 서술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남녀 의식을 초월하는 관점으로 세계와 인간생활을 바라봄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쓰는 '超性別意識'란 표현을 의역하면 '성별 초월 의식'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겠으나, 본고에서는 원표현 그대로 '초성별의식'이라 직역하였다.

남녀인물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성별의식이 승화되고 초월되어 작가만의 독특한 풍격과 매력을 형성하였다는 논지이다.[19] 유사한 개념으로 鐵凝 본인이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한 바 있는 '제3의 성(第三性)' 시각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왔으며, 이 역시 여성 또는 남성 일방의 단일한 시각이 아닌, 마치 제3의 성이 존재하듯이 보편적 시각에서 진실을 보려 한다는 의미이며, 관련 논의는 최근에까지도 이어지고 있다.[20]

2000년 《大浴女》가 발표된 이후는 鐵凝 문학의 성숙기로 분류되며, 이전의 연구를 계승하면서도 젠더 관점에 치우쳐있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연구 관점과 분석방법이 보다 다원화되는데, 鐵凝 소설의 주제연구와 더불어 작가 전기적 비평시각에서의 연구, 비극성과 심미관 등 서사 풍격에 대한 연구[21], 鐵凝의 죄의식 또는 참회의식이나 도덕윤리에 관한 연구[22], 신역사주의적 시각에서의 연구[23], 鐵凝을 張愛玲과 비교하거나 또는 동 세대 여성작가인 張潔이나 王安憶 등과 비교하는 비교연구[24]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19) 降紅燕은 〈關於"超性別意識"的思考〉에서 "초성별의식"의 개념 정리와 함께 鐵凝의 작품 사상을 분석하였다.

20) 鐵凝의 '초성별의식'에 대해서는 降紅燕의 〈關於"超性別意識"的思考〉, 《文藝爭鳴》, 1997年 第5期 및 張芙蓉의 廣西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論鐵凝小說的超性別視角敘事〉(2004), 高鳳傑의 〈鐵凝小說的超性別視角敘事研究〉(2015) 등을 참고. '제3의 성(第三性)' 시각에 대해서는 陳洁의 〈論鐵凝小說的"第三性"視角－淺析《對面》〉, 《安徽文學》, 2009年 第8期, 劉增安의 〈女性心靈世界的獨特透視－論鐵凝小說的"第三性"寫作〉 등 참고.

21) 宋益群, 〈鐵凝小說創作論〉, 山東師范大學 석사논문, 2006, 劉海杰, 〈鐵凝小說悲劇性研究〉, 遼宁師范大學 석사논문, 2012, 南易, 〈論鐵凝小說審美風格的流變〉, 山東師范大學 석사논문, 2017 참고.

22) 謝有順, 〈鐵凝小說的叙事倫理〉, 《當代作家評論》, 2003年 第6其, 劉玉霞, 〈論鐵凝小說中的無罪之罪〉, 《小說評論》, 2016年 第6期, 劉嘉, 〈論新世紀以來鐵凝短篇小說的叙事倫理〉,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14年 第6期, 蘇曉芳, 〈論鐵凝小說的忏悔意識〉, 華中師範大學, 석사논문, 2002 참고.

23) 박창욱, 〈철응(鐵凝) 소설 《笨花》에 대한 신역사주의적 접근〉, 《中國語文論叢》, 2015 참고.

24) 李洁의 湖南師范大學 석사논문 〈張愛玲、鐵凝小說變態心理書寫的異同〉(2014)에서는 鐵凝을 張愛玲과, 王志華의 山東師范大學 박사논문 〈人類的關愛與生命的體貼-鐵凝小說論〉(2006) 1장에서는 鐵凝을 張潔, 張辛欣 및 陳染과 비교하고 있으며, 최은정은 〈1980년대 중국여성소설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에서 張潔, 王安憶, 鐵凝을 함께 고찰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鐵凝 문학의 복잡성과 독특성을 총체적으로 연구한 박사학위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 또한 눈여겨볼 만 하다. 王志華는 2006년 발표한 山東師范大學 박사논문에서 鐵凝의 창작론을 관통하는 핵심을 '인류와 생활에 대한 영원한 선의와 애정 및 보살핌(對人類對生活永遠的善意、愛和體貼)'이라 주장하였다.[25] 王志華는 鐵凝 작품이 남성권력의 지배하에 놓인 여성들의 비극적 현실과 운명, 현대화 진행과정에서 등장하는 인간 소외와 관계의 해체, 인간의 죄의식 결여 등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閏紅은 〈鐵凝與新時期文學〉(2007)에서 중국 신시기 문학을 관통하는 중요한 작가로서 鐵凝의 다중의 신분 - 정치적 신분, 지식인 신분, 여성, 지식청년 - 과 문학세계를 함께 조망하며, 각각의 신분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고 鐵凝이 실현하는 문학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가치규범, 생명 존중의 가치 이념 등을 탐구한다.[26] 閏紅은 鐵凝이 1984년부터 199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河北 文聯 부주석, 河北 작가협회 주석, 중국작가협회 이사, 중국작가협회 부주석 등 점점 더 많은 사회적 직무를 맡으면서도 작가적 개성이나 창작활동을 희생시키지 않았다고 평한다. 또한, 閏紅은 鐵凝이 문단의 특정 조류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문단의 중심이 되어왔는데, 이러한 예는 중국 현대 문학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며 鐵凝은 개인적 삶과 사회적 직무, 작품 활동에 조화를 이루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劉艷琳은 〈20世紀中國文學女性生命体驗的性別書寫〉(2010)에서 鐵凝에 대하여 여성 성장에 대한 심리 탐구 측면에 있어서 당대 여성작가들 중에 선례가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평하며, 《大浴女》 등 작품 속에서 여성의 내면심리를 파고들어가며 결국 여성 주인공이 삶의 초점을 남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리며 각성하고 성장해나가게 한다고 분석한다.[27] 李冬梅는 지역문화 관점에서 90년대 여성 도시 소설을 살펴본 박사논문 〈地域文化視野中的90年代女性城市小說〉(2011)에서 鐵凝을 北京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로 손

25) 王志華, 〈人類的關愛與生命的體貼-鐵凝小說論〉, 山東師范大學 박사논문, 2006.
26) 閏紅, 〈鐵凝與新時期文學〉, 山東師范大學 박사논문, 2007.
27) 劉艷琳, 〈20世紀中國文學女性生命体驗的性別書寫〉, 湖南師范大學 박사논문, 2010.

꼽고, 소설 속에서 北京의 옛 胡同이 도시화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묘사와 함께 北京 방언이 신선하고 생동하게 구현되어 있음을 상세히 논증하고 있다.[28] 또한, 楊敏의 〈新時期女性小說的變態心理書寫－以殘雪、鐵凝、陳染爲中心〉(2013)에서는 신시기를 대표하는 세 명의 여성작가로 殘雪, 鐵凝, 陳染을 대상으로 삼아 소설작품 속에 드러나는 여성주인공들의 변태적인 심리서사를 집중 고찰한다.[29]

鐵凝에 대한 박사학위논문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선행 연구 및 논의들에서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은 鐵凝 문학 존재의 독특성과 복잡성이다. 鐵凝은 순문학 창작을 고수하는 작가로 인정받는 동시에 대중문화의 환영을 받으면서 주류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신시기 문학의 주 조류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으며 신시기 문학의 현대성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30] 賀紹俊도 鐵凝이 세 가지 신분 - 정치적 신분, 작가적 신분, 여성적 신분 - 을 가지면서도 문학적 개성으로 조화롭게 승화시키고 있음을 주목하며, 鐵凝에게는 독특한 위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데 문학사 속에서의 鐵凝은 孫犁와 대등한 위치로서 재평가되고 주목받아야 한다고 역설한다.[31] Laifong Leung 역시 鐵凝에 대하여, '향촌과 도시에 관한 감각적 이야기를 자유자재로 쓰는 다재다능한 작가로서, 글쓰기와 관료집단에서 동시에 성공적 커리어를 가지고 있으며, 다작을 해오면서도 그 어떤 유행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특기한다.[32]

---

28) 李冬梅, 〈地域文化視野中的90年代女性城市小說〉, 吉林大學 박사논문, 2011.

29) 楊敏, 〈新時期女性小說的變態心理書寫－以殘雪、鐵凝、陳染爲中心〉, 武漢大學 박사논문, 2013.

30) 鐵凝은 중국문학사 내에서 넓은 의미로 '신시기 작가군'에 포함되고 있지만, 1957년인 그녀가 60년대 이후 출생하여 90년대에 활동한 이들을 주로 가리키는 '신생대 작가군'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문학사 내에서 대개 '여성작가'라고 포괄되고 있다. 역자 김태성이 중국 문단에서 鐵凝의 자리가 모호하다며, "류전윈(劉震雲)이나 옌롄커(閻連科), 팡팡(方方), 츠리(池莉) 같은 동년배 작가들이 블랙유머나 신사실주의, 광상(狂想)현실주의 등 다양한 이름으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 그녀에게는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비가 오지 않는 도시 2》, p. 603)라고 말한 것 또한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31) 賀紹俊, 《鐵凝評傳-中國當代作家評傳叢書》, 鄭州大學出版社, 2005.

32) Laifong Leung, 《Contemporary Chinese Fiction Writers: Biography, Bibliography, and Critical》, Routledge, 2016.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페미니즘 관점의 鐵凝 연구들의 중요한 성과들을 인정하면서도, 소설 주인공들의 아동기 가정 내 경험과 상처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1990년대부터 2000년 초기까지 여성작가들의 작품 활동이 활발해지며 사회적, 학술계적 분위기가 그러하였듯이 鐵凝 소설에 관해서도 젠더관점에 치중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많은 성과를 축적하였다.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여성들의 비참한 현실, 일부 여성인물들의 파격적이며 반봉건・반전통적인 언행과 성적 욕망에 충실한 면모들은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며 페미니즘관점의 풍부한 논의를 이끌기 충분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해 鐵凝 소설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아동청소년기 경험의 중요성은 간과되거나 낮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 영국 비평가 로잘린드 카워드(Rosalind Coward)가 “여성의 이야기를 쓴다고 해서 ‘여성 소설’인가?”라고 물었듯이[33], 여성의 경험과 여성서사, 섹슈얼리티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 서사가 된다고 해서 ‘페미니즘소설’로 명명하는 경우 작품이 담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의의가 간과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鐵凝의 소설을 분석함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특성과 심리차이, 양성 대립 또는 화합의 측면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동기의 상처에 주목했을 때 鐵凝 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1957년생인 鐵凝은 아홉 살 때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어 부모와 분리-상봉을 반복하며 십대에 文革을 경험한 만큼 자신의 직・간접적 경험이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에게 투영되어 있다. 성인이 된 등장인물들에게서 나타나는 불가해한 특성들은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여성이거나 남성이어서가 아니라, 상당부분 아동기 가정 안팎의 문제에 기반한다.[34] 동일한 文革시대에 아

33) Rosalind Coward, 〈Are Women′s Novels Feminist Novels?〉, 《Feminist Review》, 1979.

34) 예를 들면, 王蒙은 《大浴女》 속 여성인물들이 남성을 우러러보고 남성에게 의존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小跳는 줄곧 陳在에게 “어린 아가, 게으른 아이”라고 불리고, 唐菲는 그녀와 열애하였던 무용단원에게 “아기 고양이, 아기 비둘기”라고 불리는데, 이는 우연인 것인가? (중략) 이것은 시종일관 남권사회에서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상이 조소된 여성이다. 이상적인 현대 여성에게 필요한 것들은 아니며, 여성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독립, 자신감, 분투와 내면의 강인함들이며 남성과 함께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는 감각이다.” (王蒙, 《讀大浴女》, 讀書, 2000. 참고) 그러나 王蒙이 지적한 尹小跳나 唐菲

동기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가정 내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특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鐵凝 소설의 주인공들처럼 양육자에게서 관심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누적된 경우에는, 생존과 상호작용에 대한 공포와 좌절이 심어졌을 것이고, 그에 따라 공공질서나 도덕감은 기꺼이 버릴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鐵凝의 소설 속에서는 주인공 자매가 文革 시기 가정 안팎에서 상처를 겪고 그 경험을 언어화하거나 타인과 소통하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되어, 뒤늦게 자신의 상처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아동심리학과 정신분석학 이론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소설 주인공의 아동기 트라우마에 주목하는 가운데, 특히 주인공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반성'과 '소통'의 부재 양상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鐵凝 소설에는 죄책감이 결여된 인물들이 다수 등장하며, 반성의 부재는 곧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는데, 등장인물들은 서로 과거에 대해 대화하지 않으면서도 소통할 수 없는 답답함에 괴로워한다. 부부 간, 부모자식 간, 자매 간, 나아가 자기 자신과의 소통조차 실패하기도 한다.[35] 본 연구는 소통 단절이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서 반성의 부재 및 책임회피가 결정적이며 그 배경에는 아동기의 文革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文革을 포함한 극좌사회주의운동 시기를 아동기에 겪은 주인공이 성인기에 그 경험을 어떻게 재인식하며 과거 기억을 처리하는지 그 이면에 담긴 심리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소설 결말의 공통된 패턴을 찾아보고, 주인공이 성년이 된 후 과거 트라우마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며, 이와 연계하여 文革을 포함한 과거사를

---

의 '현대 여성으로서 이상적이지 않은' 특성들 역시, 소설 속에서 묘사되는 그들의 어린 시절 경험과 상처, 가정 내에서의 양육방식 등과 관련해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35) 소통의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룬 宋益群은 鐵凝의 90년대 소설들에서 주로 표현하는 것이 "현실사회 속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소통과 상호 이해의 결핍 및 이것이 초래하는 서로간의 장벽과 경계, 오해이고 이것이 인성의 소외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鐵凝 문학의 서사 풍격의 독특성 중의 하나로서, 반사대화체(反思對話体) 서술방식에 주목하며, 《玫瑰門》, 〈誰能讓我害羞〉, 《對面》, 《永遠有多遠》, 《大浴女》 등 많은 작품 속에서 鐵凝은 내면의 대화 상대가 있으며, 자기와의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 자기반성과 성찰이 일어난다는 점을 포착하였다. - 宋益群, 〈鐵凝小說創作論〉, 山東師范大學 석사논문, 2006.

바라보는 작가의 심리를 유추해보고자 한다. 鐵凝 소설은 3인칭 화자가 작중 인물과 사건에 대하여 빈번하게 논평을 내리는 편으로, 이러한 화자의 성격과 인물에 대한 서술태도를 파악하고 작가와 화자를 분리하여 살펴봄으로써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보도록 한다. 단, 국내에서 鐵凝에 관한 단독 학위논문이 전무한 상황에서, 作協 및 文聯의 현직 주석인 鐵凝의 문학을 정치적 맥락 속으로 집어넣고 논의할 경우 작가와 그의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鐵凝의 현재 정치활동과 작품과의 관련성에 대한 언급은 배제하며 작품 자체에 보다 집중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 제2장 鐵凝 생애와 소설의 특징

## 제1절 鐵凝 생애와 창작활동 개괄

魯迅이 “문장을 논하는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전편을 주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작자의 전 생애 또는 그가 처했던 사회 상태까지 주시하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커다란 잘못이 없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바와 같이[36], 鐵凝의 생애 및 그가 처했던 사회 상황에 대한 주시는 작품에 대한 이해에 필수적일 것이다. 鐵凝의 삶에 대해서는 賀紹俊이 기술하여 2005년 출판된 《鐵凝評傳》(이하 ‘평전’)에 그의 나이 마흔 중반까지의 일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37] 본 장에서는 평전 및 鐵凝에 대한 각종 문헌, 인터뷰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의 생애를 살펴보되,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소설들과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어 유년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鐵凝의 고향은 河北省 趙縣이나, 그는 1957년 9월 北京에서 태어났다. 그가 1957년 출생이라는 사실은 賀紹俊이 특기한 바와 같이 무거운 정치적 함의를 지닌다. 당시에는 반우파투쟁이 극성이었으며, 성악교수였던 어머니와 화가이자 도시설계자인 아버지 鐵揚은 1960년 鐵凝이 세 살 때 河北省 남쪽 소도시 保定으로 일하러 가게 된다. 鐵凝은 北京의 보모 집에 맡겨졌는데, 鐵凝의 기억에 그는 당시 약 50세 정도였던 보모를 ‘奶奶’라 부르며 잘 따랐다고 한다. 이후 다섯 살에 다시 부모와 결합하여 保定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소학교까지 입학한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이후 부모가 수정주의자로 몰려 5·7 간부학교에 下放되면서 鐵凝은 아홉 살의 나이에 또 다시 北京에 보내지는데, 이번엔 외할머니댁 四合院에서 거주하게 된다. 이후 1970년 열세 살까지 외가에서 외로운 소녀시절을 보내게 된다.

鐵凝은 외가에서 본인을 받아준 이유가 당시 외삼촌부부의 어린 아기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고 상심하였으며 외할머니와 잘 지내지

36) 다케우치 요시미, 《루쉰》, 문학과 지성사, 2003, p. 57에서 재인용.
37) 賀紹俊, 《鐵凝評傳》, 鄭州大學出版社, 2005.

못했다고 한다.[38] 文革으로 인한 부모와의 이별 및 외가에서 생활하는 내용은 장편소설 《玫瑰門》과 《大浴女》뿐 아니라, 중・단편소설에도 자주 변형되어 등장하곤 하는데, 《玫瑰門》에서 蘇眉 역시 외가에 맡겨지는 날 이미 친척들의 눈빛과 반응에서 자신을 반기지 않음을 눈치 챈다. 또한 蘇眉는 자신의 외사촌동생인 宝妹를 돌보고 외할머니가 시키는 가사일과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등 거의 준 식모 생활에 가까운 고된 생활을 하며 외로움을 삭인다. 鐵凝은 외할머니가 출신이 나빴기 때문에 문화대혁명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첨과 거짓말, 다른 사람에 대한 모함도 서슴지 않았으며 이런 할머니를 목격하면서 자신은 어린 시절부터 마음 속 깊이 혐오감과 공포감을 느꼈고, 너무 일찍 조숙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39] 또한, 鐵凝은 자신이 겪은 최초이자 최고로 중요한 문학적 계몽은 바로 유소년시절 외할머니의 四合院에서 보냈던 생활이었다고 말했을 만큼, 외가에서 보낸 경험은 그의 창작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1970년 鐵凝의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집에 일찍 되돌아오면서 鐵凝은 가족과 保定에서 재결합하게 되는데, 이 사연 역시 《大浴女》에서 章嫵가 현기증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오며 아이들과 재회하는 내용의 모토가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이후 鐵凝의 고교생활 중에 아버지는 그의 문학적 재능에 주목하여, 그녀가 열여섯 살 때 쓴 두 편의 소설을 가지고 유명작가 徐光耀에게 데려간다. 徐光耀는 이 작품들을 이미 문학적으로 완성된 작품이라고 칭찬하며 그 중 〈會飛的鐮刀〉을 北京出版社가 간행한 아동문학집에 발표하게 한다.

1975년에 鐵凝은 열여덟 살의 나이로 하향(下鄉)하여 4년간 농촌생활을 경험하고, 이 경험은 鐵凝의 작품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鐵凝이 '자진해서' 하향을 선택한 점을 賀紹俊 및 연구자들은 주목하곤 하는데, 그는 문예병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기회를 포기하고, 작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촌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하에 스스로 하향했다는 것이다.[40] Laifong Leung은 1994년에 스물여섯 명의 젊은 중국 당대작가들을 인

38) Laifong Leung, 《Morning Sun: Interviews with Chinese Writers of the Lost Generation》, M.E. Sharpe, 1994 참고.
39) 孟曉雲, 〈與文學一起成熟－鐵凝訪談錄〉, 《人物》, 1999年 第2期.
40) 文革 당시 장녀와 장자에게는 하방이 면제되고 있었지만, 鐵凝은 아버지로부터 좋은

터뷰하여 책을 출간한 바 있는데 - 鐵凝은 인터뷰 대상들 중에서도 최연소 작가였다 - 하향을 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鐵凝은, 작가가 되기 위해선 중국을 이해해야 하고,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선 농촌을 알아야 한다는 뚜렷한 목적과 야심을 가지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답하였다. 후에 鐵凝은 열여덟 살 때의 자신에겐 열정도 있었고 허영도 있었노라고 추억한다. 농촌에서 목화솜을 뽑아본 것은 그의 인생에서 첫 노동경험이었다고 하며, 鐵凝은 여러 작품에서 목화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곤 한다. 博野縣으로 하향한 4년 동안 그가 쓴 일기가 50만자에 달할 정도로 그는 농촌생활을 세심하게 보고 듣고 관찰하였다.

賀紹俊이나 Laifong Leung은 鐵凝이 스스로 농촌에 뿌리를 둔 작가가 되고자 실천한 것을 두고 다른 知靑작가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면이라 평가한다.[41] 賀紹俊의 의견에 따르면, 四人幇이 분쇄된 이후 知靑작가 군단은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무리가 되는데 鐵凝은 일반적인 知靑작가의 행보와 발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 주 원인은 그가 하향한 시기가 문화혁명이 거의 끝날 시기였다는 이유도 있거니와, 鐵凝 작품 속에서 출현하는 知靑의 형상은 조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知靑작가들 - 韓少功, 王安憶, 史鐵生 등 - 은 知靑작가로서의 의식이 뚜렷한 데 비해 鐵凝에게는 그러한 자각이 없었다고 평가한다.[42] 知靑소설로 분류되어 知靑작가 작품집에 실렸던 《村路帶我回家》의 주인공 喬葉葉는 다른 知靑소설에 등장하는 지식청년과는 달리, 주관이 없고 우유부단하며 출중한 점이 없는 여학생이다. 처음엔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농촌에 왔고 농촌에 애정을 느껴 남는다. 賀紹俊의

---

작가가 되려면 농촌을 알아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진해서 하방을 선택한다. 어머니는 당시 많은 여성 지식청년들이 시골에서 강간을 당하는 등 위험한 일을 겪는다는 이유로 눈물을 흘리며 鐵凝의 下鄉을 막고자 했다고 한다. - Laifong Leung, 《Morning Sun: Interviews with Chinese Writers of the Lost Generation》, M.E. Sharpe, 1994.

41) '지청(知靑)'이란 마오쩌둥이 文革 때 실시한 하방운동 또는 상산하향 운동에 참여한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로 지식청년(知識靑年)의 약자이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 완수를 위해 정신 개조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당, 군, 정부 간부의 자녀를 포함해 젊은이들을 농촌에 보내 노동에 종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8-1978년까지 1200만 명이 변방으로 파견됐다.

42) 賀紹俊, 《鐵凝評傳》, 鄭州大學出版社, 2005, 22p.

분석에 따르면, 鐵凝은 다른 知靑작가와는 달리 이렇게 결함 있는 소녀를 그려냄으로써, 知靑작가들의 고질병인 '知靑과 농촌을 이분화하고 대립화하거나 농촌(및 농촌 사람들)을 교정하려는 가식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영웅주의나 투박한 낭만주의'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 喬葉葉가 농촌에 남는 것도 대단한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賀紹俊은 鐵凝의 산문들을 함께 고찰하며 그가 무엇보다 생활에 밀착한 작가였음을 강조한다. 1979년 鐵凝은 保定의 문학잡지인 《花山》의 편집자로 임명되고, 1982년 스물다섯 살 부터는 전업작가로 활동한다. 1980-90년대 鐵凝은 소설뿐 아니라 산문, 수필 등을 꾸준히 발표하며 발표작마다 화제를 몰고 다니고, 내로라하는 상들을 연이어 수상한다.

작가 창작 연보에 따라 주요 작품활동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43] 1982년 단편 〈哦, 香雪〉을 《靑年文學》에 발표하고 作協에 가입하며[44], 이듬해 이 작품으로 전국 우수단편소설상을 수상하고, 중편 《沒有紐扣的紅襯衫》을 《十月》에 발표한다. 1984년 〈六月的話題〉를 《山花》에 발표하고, 이 작품은 곧 연속극으로 각색되었으며, 1985년에는 《沒有紐扣的紅襯衫》과 〈六月的話題〉로 전국 우수중단편소설상을 각각 수상, 《沒有紐扣的紅襯衫》을 각색한 영화 《紅衣少女》가 중국영화 금계상, 백화상, 최우수 시나리오상을 수상한다. 이 해 鐵凝은 作協 최연소 이사로 선출되기도 한다. 1988년 첫 번째 장편소설 《玫瑰門》이 《文學四季》 창간호에 게재되고 이 작품은 이듬해 作家出版社와 河北省 文人聯盟 등이 공동으로 北京에서 단독 학술토론회를 개최할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는다. 1991년에는 〈哦, 香雪〉가 영화로 제작되어 베를린영화제에서 청춘영화최고상을 수상한다. 1994년 장편소설 《無雨之城》가 백만 부 넘게 판매되며 北京, 上海 등에서 4개월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였고, 1995년에는 일본 東京 近代文藝社에서 소설집 《給我禮拜八》이 출간되고 연속극으로 개작되어 방영된다. 1996년 鐵凝은 河北省 작가협회 주석으로 선출되고, 연말에 중국작가협회 부주석으

43) 김태성 역, 《비가오지 않는 도시》 작가 창작 연보(pp. 315-319) 등 참고.

44) 陳思和는 鐵凝의 《哦, 香雪》에 대해 '아름답고 평화로운 산촌의 정경과 순결하고 뜨거운 인간의 갈망은 과연 현대문명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사색의 끈을 던져준다고 언급한다. - 陳思和, 〈인도주의 사조와 그 논쟁들〉, 《중국당대문학사》, 노정은・박난영 역, 문학동네, 2008.

로 선출된다. 1997년 《青年文學》에 〈安德烈的晚上〉을 발표하고 이 작품은 중국 青年映畵社에서 영화로 제작되며, 산문집 《女人的白夜》로 魯迅문학상을 수상한다. 1998년 화가인 아버지의 전시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이 때의 49일간의 체험을 쓴 기행산문집 《鐵凝日記：漢城的事》를 2004년에 출간하기도 하였다. 1999년《十月》에 발표한 《永遠有多遠》은 몇 년간 중국의 이름 있는 문학상을 휩쓸게 된다. 이 해 장편소설 《大浴女》를 탈고하고, 이듬해 출간 후 이 작품은 밀리언셀러가 된다. 2000년대 이후에도 鐵凝의 소설집, 산문집들은 꾸준히 출간되었으며, 일본, 유럽, 프랑스 등으로 《大浴女》 등의 작품들이 번역되어 출간되고, 《大浴女》는 2012년 맨아시아문학상 후보로 호명되기도 하였다. 2002년에는 《永遠有多遠》을 각색한 연속극이 중국 15개 방송에 방영되었으며, 2006년 11월, 作協 제 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鐵凝은 作協의 새 주석으로 선출된다.[45] 2006년 장편소설 《笨花》발간 이후에는 단편소설과 산문을 위주로 쓰며 作協과 文聯 주석으로서의 공직 활동에 보다 중심을 둔 모습을 보이고 있다.[46]

---

45) 鐵凝은 2006년 중국작가협회의 주석으로 당선된 후 많은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자신의 재능과 커리어에 자부심을 표출하며 동시에 주석으로서의 큰 책임감과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관련 인터넷 기사 참고 (http://www.womenofchina.cn/womenofchina/html1/people/writers/9/382-1.htm)
중국작가협회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성민엽이 모옌의 노벨상 수상과 관련하여 쓴 글에서 作協에 대해 한 언급을 참고하도록 한다. "작가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작가들도 소수 있지만 그건 정말 소수이고 거의 대부분의 작가들은 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명 작가로서 연배가 되면 중국작가협회나 40개에 달하는 각 지역별 작가협회의 주석과 부주석직이 그들에게 맡겨진다. 물론 중국작가협회의 주석은 막강한 권력을 갖는다. 5만여 명의 작가를 대표할 뿐 아니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 되어 당 권력 순위 150위 안에 드는 것이다. 그러나 13명이나 되는 부주석은 그렇지 않고, 지역별 작가협회의 주석, 부주석도 물론 그렇지 않다. 작가협회는 원래, 1949년에 설립된 이래 문학부문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강력한 단체였다. 하지만 1980년대의 개혁 개방 이후로는 갈수록 빠른 변화를 겪어왔고, 그리하여 이제는 조직・관리의 측면은 대폭 축소되고 대신 지원을 위주로 하는 단체가 되어 있다. 말하자면 이제는 당이나 정부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단체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 성민엽, 〈모옌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제기〉, 문학과 사회 26(1), 2013.2, pp. 434-455.

46) 김태성이 《비가 오지 않는 도시》 역자후기에 붙이길,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과 사유의 상태를 유지해온 그녀의 작가적 자질과 위상은 앞으로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유명화가인 부친과 음대 교수이자 성악가인 모친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난 그녀의 문학적 소양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文革' 당시 중국의 지식 청년들이 전부 농촌의 인민공사로 하방되었을 때도 그녀는 문학을

## 제2절 소설의 주요 특징과 모티프

### 1. 장편소설(1988-2000)의 변화양상과 주요 특징

鐵凝은 1975년 하향해서 4년간 농촌생활을 경험한 만큼, 70년대 중후반부터 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는 농촌체험의 긍정적 경험이 반영된, 희망적이고 낙천적 정서의 단편소설을 많이 창작하였다. 80년대 중반부터는 점점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는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1983년 창작을 시작하여 1988년 발표한 첫 장편소설 《玫瑰門》에서는 北京 胡同 골목을 공간적 배경으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를 주된 시간적 배경으로 삼아, 외조모로부터 손녀까지 3대에 걸친 수난과 생존기를 인성의 추악한 면에 초점을 맞춰 그려내었다.[47]

鐵凝이 90년대 발표한 작품들은 대중성과 화제성을 획득하며 鐵凝의 명성을 높여주었는데, 이 시기 소설은 대부분 공간적 배경을 北京이나 가상의 도시로 두고 있으며 가족과 연인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갈등 양상을 보여준다. 陳思和는 80년대 이래 대륙의 문학서적은 독자에게 소일거리가 되어주거나 오락을 제공해주는 정신적 소모품이 되어왔으며 이러한 문학 풍조를 따라 90년대 이후에는 방대하고 복잡한 읽을거리형 작품들이 탄생되었다고 설명하고, 그 중 비교적 영향력이 있는 작품들 중 하나로 鐵凝의 《無雨之城》을 포함시켰다.[48]

《無雨之城》은 陳思和가 특기한 바와 같이 90년대에 문학작품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대중들에게 소비되는 상황에서 春風文藝出版社가 기획 편집한 '布老虎' 총서의 하나로, 鐵凝은 당시 출판사로부터 '재밌는(好看) 장편소설'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1993년 8월부터 10월까지 고작 3개월이라는 짧은

---

자기실현의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택했고, 그 뒤로 줄곧 작가와 문화 관료라는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라 하였다.

47) 1989년 2월에 文藝報, 河北省 文人聯盟, 作家出版社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玫瑰門》 토론회에는 사십여 명의 작가와 평론가가 참석하여, 이 소설의 함의와 특색 및 여성심리묘사, 인성의 복잡성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48) 陳思和, 《중국당대문학사》 , 노정은・박난영 역, 문학동네, 2008, p. 460.

시간 동안 이 소설의 초고를 완성한다.[49] 長鄴시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잡지사 기자 陶又佳와 혼외 연애에 빠진 부시장 普運哲 및 이를 알아차린 普運哲의 아내 葛佩雲 등을 중심으로 가족과 연인 간 에피소드를 절묘하게 풀어내고 있다. 작가 자신이 '밝고 유쾌한 정서'를 담아 '오락성'과 '가독성'에 주안을 두고 썼다고 밝혔듯이, 22.2만자로 된 이 '재밌는' 장편소설은 1994년 1월 출판 후에 연속 4개월간 北京, 上海, 深圳 등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누적 판매부수 백만 부를 넘는 밀리언셀러에 등극한다.

2005년 자신의 전집 아홉 권의 출간을 앞두고 鐵凝이 《無雨之城》을 전집에서 제외할지를 고민했으나 이후 창작활동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기에 포함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無雨之城》에 대한 작가로서의 애착은 다른 작품 대비 낮은 편으로 짐작되며 이 작품을 다루고 있는 비평이나 학술지 논문의 수 역시 현저히 적다.[50] 90년대 중국 출판 산업의 상업주의적 변화에 따라 鐵凝 역시 다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출판계에서 요구하는 상업적 코드들을 자신의 작품 창작 과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51]

또 주목할 만한 작품 중 하나는 1999년 발표한 《永遠有多遠》인데, 주인공 白大省은 《無雨之城》의 葛佩雲과 비슷한 배경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네 번에 걸친 어설픈 연애에서 번번이 남성으로부터 버림받으면서도 자신의 헌신적인 태도를 고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배신했던 옛 남자친구가 데려온 아기에 대한 동정심으로 그와 재결합하고 만다는 줄거리이다.[52] 제목 '永

---

49) '布老虎 총서'는 "현대 도시생활 묘사나 일정한 이상주의적 색채 등의 구체적인 작품 콘셉트를 설정하고, 교양 있는 중장년층을 겨냥하여 낭만주의적 연애 제재를 중심으로 삼아 문학 작품의 시장성을 유도함으로써, 상업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 박민호, 〈미디어(media) 개념을 통해 본 개혁개방 이후 중국문학의 변화양상〉, 중어중문학, 65, 2016.에서 재인용. 1990년대 이후 중국 출판계의 변화 상황과 布老虎 총서의 기획에 대해서는 박민호의 논문 참고.

50) 《玫瑰門》과 《大浴女》 두 작품의 경우, 총 사백여 편에 이르는 비평 및 학술지 논문이 발표되며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無雨之城》에 대한 단독 비평이나 논문은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매우 적으며, 鐵凝 작품들에 대한 포괄적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51) 박민호, 앞의 논문, p. 320.

52) 서구권에서 영어로 발표된 鐵凝에 대한 학술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2013년 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에서 《永遠有多遠》에 대한 석사논문이

遠有多遠’은 白大省이 본인의 헌신적이고 실속 못 차리는 천성을 매번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영원히’ 못 바꾸는 것을 작중 화자 – 白大省의 사촌 언니 – 가 안타까움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영원은 얼마나 멀까?’ 하고 자문하는 말이다. 80년대 후반 《玫瑰門》에서의 어둡고 무거웠던 정서는 이처럼 90년대 중후반 《無雨之城》이나 《永遠有多遠》과 같이, 무거운 주제의식을 표방하기 보다는 독자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유쾌한 분위기로 변모하며, 오락성과 가독성을 담보한다.

1997년 발표된 《午后懸崖》와 2000년 《大浴女》에 이르면 다시 《玫瑰門》에서처럼 인성과 시대상을 폭로하며 무거운 정서로 회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午后懸崖》의 韓桂心은 다섯 살 때 유치원 친구를 미끄럼틀에서 밀치는데, 친구는 바닥에 쌓여있던 고철더미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즉사하고 만다. 韓桂心의 어머니이자 유치원 교사였던 張美方은 현장을 목격하였으나, 떨어진 아이의 죽음을 그 아이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처리하고 韓桂心의 죄는 이후 사십년 넘게 은폐된다. 《大浴女》는 福安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尹小跳와 그의 여동생, 친구들의 성장기와 연애담을 보여주는데, 평범해 보이는 小跳 자매는 소학교 시절 세 살짜리 이부동생 小荃이 맨홀에 빠지는 것을 보고도 구해주지 않고 죽게 했으며, 그 진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십년 넘게 은폐한다. 이처럼 두 소설은 ‘어린아이의 죽음’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포함하여 인성의 악한 면과 암울한 시대상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鐵凝은 시기별로 작품 내용이나 분위기를 달리해왔으나, 지속적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어왔다. 따라서 그러한 인기를 가능하게 했던 鐵凝 문학의 특징과 개성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鐵凝 소설들 속에서는 공통된 인물 유형 및 인간관계, 플롯 등이 존재하며, 등장인물의 아동기 경험과 文革 시기 사건, 가정 내 갈등, 비윤리적 행위 등이 주요 모티프로 사용되어 왔다.

---

발표된 것은 유의미한 일이다. (Healey, Cara Michelle. “How Far is Beijing? Gender and the Capital in Tie Ning′s How Far Is Forever and “Night of the Spring Breeze” ”. MA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2013. 참고. 연구자는 鐵凝의 두 편의 단편소설 속에서 나타난 여성주인공의 삶과 北京이란 도시와의 교감(interaction)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특히 지난 40여 년간 北京의 변화를 주목하며 사회변화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 또는 주요 인물의 경우, 鐵凝 자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령의 여성으로서 어린 시절 외모나 가정환경, 교내활동 등 여러 면에서 특출하지 않은 평범한 소녀인 경우가 많다. 동 세대 작가가 쓴 文革 소재 소설 가운데 余華의 《兄弟(형제)》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못 말리는 악동 李光頭를, 王安憶의 《長恨歌(장한가)》가 '미스 上海'로 뽑힐 만큼 빼어난 미모를 자랑한 王琦瑤의 인생을 그리고 있다면,[53] 鐵凝 소설의 주인공들은 어린 시절 대체로 타인의 주목을 받지 않는 '어디에나 있음직한' 보통의 소녀로서, 대다수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이입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玫瑰門》의 蘇眉나 《大浴女》의 尹小跳 등은 소설 속 묘사에 따르면 외모는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천진하고 악의 없는, 모두에게 '친숙한' 소녀이며, 섬세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 성장해서는 대개 예술 계통과 관련한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나간다.

鐵凝 소설에서는 고루하고 순종적인 여성 인물들도 등장하는데, 《永遠有多遠》의 白大省은 《無雨之城》의 葛佩雲과 매우 흡사한 캐릭터로서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지 못하지만 이른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친지와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仁義'를 알고 실천하는 여인이다. 《無雨之城》에서 葛佩雲은 市長 부인이 되지만, 권위나 부에 대한 과시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소박한 생활을 하고 물질적 욕심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또한 가부장적 가족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남편의 외도를 알고서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책망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鐵凝이 《無雨之城》의 葛佩雲을 개인적으로 매우 애착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 밝힌 바 있듯이, 《無雨之城》에서 비중이 지배적이지 않았던 葛佩雲을 《永遠有多遠》에서 白大省으로 재탄생시켜 자세히 묘사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白大省이란 인물은 그의 사촌언니인 화자의 묘사에 따르면, 1960년대 후반 출생으로 北京 胡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외모'의 소녀였으며, 거칠고 뻣뻣한 짧은 머리칼을 가졌고, 거의 꾸미지 않으며, 남자의 셔츠를 입길 좋아하고, 키가 작지는 않지만 허리가 길고 다리는 짧으며 엉덩이는 둔탁하다. 白大省은 어려서는 소년들의 괴롭힘의 대상이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몇

53) 국내에 번역되어 출간된 작품을 본고에서 언급할 경우, 번역된 제목을 괄호 안에 倂記하였다.

번 되지 않는 남성과의 연애에 번번이 실패한다. 화자는 그녀의 피 속에 애초에 부드러움은 없었다고까지 말하며, 그러나 누구보다 仁義를 알고 실천했던 그녀에 대해 연민과 안타까움을 내비친다.

이처럼 대부분의 주인공이 평범하고 친숙한 인물인 동시에, 주인공의 가정 역시 표면적으로는 큰 풍파가 없어 보이는 편이나, 속사정을 알고 보면 복잡한 내막과 갈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는 신뢰나 편안함보다는 긴장과 불안이 내재되어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들에서는 모두 이상적이거나 행복한 가정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혼가정이거나 부부관계가 매우 취약하여 허울만 있는 가정들이 대부분이다. 《無雨之城》이나 《大浴女》에서 등장하는 거의 모든 가정은 이혼했거나 실제적으로 혼인파탄의 상태인데, 소설 속에서는 인물들 각자의 사정과 내면의 복잡한 심리를 다각도에서 보여준다.

주인공의 유년시절은 주로 자매관계 또는 또래 동성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심이 되는데, 이 중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鐵凝은 아동기 소녀가 동성에게 느끼는 섹슈얼리티를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다는 점이다.[54] 《玫瑰門》에서 蘇眉가 외숙모 宋竹西의 나체를 처음 보고 강한 끌림을 느끼는 장면이나, 《大浴女》에서 尹小跳가 열다섯 살의 唐菲를 처음 보자마자 매혹되어 버리는 장면은 아동기 동성을 향한 섹슈얼리티로서 이와 유사한 장면을 鐵凝 소설 속에서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 唐菲의 검은 눈썹과 붉은 입술 그리고 가지런하게 늘어뜨린 앞머리는 尹小跳의 눈을 부시게 했다. 당시는 화장을 할 수 없던 시대였는데도 唐菲의 입술은 어쩌면 그렇게 선홍색을 띨 수 있었는지, 파마를 할 수 없던 시대였는데도 앞머리가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말릴 수 있었는지 尹小跳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
> 唐菲를 떠올리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퇴폐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가슴이 뛴다. 열두살의 尹小跳는 열다섯 살의 唐菲를 숭배하게 된다.(p. 137)

54) 프로이트는 아동 초기의 양성성을 주장하였는데, 아동의 성과 욕망은 아동의 성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아동에게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존재하나 어쩔 수 없이 한쪽을 포기해야만 하며 이것이 '폐제'가 된다. - 주디스 버틀러, 《권력의 정신적 삶》, 강경덕 역, 그린비, 2019 참고.

小跳는 열세 살 孟由由는 조금도 섹시해 보이지 않았다고 기억하며, 그의 순진무구함과 단순함에 매료되며 친해졌다 말한다. 이처럼 小跳가 孟由由에게 느낀 친구로서 친해지고 싶은 감정과 唐菲에게 느낀 두근거림은 다른 종류의 감정이다. 주디스 버틀러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론을 재해석하여 여자아이가 여성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어머니에 대한 성적 사랑을 거부하고 아버지를 성적 대상으로 선택하며 그 결과 여성성을 고정시킨다고 설명한 바 있다.[55] 버틀러에 따르면 이성애자인 남성과 여성들은 내부에 동성애적 애착과 거부의 흔적을 지닌 자들이다. 蘇眉나 小跳와 같은 인물들은 아동기에 동성애적 애착을 느끼지만,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여성을 내면화한 결과 정체성을 정립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공은 사춘기를 지나며 삼십대에 이르기까지 몇 명의 남성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鐵凝 소설 속에서는 주인공이 이미 기혼인 남성과 불륜관계에 빠지거나 자매나 친구 사이에 연인을 뺏고 뺏기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鐵凝의 첫 장편소설인《玫瑰門》(1988)에 비해서, 《大浴女》(2000)에 이를수록 성인이 된 주인공의 복잡한 연애담이나 성애 묘사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점은 작가에게 있어 대중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심리가 발동된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大浴女》에서는 성인이 된 尹小跳 자매가 뭇 남성들과 삼각관계에 빠지거나, 서로의 연인을 빼앗고 불륜을 일삼는 등의 에피소드 등이 과도하게 서술되고 있는데, 독자의 흥미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이야기의 개연성을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이는 작가가 독자의 주의력을 암울한 과거사에만 고정시키기보다, 일정 부분 현재의 쾌락에 기울게 함으로써 독자의 호응을 얻고 싶은 욕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추측해볼 수 있겠다. 余華의 경우에도, 초기 작품들에 비해서 후기 작품인 《兄弟(형제)》에 이르면 자극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소재나, 노골적이고 과도한 성애 묘사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중을 의식한 행보라고 보는 평가가 많은 편이다.

특기할만한 점은, 鐵凝 소설에 나타나는 불륜이나 다각관계 플롯에도 불구하고 鐵凝 소설은 통속소설로는 치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통속

55) 주디스 버틀러, 《권력의 정신적 삶》, 강경덕 역, 그린비, 2019.

소설의 전형적인 인물들의 경우,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로 성격이 유형화되어 있고 단순한 대립 구조를 가지며, 마침내 선한 인물이 사랑을 쟁취하고 혼인에 성공하는 방식으로 그려지곤 하는 데 반해, 鐵凝 소설에서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고 결함이 많으며 악한 면이 내재되어 있고,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육체적·정신적 쾌락을 얻는데 실패하며, 한 때 열정적이었던 관계가 허무하게 종료되곤 한다. 《玫瑰門》의 宋竹西는 庄坦과의 부부관계에서 만족을 얻는 듯 했으나 庄坦은 성불능(性不能)이 되고, 宋竹西는 大旗의 건강한 육체에 이끌려 관계를 시작하고 재혼했으나 정서적 충족이 되지 않아서 결국 이혼에 이른다. 《無雨之城》에서 丘曄과 杜之는 서로의 예술적·사업적 능력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였으나, 오랜 망설임 끝에 시도한 육체적인 결합에서는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하고 실망할 뿐이다. 《大浴女》의 方競과 小跳 역시 서로를 향한 열정과 집념이 강했으나 小跳는 方競과의 육체관계에서 쾌락을 느끼지 못한다.

> 두 사람의 그 부분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丘曄의 것은 분명했으나 杜之의 것은 모호하다고 할 수 있었다. 丘曄은 모호한 신호가 자신의 그 부분에서 잠시 움직이다가 금세 기척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몸에서 내려왔고, 이어서 침대에서 내려갔다. 丘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불을 켰다.[56]

> 그녀를 알게 된 지 두 해가 지나서야 그는 그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녀는 육체로는 쾌락을 얻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미치도록 기뻤다. 그런 기쁨은 허영이기도 했고 어리석고 순박한 원시적 애정의 본능이기도 했다.[57]

마찬가지로, 《無雨之城》의 普運哲·葛佩雲 부부나 《大浴女》의 尹亦尋·章嫵 부부, 《玫瑰門》의 蘇眉 부부 등 소설 속 거의 모든 부부 사이에는 육체적・정신적 교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강렬한 끌림으로 시작된 연인관계들 역시 허무하게 종료되고 마는 등 鐵凝의 소설은 지극히 현실적인 애정관을 보여주면서도 작중인물의 심리를 치밀하게 묘사하며 독자의 공감을 끌어낸

56) 《비가 오지 않는 도시》, p. 236.
57) 《목욕하는 여인들》, p. 262.

다. 양성관계에 있어서 鐵凝의 소설에서는 비판의식이 많이 드러나는 편으로, 가부장적 사회구조 및 봉건적 제도 하에서 학대받는 여성의 비참한 삶을 묘사할 뿐 아니라, 개혁개방 시대 이후 도시의 삶을 그리는 소설 속에서도 애정 없는 결혼과 부부관계로 인한 여성의 갈등과 각성이 많이 재현된다.

## 2. 아동기 文革 체험 세대로서의 文革 모티프

본고에서는 鐵凝의 작가로서의 여러 가지 속성 중 아동기에 文革을 체험한 세대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그의 소설에 나타난 文革 모티프를 살펴보고자 한다. 6.25 전쟁과 한국 문학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김윤식은 전쟁체험 당시의 작가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성인시기에 전쟁을 체험한 '체험 세대', 유년기에 전쟁을 체험한 '유년기 체험 세대', 전쟁 후에 태어난 '미체험 세대'로 작가군을 분류한다.[58] 평론가 김현 또한, 같이 6.25 전쟁을 겪었지만 80대의 작가가 전쟁을 보는 관점과 50대, 30대 작가가 보는 관점은 그 체험의 차이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며, 그 다름이 결국 체험의 공간을 넓힌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역시, 작가들의 세대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38년생으로 文革을 30대에 겪은 戴厚英이 《人啊, 人！(사람아 아, 사람아!)》에서 묘사하는 성인 지식인들이 마주한 文革과, 文革을 유년기에 겪은 1960년대생 작가들이 기억하고 재현하는 文革은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59] 鐵凝과 세대가 비슷한 작가들은 文革 당시 이성적으로 뚜렷이 인지하지 못했던 경험을 수십 년이 지나 반추하며 소설에 담아낸다는 점에서 그 전 세대 작가들과는 다른 경향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주인공의 유년기부터 그려내는 소설들에서는 아직 지각없는 아이들이 겪은 가족과의 분리 및 그로 인한 두려움이 나타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누를 수 없는 아동기의 호기심이 어우러져 나타난다.

---

58) 김윤식, 〈6.25전쟁문학: 세대론의 시각〉, 《문학사와 비평》, 1991.6.30, pp. 11-39.
59) 다이호우잉(戴厚英), 《사람아, 아 사람아》, 신영복 역, 다섯수레, 1991.

鐵凝을 포함해서 文革시기 아동기를 보낸,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 출생 작가들이 90년대 이후 발표한 소설에서 아동기 文革 경험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남성작가의 작품 중에는 余華의 《兄弟(형제)》, 蘇童의 《城北地帶(성북지대)》, 王剛의 《英格力士(오 마이 잉글리쉬보이)》, 東西의 《後悔錄(미스터 후회남)》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60], 여성 작가 중에 아동기 文革 경험과 성장경험을 소재로 한 경우는 鐵凝의 소설들을 포함해서 王安憶의 《啓蒙時代》, 虹影의 《飢餓的女兒(굶주린 여자)》, 嚴歌苓의 《穗子物語》, 池莉의 《怀念聲名狼藉的日子》등이 있다.[61] 張浩는 이러한 여성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서사 유형을 분류하며, 王安憶의 《啓蒙時代》와 鐵凝의 《大浴女》를 '自我에 대한 추적과 반성을 묘파한 성장형 서사'로, 虹影의 《飢餓的女兒》와 鐵凝의《玫瑰門》을 '기아와 빈곤 및 폭력 경험에 기반한 소외형 서사'로 분석한다.[62]

한편, 이러한 세대가 文革을 소재로 한 소설을 창작하는 경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陳思和는 90년대 이후 점차 형성된 새로운 '文革' 서사에 대하여 비판적 어조를 드러낸 바 있다.[63] 그는 1990년대 이후 청년 작가들의 '文革' 기억의 특징을 '괴담'이라 할 수 있다며, 이들의 서사에서는 노세대 傷痕・反思 작가들과 달리 새로운 특징을 보이는데, 이들의 '文革' 경험의 참혹성은 그리 격렬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文革'은 피부를 째는 아픔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시대가 청소년들에게 구속이 없는 방종의 기회를 준 격이었다."라고 말한다.(p. 378) 또한 서술자가 대개 어린이나 소년으로서, 文革은 "그들의 억압받은 정서에 오히려 축제적인 쾌감을 가져다주었"으며,

60) 이욱연, 〈소설 속의 문화대혁명〉, 중국현대문학, 2001. 참고.

61) 본문에서 언급한 당대 작가들의 文革 서사가 포함된 소설을 별도로 지칭하는 용어는 없으나, 대개 '文革소설'로 포괄하여 지칭되기도 한다. '文革소설'이라는 용어는 보통 두 가지로 정의되는데, 1)文革 기간에 창작된 소설과 2)文革 종결 후에 文革 사건에 대해 창작한 소설을 가리킨다. 두 번째 정의에 따르면 상흔, 반사, 심근소설을 포함해서 신시기에 쓰인 文革을 다룬 모든 소설이 포함되며, 이 정의에 따라 중국내에서는 본문에서 예로 든 소설들 역시 '신시기 文革소설'로 지칭해 연구되기도 한다.

62) 張浩, 〈創傷記憶與成長敘事－論當代女作家的"文革"題材小說〉, 《中國海洋大學學報》, 2015年 第1期.

63) 陳思和, 〈중국 당대문학과 문화대혁명의 기억〉, 윤해연 역, 문학과 사회 20(2), 2007. pp. 368-382.

서술자는 “타인에 대한 가해에 참여하거나 혹은 방관하면서 유희를 하는 심정이 되곤 한다.”고 특기한다.(p. 379) 陳思和는 “이와 같은 축제적인 방식의 유희적 서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점차 심각해지기 시작”했다며(p. 380) , 閻連科와 余華 작품의 예를 들며 ‘괴담’이 간단하게 ‘文革’의 복잡성과 재난성을 묘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陳曉明은 당대 작가들의 소설 속에서 文革 서사가 빠지지 않으며 거대담론을 연상시킨다는 점을 경계하기도 한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국 작가들 - 특히 鐵凝과 같이 文革기간 시골로 하방했던 이들 - 은 과거로부터 거리 두기가 불가능하며, 아직도 그들의 사적인 인생과 역사적이고 국가적인 우화 간의 관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64] 즉, 知靑작가들은 한편으론 개인적이고 사적인 삶과 감정에 대해 쓰길 고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와 개인과의 연결로부터 벗어나는데 실패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사적인 경험은 역사에 의해 다시 쓰이며 역사에 의해 지정된 코스로 돌아간다고 보면서, 20세기 중국 소설의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알레고리로 읽힐 수 있으며, 현대 중국소설은 私的인 동시에 전부 公的이라고 논한다.

그러나 소설의 모든 사건과 인물들이 비유적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은 비단 중국 문학과 문화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사례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개인과 사회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은 특정 국가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현상이며, 소설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 개인의 이야기가 민족국가의 거대서사 안으로 포괄될 수 있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오히려 거대 서사를 벗어나서 작가와 작품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鐵凝은 실제로 文革 십년과 文革 전후 기간을 배경으로 하는 다수의 소설을 발표하였고 수많은 주인공들은 鐵凝이 직접 관찰하거나 간접 경험한 인물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개인과 역사의 연결을 마치 당대 중국작가 소설의 한계 내지는 극복할 점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기억과 상처를 재현하는 문학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文革을 아동기에 겪은 젊은 세대 작가가 그들의 경험과 방

64) 陳曉明, 〈The Extrication of Memory in Tie Ning's Woman Showering: Privacy and the Trap of History〉, Chinese Concepts of Privacy. Eds. McDougall, Bonnie S. and Anders Hansson. Leiden: Brill, 2002. pp. 195-208.

식으로 文革을 회상하고 재현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개별 작가의 문학적 자질의 차이는 논외로 하더라도, 보다 과감히 말하자면, 文革을 아동기에 겪은 세대가 기억하고 묘사하는 文革이, 文革을 성인기에 겪은 이들이 기억하고 묘사하는 文革보다 반드시 역사적 진실에서 더 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김현의 말을 인용했다시피, 전쟁이나 재난을 성인기에 경험한 사람과 아동기에 경험한 사람 간에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 같은 차이가 역사를 다각도로 이해하고 통찰하게 만드는 것이다.

鐵凝 소설 속에서는 반복적으로 아동기에 겪은 트라우마 모티프가 사용되는데, 주인공의 연령상 어린 시절은 필연적으로 文革 기간 십년 또는 그 전후를 배경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대개 주인공은 文革이 시작되는 1966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거나 막 입학한 상황으로, 아직 사회 상황에 대한 知覺이 없으며 인상 깊은 장면만을 단편적으로 기억한다.

> 1966년 가을 어느 날, 北京 燈兒胡同 소학교 1학년생이던 尹小跳는 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요란하고 어수선한 비판대회에 참석했다. (중략)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尹小跳는 이날의 광경이 무척이나 신기했다. '대회'가 뭔지조차 몰랐던 그녀로서는 이렇게 운동장에 앉아 있다 보니 마치 야외수업을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중략) 尹小跳는 저학년 학생들이 고학년 언니 오빠들의 구령에 따라 끊임없이 구호를 외쳤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65]

《大浴女》의 小跳는 비판대회에서 唐津津 선생이 '저질스러운 짓'을 했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도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唐津津은 미혼모로서 아이의 친부를 실토하라는 군중의 협박에 입을 다물다가, 똥물을 마시지 않으면 결국 아이까지 끌어내겠다는 말을 듣고는 똥물이 든 주전자를 들고 삼킨다. 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은 어린 小跳의 마음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게 한다.

중편소설 《午后懸崖》(1997)에서 화자 '나'는 유명작가인데,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자주 구타당해, 안경다리마저 부러진 적이 있었던 것을

65) 《목욕하는 여인들》, pp. 62-63.

기억하며, 그러나 文革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할아버지를 영영 미워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文革이 시작되고 紅衛兵 소장들이 찾아와 할머니를 붙잡고 싸우는 동안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감싸주면서 소장들과 크게 싸웠고 결국 할아버지는 이로 인해 紅衛兵들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文革은 주인공의 부모나 친척어른 등 文革 당시 성인이었던 이들의 회상을 통해서도 묘사된다. 예를 들면, 《大浴女》의 章嫵는 남편 尹亦尋과 葦河 농장에서 개조노동을 하던 당시 '산 속의 작은 집'을 이용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곤혹스러워한다. 그 집은 주중에는 자물쇠가 굳게 채워진 채로 방치되다가 일요일 하루 동안만 '부부들을 위해' 개방되는 곳으로, 葦河 농장의 남녀 부대에 살고 있는 최소 여든 쌍 이상의 부부들은 이 집을 이용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며 줄을 서야 했으며, 章嫵는 그 '경쟁'의 기억이 수십 년이 지나도 수치스럽다.

> 그들은 떳떳한 부부였지만 그 작은 집을 사용하기 위해 줄을 설 때만큼은 떳떳하기 힘들었다. 이 집을 사용할 때 그 '사용'의 함축적인 의미는 어떤 설명도 필요없을 정도로 직접적이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난처하고 겸연쩍은 기분으로 지식인 고유의 겸양과 교양을 잃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무력하나마 약간의 계책을 갖춰야 했다. (중략) 문이 열리고 한 쌍의 부부가 일을 보고 나오면 문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다음 부부가 들어가고, 그 다음 부부는 자연스럽게 집 가까이 한 걸음 다가갔다. 이 '한 걸음'도 적당한 보폭을 유지하여 최소한 15미터 이상 떨어져야 했다.(p. 78)

鐵凝 소설에 나타나는 文革의 묘사를 보면, 紅衛兵이 지식인한테 가하는 폭력이나 지식인 간의 다양한 폭력 양상은 그 가혹성의 정도가 다른 작가들의 소설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余華의 《兄弟》에서는 宋凡平이 신원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학살당하는 장면이나 孫偉의 아버지가 고문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머리에 대못을 쳐 넣어 자살하는 장면 등이 적나라하고 처참하게 묘사되며 소설 전반부에 피와 비명이 난무한다.[66] 반

66) 余華는 文革 당시 "연이어 벌어지는 가두행진과 비판투쟁대회, 조반파 사이의 무장투쟁을 목도해야 했"으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리의 집단 패싸움도 지켜봐야 했다"고 한다. "대자보가 가득 붙어 있는 길거리에서 피를 줄줄 흘리는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

면, 鐵凝 소설에서는 가정 밖에서의 文革의 광기와 폭력양상, 잔혹성에 대한 묘사는 비교적 완곡하게 처리된다. 대신 가정 안에서의 문제와 아이들의 심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김진공은 〈현대 중국의 傷痕文學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에서 傷痕문학을 통해 재현된 기억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찰한 바 있다.[67] 논문에 따르면 흔히 傷痕문학의 작가는 세 부류 – 50년대에 정치적 비판을 받고 밀려났던 이른바 '우파' 작가들, 知靑 출신 작가들, 文革이 끝난 후 중년의 나이로 창작을 시작한 작가들 – 로 요약될 수 있는데, "모두가 지식인의 시각으로 文革을 바라보고 경험한 이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성근제는 〈문화대혁명은 어떻게 재현되는가〉에서 文革에 대해 단순화, 대중화되어온 이미지와 서술을 지적하며, 文革의 실행 주체가 紅衛兵으로 단순화되고, 文革의 '대상' 혹은 '피해자'는 "지식인과 간부"로 규정되어 왔다는 점을 주지시킨다.[68] 또한, "198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생산된 문화대혁명에 대한 재현 서사들의 서사 주체가 대부분 지식인이었다는 사실"을 특기하면서,(p. 75) 戴厚英의 《人啊, 人!》를 대표적인 예로 설명한다.

1980년대 이후 文革 재현 서사들이 지식인 수난사 위주였다는 관점에서 볼 때, 鐵凝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文革 기억의 주체는 그 지식인이나 간부가 아닌 그들의 '아이들', 정확히는 '딸들'이다. 《玫瑰門》의 蘇眉 자매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이며, 《無雨之城》 丘曄의 아버지는 성장(省長)이었고, 《大浴女》 小跳 자매의 아버지는 건축설계자였으며, 唐菲의 어머니는 교사, 외삼촌은 의사이다. 그러므로 신시기 대부분의 傷痕·反思 문학이 주로 그러했던 것처럼 '지식인 문제'가 포함되기는 하나, 논의의 중심이라 할 수는 없다. 전지적 시점의 화자는 지식인 부모의 고통이나 상흔보다는 아이들 – 대개 자매 – 의 고통과 외로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鐵凝이 文革을 아동기에 경험한 세대로서 자신과 유사한 상황의 주인공을

---

치고 지나가는 것" 또한 빈번하게 겪은 일이었다. – 余華,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문학동네, 2017, p. 149. 이러한 유년기의 文革 경험들은 余華의 초기 선봉 소설들은 물론이고 《兄弟》 곳곳에서 극화되어 나타난다.

67) 김진공, 〈현대 중국의 傷痕文學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중국현대문학》, 2008, 47호, pp. 97-114.

68) 성근제, 〈문화대혁명은 어떻게 재현되는가〉, 《중어중문학》, 2014, 57호, pp. 61-89.

소설에 등장시키고 있기는 하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작가와 주인공을 동일한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大浴女》의 경우 鐵凝과 주인공 尹小跳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등 유사점이 많기는 하나, 尹小跳를 鐵凝의 자전적 인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鐵凝과 尹小跳는 1957년 출생으로 나이가 같으며 여동생이 있고, 文革 시기 부모가 간부학교에 입소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젊은 시절 鐵凝이 출판사에서 근무한 바 있듯이, 尹小跳 역시 한 아동출판사에 입사하여 임원까지 승진한다. 그러나 尹小跳의 아동기를 포함하여 삶의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들은 鐵凝의 평전이나 그에 관한 자료에서 알려진 바와 일치하지 않는다. 尹小跳의 아버지 尹亦尋을 포함해서, 鐵凝 소설 속에서 재현된 아버지 형상들은 가정 내에서 존재감이 없고 권위를 상실한 모습이 대부분이다. 반면, 鐵凝의 부친이자 저명 화가인 鐵揚과 딸과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며, 鐵凝이 작가로 데뷔하는 데 있어 결정적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데뷔 이후에도 서로의 창작 활동에 조언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69] 아버지 뿐 아니라 鐵凝의 가족들은 鐵凝이 쓴 작품을 함께 읽고 격의 없이 솔직한 토론을 나눌 정도로 사이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 鐵凝 소설 속에서 으레 등장하는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가족상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 외에도 주인공과 작가의 상황들은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鐵凝 소설을 이해할 때 작가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활용하여 소설의 '그럴듯함'을 제고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林白나 陳染의 소설과 같이 작가의 내밀한 체험을 고백한 자전적 작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鐵凝 소설의 화자와 작가 또한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소설 이해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70] 《玫瑰門》, 《無雨之城》, 《大浴女》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쓰였는데, 화자는 구체적인 신분을 드러내거나 사건에 직접

69) 鐵凝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화가이거나 도시설계자인 경우가 많은 것 또한 화가이자 도시설계자였던 부친 鐵揚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70) 소설의 작가와 화자를 같은 존재로 보아야 할지 별개의 존재로 보아야 할지의 문제는 명확한 논증이 불가능하나, 김천혜는 이 문제를 편리함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작가와 화자의 분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소설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면 그 관점을 따르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 김천혜, 《소설구조의 이론》, 한국학술정보(주), 2010, p. 115.

가담하지는 않지만, 자기 주관이 매우 뚜렷하며 작중인물들의 태도나 사건에 대하여 빈번하게 논평을 내린다. 그래서 화자의 목소리가 곧 작가 鐵凝의 목소리라고 간주되기 쉽지만, 화자는 鐵凝과는 다른, 鐵凝에 의해 창조된 허구의 인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大浴女》의 예를 들자면, 화자는 소설의 공간적 배경인 福安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도시에 대한 인물의 감정에 관해 논평을 덧붙이기도 한다. 그러나 鐵凝은 福安이 실재하지 않는 도시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으며, 현존하는 다른 도시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福安'이란 도시를 창조해내고, 그 도시에 대한 설명을 화자에게 맡긴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많은 지명이나 사건들은 현실을 기반으로 한 가상의 창조물들이며, 화자 역시 그러한 창조물 중의 하나이다.

鐵凝 소설의 화자의 특징 중 하나는 그가 매우 박학다식하고 역사적 지식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大浴女》의 화자는 尹亦尋과 章嫵가 北京에서 추방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지만 건국 초기 毛澤東 주석은 梁思成 선생을 天安門 성루로 불러 北京의 미래형 도시조경에 대한 구상을 의논한 적이 있었다. 도시에 대한 지식이 얕았던 毛澤東은 천하를 호령하고 전 중국의 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벅찬 감동에 빠져 있었고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다.…(p. 74)

화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지만'이라는 수식을 통해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는 한편, 실존 인물인 毛澤東 주석과 梁思成 선생에 관한 일화를 전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도시에 대한 지식이 얕았던 毛澤東'이라고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까지 덧붙이고 있다. 또한, 소설의 제4장을 보면, 尹小跳가 발튀스의 화집을 뒤적여보는 장면에서 화자가 갑자기 발튀스의 그림에 대한 작품론과 예술론을 길게 펼쳐놓기도 한다. 마치 자신의 전문지식을 과시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로댕의 말까지 인용해가면서 예술의 본질을 논한다. 또한, 제4장의 후반에 이르면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인간관계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식이다.

> 사람들은 자신을 감추기 위해 남에게 집중한다. 우리는 언제쯤이면 자신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내심을 갖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 익숙지 않다. 이런 시도를 했다가는 눈앞이 아찔해지고 무릎이 휘청거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타인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 그 어디에도 도망칠 곳이 없다. 타인은 곧 우리의 거울이다.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두려울수록 필사적으로 타인을 살핀다. 우리는 타인을 살피고 타인의 결점을 찾아냄으로써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아픔을 위로받으려 하는 것이다. (p. 259)

이처럼 鐵凝 소설의 화자는 때때로 작중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뒷전으로 미뤄둔 채 주관적인 논평을 펼칠 정도로 존재감이 확실하다. 따라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 같은 화자의 존재를 의식하기란 어렵지 않으며, 화자가 세상사에 대해 논평하길 좋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작가와 화자의 분리가 중요한 이유는, 작품 속 화자의 논평을 작가 鐵凝의 논평으로 동일시한다면 혼란이나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鐵凝은 소설 뿐 아니라 산문, 에세이도 창작하고 강연이나 인터뷰도 자주 하는 편인데, 소설 작품 속 화자가 피력하는 인간관이나 역사관을 작품 밖 鐵凝의 것과 동일시해서는 충돌과 모순이 발생할 것이다.[71] 따라서 작가, 화자, 주인공이 반드시 동일한 인물이 아님을 인지하고 鐵凝 소설을 읽는 것이 소설 이해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鐵凝 소설에서 재현된 아이들의 고통은 작가가 직접 경험한 그대로의 실상이라기보다는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이 결합된 산물이며, 鐵凝 소설에 대한 많은 독자들의 공감 역시 "'사실'로서의 과거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구성된 '기억', 즉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일종의 허구에 대한 공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72] 그러나 적어도 文革시기 아동기를 보낸 이들의 마음

---

71) 《無雨之城》의 경우, 작품 속 화자는 가부장적 관습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葛佩雲을 냉철하게 관찰하고 서술하지만, 정작 鐵凝은 자신이 만들어 낸 葛佩雲이란 인물에 대하여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많은 독자들이 葛佩雲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 賀紹俊, 《鐵凝評傳》, 鄭州大學出版社, 2005. p. 221.

72) 김진공, 〈현대 중국의 傷痕文學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중국현대문학》, 2008, 47

속에 꽁꽁 숨겨져 있으나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는 그 무언가를 鐵凝 소설 속에서 대신하여 나타내주고 있으며, 그것이 소설의 흡입력을 높인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王志華는 《大浴女》의 小跳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소녀 시절 그녀는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의 이중 부재(二重不在)에 직면했다. 문화대혁명 때, 학교의 비판대회에서 그녀는 사람들이 똥을 먹도록 강요하는 인간성 훼손 장면을 목격했는데, 이 기억은 그녀의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 부모의 농촌 하방은 그녀로 하여금 가족에게 받아야 할 애정을 결핍되게 하였고, 더욱이 어머니의 윤리적・도덕적 타락 및 자녀 방치는 尹小跳를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어린 시절의 불행과 외로움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졌고, 외로움의 경험과 사랑의 부재는 성인이 된 그녀를 부드러움과 사랑에 더욱 목마르게 했다.[73]

모든 인간은 생애주기별 발달단계의 과업이 있는데, 鐵凝 소설에 등장하는 자매들은 타율적・자율적 도덕성이 발달하는 시기에 십년 간 文革을 겪으며 도덕성을 발달시키지 못했다.[74] 한국전쟁의 경우 3년간 지속되었음에도 전쟁을 아동기에 경험한 이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文革 십년 간 아동청소년기를 보낸 이들의 상처는 그 정도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그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이다.[75] 흥미로운 점은 鐵凝 소설 속에서 이러한 아동기를 겪은 이들이 소설

---

호, pp. 97-114, p. 107.

73) “少年時代她面臨著家庭和社會雙重教育的缺失，正值文革時期，在學校組織的批鬥會上她目睹了一個逼人吃屎的摧殘人性的場面，這記憶刻骨銘心給她幼小的心靈以極大的傷害。父母雙雙下放農村使她缺少來自家庭的關愛，尤其是母親倫理道德的墮落及母愛關懷的失職，構成了尹小跳精神成長的障礙。童年時期的不幸和孤獨一直延續到成年，對孤獨的體驗和愛的缺失使成年後的她對溫柔和愛更充滿渴求。” - 王志華, 《人類的關愛與生命的體貼-鐵凝小說論》, 山東師范大學 박사논문, 2006, p. 39.

74) Piaget에 따르면, 아동기 도덕의식의 발달단계를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약술하면, 4-8세는 사실적 도덕성(타율적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로, 권위적 인물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는 단계이다. 8-11세가 되면, 상대적 도덕성(자율적 도덕성)이 발달하는데 아동들은 사회규칙들이 사람들의 동의 여하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는 임의적 합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 Jean Piaget,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Free Press Paperbacks, 1997. 참고.

75) 전형준이 주지한바와 같이 문화대혁명의 상처는 어떤 방식으로든 아직까지도 치유되

속에서 다시 지식인으로 자라고 언론이나 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사회 주류층이 된다는 점이다. 등장인물들이 성장하여 표면적으로 안정된 사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신 내면에 늘 상처와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유사한 경험을 했던 현 지식인층의 심리구조를 엿볼 수 있는 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

당대 중국의 정신사 문제에 천착해온 賀照田은 〈당대 중국 허무주의의 역사와 그 관념구조〉에서 현 중국의 사회 기풍과 윤리문제의 곤경에 대해, 당과 국가가 정확한 역사적 분석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 예를 들면 文革이 끝난 후인 1970년대 말 80년대 초, 공산당과 국가는 당시 당풍과 사회기풍의 문제점을 막연하게 모두 文革 때문이라고 치부했다. 이런 막연한 대답은 알게 모르게 文革을 비판하고 제거하기만 하면 사회도덕과 사회기풍이 개선될 것이라 여기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文革에서 멀어질수록, 그리고 신시기가 전개될수록 당과 국가의 정치・경제관념과 기획은 점점 더 文革과 결별했지만 당풍과 사회도덕, 사회기풍은 여전히 실질적으로 호전되지 않았다. 80년대 상반기부터 공산당과 국가는 점점 더 당풍과 사회기풍 문제를 자본주의의 이익지상주의, 개인주의 등 당시 '자산계급 자유화'라고 통칭되던 기풍과 관념이 초래한 영향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이런 막연한 인식은 다시 사회도덕, 사회기풍의 개선 문제를 사실상 자산계급 자유화에 대한 지나친 경계와 비판으로 귀결시켰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그것이 초래한 대응적 사고, 그리고 당대 중국대륙의 정신적 문제와 표면적으로만 관련될 뿐 실제로는 거리가 존재한다.[76]

중국 당국은 文革이 끝난 이후에는 사회기풍의 문제를 막연히 文革 탓으로 돌렸고, 신시기가 전개될수록 사회도덕과 기풍이 나아지지 않자 이를 자본주의의 영향 탓으로 돌렸으나, 오히려 대다수 자본주의 선진국의 사회기풍과 도덕 문제는 중국보다 깊지 않았다는 것이다. 賀照田은 현실 속 정신윤리

---

지 않은 채 끊임없이 중국을 구속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 상처는 고립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처 치유와 맞물려 있을 것이다. - 전형준, 〈제1차 한중작가회의〉 기조강연, 《언어 너머의 문학 - 중국문학에 비평적으로 개입하기》, 문학과지성사, 2013, p. 30.

76) 허자오톈(賀照田), 〈당대 중국 허무주의의 역사와 그 관념구조〉, 《현대 중국의 사상적 곤경》, 임우경 역, 창비, 2018, pp. 125-126.

상황이 갈수로 불안해짐에 주목하며, 중국의 인문 문제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문적 시각을 세워야 할 것을 역설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鐵凝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문학적 상상력과 허구성이 결합해 탄생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대 중국의 현실 문제와 연계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3장에서는 소설에 재현된 트라우마를 文革 경험과 가정 내 갈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제3장 아동기 트라우마의 형성과 표출

鐵凝 소설은 주로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있으며, 소설 내화(內話)에서는 주인공의 아동기를, 외화(外話)에서는 성인이 된 주인공의 현실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소설 내화 또는 과거 이야기에 나타난 주인공의 아동기 트라우마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77] 트라우마는 원인에 따라 빅 트라우마(Big Trauma)와 스몰 트라우마(Small Trauma)로 분류할 수 있는데, 빅 트라우마는 불의의 사고나 가족 상실, 성폭행, 전쟁, 재해 등 일상을 넘어서는 커다란 사건으로 개인의 삶에 극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험을 말하며, 스몰 트라우마는 개인의 삶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 영혼에 상처를 입는 경험을 말한다.[78] 학교나 가정 등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슬픔이나 무시 받은 경험, 외로움 속에 두려워하며 보낸 시간들이 스몰 트라우마로 쌓인다고 한다. 본 장에서는 鐵凝 소설에 나타난 아동기 트라우마를 이러한 분류 방식에 의거하여 면밀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1절에서는 주인공들이 아동기에 文革을 겪으면서 죽음이나 상해, 성폭력 등 신체적 폭력이 동반된 잔학 행위를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함으로써 받은 빅 트라우마를 살펴본다. 주인공들은 잔학 행위에 대해 극도의 공포감을 느낄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게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음을 목도하며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감을 갖게 된다. 또한, 자신이 가담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낌과 동시에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주인공이 가정에서 소통을 억압받음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스몰 트라우마를 쌓아왔음을 고찰한다. 주인공은 자신의 충격적 경험과 상처에 대하여 가장 친밀해야 하는 가족과

---

77)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4편》에 따르면, '트라우마' 또는 '외상'이란, "심각한 죽음이나 상해, 성폭력 등을 입을 위험을 실제로 겪었거나 그러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 혹은 타인이 죽음이나 상해의 위험에 놓이는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강렬한 두려움, 무력감, 공포를 경험한 경우"를 의미한다. - 주디스 허먼, 《트라우마》, 열린책들, 2017, p. 17에서 재인용 및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 하나의학사, 1997. 참고.
(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3810)

78) 김춘경, 《상담학 사전》, 학지사, 2016.

도 소통할 수 없음에 괴로워하며, 소설 속에서는 不通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들과 자아분열이 재현되고 있다.

## 제1절 文革과 관련된 빅 트라우마

### 1. 잔혹 행위에 대한 공포와 환멸

《玫瑰門》(1988), 《午后懸崖》(1997), 《大浴女》(2001)는 모두 액자소설의 구조를 갖는데, 내화와 외화의 비중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며, 과거 이야기인 내화의 비중이 클수록 文革 시기 잔혹 행위들에 대한 묘사가 더 많고 상세하다. 《玫瑰門》에서는 내화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내화 안에 또 여러 내화가 있어 복잡한 구조를 띠는데, 소설의 제1장에서 화자는 蘇眉가 미국으로 떠나는 동생 부부를 공항까지 배웅하고 돌아오는 사건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제2장부터는 이십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 蘇眉가 다섯 살 때 외조모 司猗紋을 처음 만난 일을 시작으로 蘇眉의 아동기(眉眉의 이야기)를 서술한다.[79] 이 내화 속에는 다시 司猗紋, 姑爸, 竹西 등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종속되기도 하지만, 전체 소설의 중심이 되는 내화는 眉眉가 司猗紋의 四合院에서 지내는 文革 시기의 이야기로, 眉眉는 신체적 폭력이 동반된 잔혹 행위들을 빈번하게 목격하게 되고 극도의 공포와 환멸을 느낀다.

眉眉가 겪은 가장 큰 트라우마 중 하나는 姑爸가 紅衛兵 小將들에게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당한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매우 가난하여 변변한 살림조차 없었던 羅大媽의 식구들은 文革이 시작된 후 지침에 따라 司猗紋의 四合院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羅大媽에게는 司猗紋 식구들에 대한 뿌리 깊은 열등감이 내재되어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악의를 표출한다. 타인의 귀지를 파는 취미가 있는 姑爸는 자신을 기피하던 羅大媽에게 접근하여 귀지를 파내는데 성공하나, 이 행동을 계급적 공격으로 받아들인 羅大媽의 분노

79) 《玫瑰門》에서는 蘇眉와 蘇瑋의 아동기 이야기인 경우, 그들의 애칭인 '眉眉'와 '小瑋'로 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도 아동기의 蘇眉를 지칭할 때는 '眉眉'로, 蘇瑋는 '小瑋'로 표기하도록 한다.

를 자아내고 羅大媽에게 복수를 결심하게 만든다. 紅衛兵 小將인 羅大媽의 아들들은 姑爸의 애완묘 大黃이 자신들의 고기를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지령에 따라 大黃을 무참하게 폭행하고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大黃의 죽음 후 광분한 姑爸가 羅大媽의 식구를 저주하자, 아들 패거리는 姑爸를 발가벗겨 마구 구타할 뿐 아니라 음부에 쇠꼬챙이를 찔러 넣는 가학 행위까지 한다.

竹西와 眉眉가 姑爸를 발견했을 때, 姑爸는 발가벗겨져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로 쇠꼬챙이가 찔린 채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와 충격에 빠진 眉眉는 즉시 경련과 호흡곤란,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이고, 그날 밤에는 고열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지기까지 하는 등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증상은 眉眉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단 하루도 악몽을 꾸지 않고 잔 날이 없을 정도로, 일상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을 준다.

眉眉는 姑爸가 가혹 행위를 당한 현장을 목격한 것 외에도, 文革 기간 외조모 司猗紋이 자기의 생존과 권위를 위해서 무고한 이웃이나 식구를 모함하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환멸감에 빠진다. 司猗紋은 봉건 관료집안 출신으로서, 자신이 구(舊)사회와 절연했으며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반동분자로 몰아세우고 모함에 앞장선다. 예를 들면, 司猗紋은 紅衛兵 小將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재산을 몰수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는데, 집안의 모든 재물을 자진하여 헌납함으로써 혁명 의지를 인정받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紅衛兵들이 오자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일장연설을 늘어놓으며 혁명의지를 불태우고, 진귀한 물품들을 미리 묻어두고는 마치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은닉해둔 것을 가까스로 발견한 것처럼 거짓소동을 꾸미기도 한다.

眉眉는 특히 司猗紋이 배다른 동생 司猗頻 부부를 모함하여 司猗頻으로 하여금 가혹한 고문을 당하게 한 사실을 알게 되고, 司猗紋을 향한 견딜 수 없는 증오감에 휩싸인다. 眉眉에게 있어서 매정하고 쌀쌀맞은 司猗紋과는 달리, 司猗頻은 따뜻하고 인자한 이모할머니였다. 그러나 司猗頻은 司猗紋의 거짓 고발로 인해 반동분자로 몰려 紅衛兵들에게 모진 고문을 당했고, 司猗

頻의 아들은 자신이 어머니와 철저히 연을 끊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펄펄 끓는 기름을 어머니의 가슴에 쏟아 붓기까지 하였다. 眉眉는 한때 자신이 포근하게 안겨 잠들었던 이모할머니의 가슴이, 심한 화상을 입고 젖꼭지는 눌러 붙어 흉한 몰골이 된 것을 보고는 깊은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진다.

眉眉를 더 큰 절망에 빠뜨린 건 司猗紋이 결백한 司猗頻를 모함한 사실 뿐만이 아니라, 폐인이 된 司猗頻의 몰골을 보고도 司猗紋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태연자약하다는 점이다. 司猗紋은 司猗頻에게 푼돈이나 쥐어주며 마음의 빚을 갚았다고 홀가분해 하며, 司猗頻은 司猗紋이 자신을 무고(誣告)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의붓언니에 대한 고마움에 눈물을 흘린다. 모든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眉眉는 司猗紋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경멸감을 느끼며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고, '인류로부터 탈출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司猗紋은 또한 眉眉가 羅大媽의 큰아들 大旗에게 갖는 호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춘기에 들어선 손녀의 예민한 성정까지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眉眉에게 宋竹西와 大旗의 성관계 현장을 목격하게 한다. 司猗紋에게는 자신의 며느리 宋竹西와 손녀 眉眉를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 뿐 아니라, 羅大媽와의 암묵적인 권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이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본 적 없어 남녀의 육체관계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眉眉는, 자신이 외가에서 유일하게 의지하던 외숙모와 자신의 첫사랑 大旗가 나체로 성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을 보고는 심한 충격을 받고 그 후로도 이 기억을 영영 지우지 못한다. 어린 眉眉게 있어, 자신이 좋아하고 의지하던 사람들의 정사 장면을 목격한 사실 보다 더 큰 상처는 할머니가 의도적으로 眉眉를 현장에 보낸 사실이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자신 보다 오십 살이나 더 어린 손녀의 영혼을 짓밟는 짓도 서슴지 않은 司猗紋에게 眉眉는 다시 한 번 크나큰 배신감을 느낀다. 이처럼 《玫瑰門》에서는 文革 시기 일어난 신체적·성적(性的) 폭력, 학대, 모함 등 각종 잔혹한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재현되며 그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의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無雨之城》(1994)에서 丘嘩은 文革 시기 부모와 떨어져 오갈 데 없는 고

아 신세로 아동기를 보냈다. 丘曄에게 있어 그 시절을 기억하는 것은 “춥지도 않은데 몸을 떨게” 만들 정도이다. 長鄴시 副二號는 당시 성(省)의 최고 관료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부모들은 거의 모두 반혁명분자 수용소에 갇히고 하인들은 모두 쫓겨나 집에는 아이들만 남겨진다. 丘曄은 “아이들은 낮에는 감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저녁이 되면 그저 침대에 누워 악몽을 꾸는 것이 고작”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스스로를 관리하는 데 익숙해졌고 조금씩 문밖의 세상으로 나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한다.[80] 십여 명 정도 무리를 이룬 아이들은 방공호를 찾아내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기들끼리 일탈 행위를 하고, 남자아이들이 누드화를 구해와 이것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을 돌아가며 강간하고 서로 구경한다. 丘曄은 당시 무리의 대장으로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에게 강간을 당했다.

文革이 종료된 후 丘曄의 아버지는 副省長으로 복권되어 부유한 가정을 되찾았고, 丘曄도 성공적인 커리어우먼의 삶을 살게 되지만,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당시의 기억을 자주 떠올리고 괴로워한다.[81] 그는 남자 아이가 강압적으로 옷을 벗길 때 자신이 전혀 반항하지 않았다고 기억하며 스스로에게 일부 책임을 돌리기도 하는 등 혼란스러운 심리상태를 보인다. 그는 가장 친한 동생인 陶又佳에게 방공호에서의 사건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며 울분을 토하지만 陶又佳에게 마저도 진심으로 위안 받지 못하며, 그저 어두운 과거를 오롯이 감내하고 괴로워할 뿐이다.

## 2. 피해의식과 죄의식의 맞물림

《玫瑰門》의 蘇眉와 《無雨之城》의 丘曄에게서 文革 시기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 학대를 경험한 피해자로서의 트라우마가 주로 나타난다면, 《午后

80) 《비가 오지 않는 도시 1》, pp. 128-130.

81) 소설의 서술에 따르면, 陶又佳는 서른두 살이며, 丘曄는 그보다 여덟 살 많다고 한다. 소설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추산한다면, 陶又佳와 丘曄는 각각 1961년, 1953년 출생이며, 丘曄는 文革 초기 열세 살에 불과했을 것이다. 제대로 된 성교육조차 받은 적 없이 강간을 경험한 丘曄는 사십대에 이르기까지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懸崖》와《大浴女》에서는 주인공이 겪은 시련에 대한 피해의식과 함께 가해자로서의 죄의식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午后懸崖》(1997)는 주인공 韓桂心이 아동기에 대약진운동과 文革을 경험하고 90년대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서술한 중편소설로서, 사람들의 운명이 각 시대의 논리에 따라 극과 극으로 급변함을 묘파하고 있다. 화자 '나'는 저명한 작가로서 할머니의 장례식에 다녀와 홀로 묘지를 거닐던 중, 韓桂心이라는 여인을 만나 갑작스런 고백을 듣게 된다. 화자 '나'와 韓桂心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소설의 외화에 해당하며, 韓桂心의 고백 내용이 내화가 된다.

韓桂心은 1958년 다섯 살 때 北京路 유치원에 다니던 같은 반 친구 陳非를 미끄럼틀 위에서 밀쳐 떨어져 죽게 했다. 편모슬하의 다섯 살 韓桂心은 인도네시아 화교 아버지 덕분에 외국 장난감을 갖고 다니며 과시하는 陳非에 대한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를 밀쳤으나 하필이면 陳非가 대약진운동을 위해 유치원에서 고철을 쌓아둔 곳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즉사하고 만 것이다. 이 장면을 목격한 韓桂心의 어머니이자 北京路 유치원 교사였던 張美方은 韓桂心과 눈을 마주치자마자 검지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고 "쉿!" 하고 손짓을 하고, 陳非의 죽음은 아이 자신의 부주의에 의한 실수로 처리된다. 사건 직후 담당교사인 張美方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陳非 죽음의 원인으로 교사의 불찰과 미끄럼틀 아래 쌓여있던 고철더미에 초점이 맞춰졌기보다, 陳非가 가지고 놀던 "영국제 원숭이 장난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張美方은 교묘히 대처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이 장난감에 쏠리게 한다. 張美方에 따르면 陳非는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이 장난감을 안고 미끄럼틀에 올랐고, 과시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 장난감은 자본주의 영국에서 왔으며, 중국은 아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런 장난감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누구나 그 장난감을 부러워했다. 張美方은 만약 중국이 장난감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다면 陳非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결론적으로 중국은 대약진을 통해 더욱더 국력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중론을 모았고, 누구도 고철더미의 문제를 지적하지 못했다. 당시는 아무도 대약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韓桂心 모녀는 文革이 시작된 이후, 과거 '화교의 자제를 박해'해 죽게 했었다는 이유로 시골로 하방된다. 모녀는 黑石頭村의 누추한 절에서 1년을 지내는데, 韓桂心에게 있어 극심한 추위의 고통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며, 그녀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고통을 생생히 기억한다. 손발과 귀에 잔뜩 동상이 걸리고 바람이 칼로 얼굴을 베는 것처럼 아팠으며, 이런 통증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질 정도로 韓桂心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 시골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난 1년 뒤 北京路 유치원에서 한 소식이 전해지는데, 다름 아니라 陳非의 아버지가 미국의 스파이(特務)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 스파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張美方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으므로 처벌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고, 韓桂心은 陳非의 아버지가 미국 스파이라는 사실을 하늘에 감사한다.

文革이 끝나고 사상 해방의 시대가 온 뒤 張美方은 그제야 미끄럼틀 아래 쌓여있었던 고철더미에 대해 지적하고, 한 시대의 엉터리가 한 아이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소리높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韓桂心이 陳非를 밀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韓桂心은 "陳非의 죽음은 내 질투로 인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은 모든 시대와는 긴밀한 상관이 있지만 오직 나하고만 무관했다."고 말한다.[82] 韓桂心은 어머니 張美方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여 자신에게 평생 가책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하여 원망을 품고 어머니를 미워한다.

이 소설에서 아동기의 韓桂心에게 나타나는 감정은 열등감과 질투, 피해의식과 두려움 등 부정적인 감정들뿐이다. 태어나서부터 아버지를 갖지 못한 결핍감에 더해 부유한 동급생들에게 느꼈던 질투와 열등감, 교사인 張美方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친구들이 알아차릴까봐 매일 느꼈던 초조함, 陳非를 죽인 후의 공포와 죄의식, 文革 기간 黑石頭村에 하방되어 경험한 극심한 추위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의식……. 가장 큰 트라우마를 안긴 두 가지 사건은 陳非의 죽음과 黑石頭村으로의 하방으로, 韓桂心은 평생 이 두 가지 기억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82) "陳非死于我的妒嫉之手，這件事却可以和每个時代緊密相聯，惟獨与我无關。" - 鐵凝, 《午后懸崖》, 人民文學出版社, 2006. p. 38.

《大浴女》(2001)의 주인공 尹小跳는 아동기에 韓桂心과 유사한 사건을 겪는다. 韓桂心이 유치원 친구를 죽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小跳는 20여 년 전 어린 동생 小荃이 맨홀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트라우마가 되어 小跳를 평생 따라다닌다.

尹小跳는 1957년 출생으로 그가 어린 시절 겪은 최초의 충격적인 일은 바로 文革이 시작한 1966년, 학교 비판투쟁에서 唐津津 선생이 똥물을 삼키는 것을 본 일이다. 唐津津은 미혼모로서 딸 唐菲를 낳아 기른다는 사실 때문에 비판투쟁의 대상이 되었고, 그녀가 학생들의 탄압에 못이겨 똥물을 마시는 장면을 본 小跳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구토를 반복하며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고 이 일을 평생 기억에서 지우지 못한다.

이후 小跳의 부모가 농장으로 하방되어 그는 동생과 단 둘이 의지하며 생활하게 된다. 고작 11살과 7살에 불과한 小跳와 小帆은 文革시기 단둘이 집에 남아 의식주를 해결해야 함은 물론, 부모의 출신성분 때문에 紅小兵에도 들어갈 수 없어 아이들의 따돌림을 받는 등 고립된 상황에 처한다. 자매는 스스로 장을 보고 요리를 해먹고, 그들을 괴롭히는 동네 불량배들한테 맞서 싸우는 등 두렵고 낯선 생활 속에서도 우애를 돈독히 다지며 자립해나간다. 그러다 어머니 章嫵가 일시적으로 돌아오는데, 章嫵는 의사인 唐医生을 유혹해 잠자리를 갖고, 거짓 진단서를 발급 받아 葦河 농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채 唐医生과 관계를 이어나간다. 그토록 기다리던 어머니의 돌봄을 받기는커녕 어머니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小跳는 배신감과 두려움에 휩싸인다. 더욱이 小荃의 출생은 小跳에게 위협으로 다가온다. 미혼모 唐津津 선생이 '저질스러운 짓을 한 여자', '문란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똥물을 들이키는 것을 목격했던 小跳로서는 어머니의 불륜으로 인한 동생의 탄생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안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앤서니 스토에 따르면, 아이가 의지하던 사람을 향한 신뢰를 한순간에 잃는 것이 엄청난 불안감을 준다고 한다.[83] 小跳 입장에서는 딸을 보호해주어

83) 앤서니 스토는 전설이나 신화 이야기를 특히나 무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존재의 탈바꿈'이며, 아이에게 있어서는 의지하던 사람을 향한 신뢰를 잃는 것이 엄청난 불안감을 준다고 설명한다. "늑대를 만나는 것도 충분히 무섭지만 사랑하는 할머니가 이렇게 무서운 짐승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의지하던 사람을 향한 신뢰를 한순간

야 하는 어머니의 존재가 순식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타인처럼 바뀐 것과 다름없는 상황으로, 그는 어머니에 대한 신뢰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미워하게 된다. 小跳 자매는 小荃을 증오하며 그녀를 따돌리거나 괴롭히고, 어느 날은 小荃이 뚜껑이 열려있는 맨홀 쪽으로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도 저지하지 않은 채 그녀가 빠져죽는 것을 방관한다. 그 후 자매는 비통해하는 어머니에게는 물론 누구에게도 이 사고를 본 적 없는 척 한다.

> "小荃이 맨홀 근처까지 가는 것도 못 봤단 말이지?"
> "네, 못 봤어요."
> "그래도 넌 봤어야지. 넌 小荃의 언니잖아!"
> "못 봤다니까요. 小帆이 증인이에요."
> 小跳가 손을 잡아끄는 대로 小帆은 아무 말 없이 끌려와 옆에 앉았다. 입을 열 필요도 없었다. 두 자매는 손을 맞잡는 것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용기를 전했고 얼마든지 둘 다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p. 219)

小跳 자매는 이렇게 한 생명을 제거한 후 이 일을 잡아뗀 채 일상을 살아가지만, 小跳의 꿈에는 늘 小荃이 등장한다. 小跳에게는 죄의식과 더불어 강한 피해의식이 혼재되어 있으며, 가족을 배신한 어머니에 대한 경멸감, 사생아가 자신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피해의식, 어머니의 혼외출생이 밝혀질 경우 당하게 되었을 혹독한 고문과 비난을 자신이 막았다는 변명적 심사가 모두 뒤섞여있다.

---

에 잃어버림으로써 불안감이 엄습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아이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 중 하나는 겉보기에 '착하고' 믿을 만한 부모가 사실은 악당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선과 악이 구분되어 있는 한,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폭력, 죽음 그리고 그 밖의 것을 참아낼 수 있다. 그러나 선한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악당이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경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이어서 아이에게 큰 충격이 된다." - 앤서니 스토, 《공격성, 인간의 재능》, 심심, 2018, pp. 98-99.

## 제2절 가정에서 축적된 스몰 트라우마

앞 절에서 文革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인공의 아동기 빅 트라우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鐵凝의 소설에는 이 뿐만 아니라 가정 내의 특징으로 인해 아이들의 스몰 트라우마가 축적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인간을 포근하게 보호하는 집을,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에 있을 때 무의식 속에 형성된 이미지와 동일하다고 설명하며, "집은 인간에게 안정의 근거나 그 환상을 주는 이미지들의 집적체"이고, 또한 "우리의 최초의 세계다. 그것은 정녕 하나의 우주다."라고 묘사했다.[84]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소설에서 묘사되는 아이들의 '집'은 안정의 근거가 되어주지 못했으며, 주인공들은 '집' 안에서 영혼의 상처를 입고 스몰 트라우마를 쌓아간다. 주인공이 가정에서 겪는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가족과 소통할 수 없다는 괴로움이다. 사람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인간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삶에 대한 의미를 얻는데, 주인공들은 가장 친밀해야 하는 가족과의 소통을 거부당함으로써 기본적인 인간관계 형성에 실패하고, 성장 후에도 안정된 애정관계를 갖지 못하고 부정적 면모를 보이게 된다.[85]

### 1. 관계별 소통 억압과 회피 양상

鐵凝 소설 속에서는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부부 사이가 매우 취약하고 문제적으로 그려지며, 그로 인하여 확산된 가족 내 다른 관계들에 이르기까지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게 된다. 《玫瑰門》의 司猗紋 부부나 《午后懸崖》의

84)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p. 77,

85) 정신분석학의 시초인 프로이트 역시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무의식을 최초로 발견하였고, 정신질환은 대화를 통해 밝혀내고 치료해야 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점을 정립하였다. 프로이트학자인 앙투안 베르고트(Antoine Vergote)는 사랑의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이 '의사소통을 하고 하나가 되려는 욕망'이라 말하며, 정신건강의 징표인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은 곧 '의사소통'을 통해 '합일'되게 하는 능력이라 성찰한다. - 앙투안 베르고트(Antoine Vergote), 《죄의식과 욕망》, 학지사, 2009, p. 52. 참고.

張美方 부부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는 부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無雨之城》의 普運哲, 《大浴女》의 方競, 陳在처럼 기혼자들이 거리낌 없이 외도를 일삼는다거나, 외도가 없더라도 부부 간에 관심과 교감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혼한 상태가 많으며 혼인관계에 있을 때에도 부부간에 애착이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 중에서도 《大浴女》의 尹亦尋과 章嫵 부부는 심각한 대화 단절과 회피, 불통의 양상을 보여준다. 尹亦尋은 文革 기간 자신이 농장에 있을 때 부인 章嫵가 唐医生과 외도를 저질렀으며 小荃이 唐医生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 사실에 대해 거론하지 않고 대화를 회피해버리고, 章嫵는 尹亦尋이 진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질책하지 않고 모르는 체 하는 상황에 괴로워한다.

> 그는 여전히 아내 章嫵와의 충돌을 피했다. 자신이 다그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이실직고할 아내였다. 어쩌면 그녀는 남편의 질문에 답할 준비를 끝낸 상태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쩌면 그녀는 남편이 그간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캐묻고 따져대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렇게 하는 것이 두 사람 사이의 고통스런 침묵보다 훨씬 견디기 쉬울 것이었다. '실컷 욕을 하든지 마음먹고 날 때리든지 하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 숨통을 죄는 거에요!' 상대의 침묵을 견디기 위해선 강인한 정신이 필요했지만 章嫵에게는 이런 정신력이 갖춰져 있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의 침묵에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尹亦尋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만으로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 영원히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었다.(p. 232)

尹亦尋에게 있어서 '침묵'은 관계의 주도권이자 지배권이다. 아내에게 먼저 배신당한 피해자로서 尹亦尋은 '침묵'이라는 벌로 아내를 고통스럽게 한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에서 채권자(피해자)는 채무자(가해자)에게 고통(형벌)을 줌으로써 배상이나 보상을 받는다고 느끼며, 쾌감을 얻는다고 논증한 바 있다.[86] 이를 적용한다면, 尹亦尋은 章嫵가 저지른 '악행'에 대하여 수

86)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주인의 권리에 가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도 한 인간을 '자기보다 낮은 존재'로 경멸하고 학대할 수 있다는 우월감을 - 아니면 본래적인 형벌권, 즉 형벌 집행권이 이미 '당국'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적어도 그 사람이 경멸당하고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는 우월감을 맛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보상이란 잔인한 행위를 지시하고 요구하는 권리를 갖는다는 데에 그 본질이 있

십 년 동안 부인을 자기보다 낮은 존재로 경멸하며 우월감을 맛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尹亦尋이 곧 채권자, 피해자이기 때문에 章嫵는 그러한 고문 또는 형벌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尹亦尋은 小荃을 마치 자기의 친자식 인양 인정하면서 어째서 小荃을 잘 돌보지 못했냐고 章嫵를 질책하고, 이에 대해 화자는 '진상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그토록 체면을 지켜야 하느냐고 의문을 품기도 한다. 심지어 소설의 화자는 이 같은 不通의 양상을 '연구 가치가 있는 주제'라며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 이런 고통의 뿌리는 연구 가치가 있는 주제임이 분명했다. 한 사람을 평생 자책에 시달리게 한다는 것은 극도로 잔인한 능력이자 가장 효력이 확실한 보복의 수단이었다. 자책의 쓴 뿌리는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생겨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포착하기 어려운 감정이라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 마음속을 파고들어와 자리를 잡게 된다.(p. 238)

尹亦尋은 끝내 小荃의 문제는 꺼내지 않은 채 아내와 일상적인 다툼을 지속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이로써 부부 서로에게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역시 고통을 주며, 부모-자녀관계의 악영향으로 이어진다.

文革 기간 동안 중국사회는 많은 지식인 부모들이 노동개조학교에 들어가거나 비판투쟁의 대상이 됨으로 인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동일한 文革 기간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 내에서의 차이는 존재하며 문학작품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鐵凝과 동 세대 작가 余華의 작품을 보면, 초기 소설들에서와는 달리 2005년 발표한 《兄弟》에서는 文革의 광기 속에서도 아이들을 보호하는 희생적이고 자상한 아버지 宋凡平과 어머니 李蘭이 등장하기도 한다. 소설에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돌봄 아래, 宋鋼과 李光頭는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즐거운 유년기를 함께 지내는 모습들이 다채롭게 그려진다. 8-9살에 불과한 宋鋼과 李光頭는 "그저 劉鎭이 매일 무슨 명절이라도 지내듯 시끄러웠다는 것 이외에 문화대혁명이 뭔지, 세상이 변했는지 알지 못했다."[87]

---

는 것이다." - 니체, 《도덕의 계보학》, 연암서가, 2017, p. 84.

87) 위화(余華), 《형제》, 최용만 역, 휴머니스트, 2007, p. 103.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들은 늘 신이 나서 웃음이 터져 나왔고, “서로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도처를 누비고 다니는 자유생활을 만끽했”던 것이다.(p. 91.)

그러나 鐵凝 소설에서는 대개 딸에게 무심하거나, 마음은 있더라도 애착 형성에 실패하는 부모 형상이 대부분이다. 《玫瑰門》에서 蘇眉는 文革기간 부모가 농장으로 하방됨으로 인해 외조모인 司猗紋에게 맡겨지는데 외가는 감정 표현이 억압되는 분위기로, 특히 司猗紋은 손녀의 성장에 필요한 안정감이나 인정, 칭찬 등을 전혀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손녀를 감시하고 속박한다. 농장에서 부모와 함께 지냈던 小瑋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부모와의 대화가 불가능함을 체화했다.

> 小瑋는 다시 묻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네가 물어보는 말에 어른이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일”이라고. 이게 小瑋의 누적된 경험이었다. 그녀가 농장에 있을 때 자주 이러한 상황을 겪었다. 아빠에게 물으면, 아빠가 말을 하지 않았고, 엄마에게 물으면 엄마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단련되었다.[88]

부모-자녀 관계 중에서도 특히 딸의 어머니(할머니)에 대한 미움 및 불신은 많은 작품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大浴女》에서 小跳가 小荃을 미워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章嫵가 농장에서 돌아와, 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는커녕 小荃을 돌보는 일조차 小跳 자매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89] 어머니의 무심함에 상처받아온 小跳 자매는 결국 小荃의 사고마저 방

---

88) “小玮不再问了。她想，你问话大人不回答那便是“事儿”，这是小玮的经验积累。她在农场就常遇到这种时刻：问爸，爸不说话；问妈，妈不说话。于是她就锻炼自己跟自己说话了。” - 《玫瑰門》, p. 384.

89) 오카다 다카시는 “모성애를 느끼며 성장하지 못한 아이는 살아남을 수는 있어도,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하다. 성인이 된 이후 배우자를 구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큰 문제를 드러낸”다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모성애란 반드시 실제로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애착을 갖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받는 애정과 돌봄, 애무, 포옹 등으로부터 생기는 안정감 등을 말한다. “자신의 일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아이에게 늘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펴주어야 비로소 둘 사이에 애착 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원할 때 반응해주는 존재에게 애착감이 생긴다.” - 오카다 다카시,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동양북스, 2013. pp. 24-25.

관하고 만다.

> 그제야 章嫵는 집에 돌아와서도 두 아이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학교생활은 어떤지, 매일 뭘 먹고 지냈는지, 혹시 누가 괴롭히지나 않았는지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두 딸을 힘껏 안아주고 싶었지만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조차 없는 것 같았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기를 원하겠지만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아이를 안아줄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엄마의 빛에 물들기를 바란다 해도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모성이라는 빛을 뿜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p. 97)

小跳는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인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자 하나, 아버지 역시 그녀의 마음을 들어주려 하지 않는다. 아버지 尹亦尋에게는 체면과 가정이라는 허울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이다.

> 왜 이제야 왔느냐는 딸아이의 말 속에는 아빠에 대한 원망과 오랜 기다림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물론 그 말 속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겠지만 小跳는 이제껏 한 번도 '다른 의미'에 관해 듣고 싶지 않았다. 법도 있는 가정에 '다른 의미'란 있을 수 없었다. 비록 이 가정에 누군가 감당해야 할 수치가 있고 그것이 아무리 크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의미'는 외면되어야 했다.(p. 230)

윌리엄 데이먼은 부모들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개방적으로 아동들과 경험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한다.[90] 부모는 적당한 시점에 정서적 반응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명백한 설명을 하고, 아동의 질문에 대해 숨김없이 대답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먼에 따르면 성인들이 도덕적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시범을 보임으로써 아동들 역시 자기들의 도덕적 정서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학습하게 된다.[91] 尹亦尋

---

90) 윌리엄 데이먼, 《아동 도덕발달과 열린 교육》, 문음사, 1997. p. 223.

91) "진실성이 가정 안에서 일관성 있게 실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진실성의 가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녀들이 나쁜 것을 보고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은폐해야 할 경우도 많다고 믿는 성인들이 흔히 있다. 그렇지만 위의 예에서처럼, 아동들에게 감추어지는 사건들과 정서들을 개방하면 아동들에게 최선의 건전한 도덕적 가르침을 줄 수 있다. 더구나 진실이 은폐되면 (아동들도 결국은

은 자신의 분노, 죄책감, 불안감 등의 정서를 자녀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小跳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신을 속인다고 느끼며 정서적 혼란 속에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 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아빠의 고통을 이해해왔어요. 수십 수백 번 아빠 대신 그 고통을 말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아빠의 표정과 태도를 볼 때마다 아빠도 제가 '아는 것'을 잘 아시는구나 싶어 참아왔던 거예요. 아빠는 제가 '아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셨고 혹시라도 그게 발설되지나 않을까 안절부절못하셨지요. 그 때부터 한 집안의 가장이자 아버지로서의 존엄마저 상실한 것 같았어요. 아빠의 고통은 제 고통이기도 하단 걸 왜 모르세요. 아빠의 딸로서 우리 집안의 고통을 없애보려고 제가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아빠는 평생 가도 모르실 거예요. 저도 평생 말하지 않을 것이고요!(p. 521)

鐵凝 소설의 주인공은 부모로부터 외면당하고 고립된 자신에게 '말을 걸어' 주고, '물어봐 주는' 상대에게 호감을 갖게 되며 사랑에 빠져든다. 《大浴女》에서 小跳가 "애, 꼬마야, 너 왜 그러고 있니?"라는 陳在의 말 한 마디에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말인 것처럼 뭔지 모를 서러움이 가슴 가득 퍼져나"며 위안을 얻는 것이나,(p. 123) 자신에게 68통의 편지를 보내며 구구절절 심정을 토로하는 아버지뻘의 方競에게 빠져든 것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에 대한 보상심리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玫瑰門》에서 眉眉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준 大旗와 叶龍北에게 구원감을 느낀 것 역시 부모와의 관계에서 채우지 못한 결핍을 대신하려는 자연스런 반응이었을 것이다.

> 야 眉眉야. 오늘은 어느 단락을 외우니? 大旗가 眉眉에게 물었다.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다는 듯이 그저 되는 대로 물어본다. (중략) 여태껏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다. 그러나 大旗만이 물어봐준 것이다. 眉眉는 大旗의 질문에 대답하고 싶었다. 비록 답하든 답하지 않든 중요하지는 않았지만. 眉眉는 그의 선택을 大旗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그 '말해줌'의 내용은 어찌되든 좋았다. (중략) 그녀는 알았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녀가 정말 완성하길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

진실을 알게 된다) 아동들은 잘못된 도덕의 내용을 받아들이게 된다." - 위의 책, pp. 225-226.

종류의 상담이었다.[92]

이처럼 鐵凝 소설에서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비해 주인공 자매의 관계는 유대가 깊으면서도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심리학자 V.G. Cicirelli는 형제자매관계는 전 생애에 거쳐 (부모나 배우자와 같은) 다른 어떤 관계보다 지속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93] 형제자매 관계는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형제자매 중 어느 한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유지되며, 동일한 환경에서 공통된 경험을 공유하는 유일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다른 어떤 관계와도 비교 불가한 영향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鐵凝의 경우에도 자매관계는 그 자신의 삶과 창작활동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데뷔작으로 중학교 시절 처음 쓴 소설 〈會飛的鐮刀〉가 바로 그녀의 여동생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며, 많은 소설에서 자매를 주축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文革 기간 중에는 부모가 노동학교에 보내지거나 하방됨으로써 아이들끼리 집에 남겨지곤 하였는데, 鐵凝 역시 스스로가 그러한 경험을 겪었으며 많은 소설 속에서 자신의 체험을 다양하게 변모시켜 그려내고 있다. J. P. Shonkoff는 폭력적인 환경에서 부모로부터의 이별 또는 유기를 겪은 아이들이 겪는 독성 스트레스는 이후 행동발달의 손상을 포함하여 인생의 전 기간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는데,[94] 鐵凝 소설에 나타나는 자매들 역시 어린 시절 겪은 고통과 스트레스의 영향을 성인이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부모가 부재하거나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형제자매 중 연장자가 부모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아동발달 및 아동심리학계에서 잘 알려진 사실로,

---

92) “哎，眉眉，今天念哪段儿？”大旗问眉眉，显出无所谓，显出就是随便问问。(…) 从来没人提出过质疑。然而大旗还是要问问。眉眉愿意回答大旗的问话，虽然回答与不回答也不重要。念哪段儿不是只等我一开口你就知道了吗？然而眉眉还是愿意把她的选择告诉给大旗。那告诉里有随随便便的无所谓，那告诉里也有难以觉察的郑重其事和郑重其事的商量。虽然那时她还不懂商量本身便是人间一个美的构成的开始，但是她知道当新的一天开始时，她最愿意完成的就是这种商量。” - 《玫瑰門》, p. 219.

93) V.G. Cicirelli, 《Sibling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 Span》, Plenum Press, 1995.

94) J. P. Shonkoff, 〈The Lifelong Effects of Early Childhood Adversity and Toxic Stress〉,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 January 2012.

《大浴女》의 小跳 역시 부모 역할을 대신하며 小帆을 극진히 보살피고, 小帆은 언니를 영웅처럼 생각하며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 이들의 우애는 어머니 章嫵가 돌아오고 나서 더욱 깊어지는데, 자매는 오랜만에 돌아온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애정을 쏟고 돌봐줄 것이라 기대했었으나, 章嫵가 小荃을 낳은 후 육아마저 딸들에게 떠맡겨버리기 때문이다. 자매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공유하며 한편으로 小荃을 공동의 적으로 여기게 된다.

시몬느 보부아르의 자서전에 따르면, 시몬 보부아르와 엘렌 보부아르 자매의 어머니 프랑소와주는 냉랭하고 무뚝뚝한 성격으로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줄 모르며 애정결핍과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고 한다. 보부아르와 엘렌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오직 서로에게 희망을 걸고 의지하였고, 보부아르는 엘렌에 대하여 "나의 공범, 내 신하, 내 창조물인 그 애 덕분에 나는 나의 자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으며, 엘렌 역시 언니를 영웅으로 섬겼다고 한다.[95] 이처럼 어린 시절 보부아르 자매는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기반으로 한 공모 관계에 있었고, 어머니라는 공동의 적으로 인해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흡사하게, 小跳 자매는 모성애가 결핍된 어머니뿐 아니라 小荃이라는 공동의 적으로 인해 더욱 굳건한 결속감과 유대감을 키워나간다.

> 小荃의 탄생 자체가 못마땅했던 小跳는 小荃을 냉대하는 대신 小帆을 끔찍이 아끼는 것으로 자신의 불만을 드러냈다. 小跳는 小帆을 사랑했고 이런 사랑은 좀처럼 깨질 수 없을 만큼 단단한 것이었다. 小帆도 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했다. (중략) 小跳는 자신과 小帆 두 자매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있으며 자신들의 하나 됨은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
> 부모님들이 멀리 葦河 농장에서 생활하는 동안 두 자매는 목숨처럼 서로를 의지했다. 사과와 갈치를 좋아하는 小帆에게 小跳는 되도록 자주 이를 사 먹이려고 애썼다. 아무리 좋아해도 매일 사 먹기에는 돈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小跳 자신은 애써 사과와 갈치를 좋아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그저 동생 小帆이 먹는 모습을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볼 뿐이었다.(pp. 208-209)

앤서니 스토는 위기 시에 우애의 감정이 증폭된다고 설명하며 "공통의 적

95) 클로딘 몽테유, 《보부아르 보부아르》, 서정미 역, 실천문학사, 2005, p. 29에서 재인용.

을 맞닥뜨리면 그 적이 홍수건 화재건 적군이건, 우리는 평소에는 결코 느낄 수 없었을 형제애로 뭉치게 된다."하였다.[96] 인간 본성에는 두 가지 상반된 경향 - 단결하려는 경향과 구분지어 분리하는 것을 고무하는 경향 - 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공동의 적 앞에선 당연히 전자가 극도로 발휘된다. 마찬가지로 《玫瑰門》의 蘇眉·蘇瑋 자매나 《永遠有多遠》의 白大省과 사촌언니, 《大浴女》의 小跳·小帆 자매를 보면 공통적으로 (조)부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기반으로 한 공모 관계에 있으며, (조)부모에서 거부당하며 받은 상처를 자매관계에서 보상받고자 하며 굳건한 유대감을 키워나가곤 한다.

그런데 오직 서로를 의지하며 더없이 애틋하던 小跳 자매는 小荃의 사고를 함께 방관한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점차 불신과 불화가 생긴다.

> 어릴 때 그녀에게는 언니인 尹小跳가 이 세상 누구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했다. 그녀는 언니를 숭배했고 사랑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가장 먼저 언니를 찾았다. 두 자매는 항상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또 세상은 알지 못하는 죄악의 비밀을 함께 갖고 있었다.(p. 349)

> 그녀는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을 뿐 아니라 언니인 小跳에게도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언니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언니를 숭배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마음 한쪽에 드리워진 걷어낼 수 없는 그림자로 인해 그녀는 더 이상 언니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수 없었다. 오히려 小帆은 언니가 더욱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기를 바랐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자신이 이 집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임을 증명하려 했다.(pp. 350-351)

위 두 인용문은 小荃의 사망 사건 전후 小帆의 변화된 심경을 나타낸다. 小荃이 맨홀에 빠지려했을 때 小帆은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려 했으나 小跳에 의해 저지당했다(혹은 저지당한 것으로 小帆은 기억한다). 그리고 이 기억은 小帆에게 잊을 수는 없지만 말로 꺼낼 수 없는 일이 된다. 小帆은 小荃을 구하려했던 자신을 '저지한' 언니가 도의에 어긋난 행동

96) 앤서니 스토, 《공격성, 인간의 재능》, 심심, 2018, p. 77.

을 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언니는 존경할 만한 상대가 되지 않으며, 부모 대신 언니를 숭배하고 신뢰했던 小帆은 정신적 숭배 대상을 잃고 언니에게 떼를 쓰거나 지적하는 일이 늘어난다.

小跳 자매는 성인이 된 이후에 내면이 성장하지 못한 채 정신적으로 미숙한 '성인아이'적 특성을 보이는데, 小帆은 小跳보다 더욱 유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다.[97] 《玫瑰門》의 蘇瑋와 《大浴女》의 小帆은 거의 비슷한 성장과정을 거치는데, 무엇보다 자신을 부모 대신 돌봐주었던 언니에 대한 공감능력이 거의 발달하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도 언니를 배려하지 못할뿐더러,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마치 아이처럼 억지를 부리고 쉽게 화를 내기도 한다. 또한 불리한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하며,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에 어긋나게 하는 이들을 가차 없이 비판한다. 蘇瑋와 小帆은 공통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거부당하며 받은 상처를 유일하게 자신이 마음을 열 수 있었던 언니에게서 보상받고자 했으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해 언니를 적대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매는 이십 년이나 지난 후에야 말다툼 중에 小荃의 죽음을 이야기하게 되지만 小帆에게는 후련함 보다는 그동안 자신이 비밀을 감추느라 억압받아온 괴로움을 언니가 살펴주지 않는다는 원망만 남았을 뿐이다. 어려서부터 언니에게 양보 받고 사랑받으면서, '착한 아이'로 남고 싶었던 小帆에게서는 나르시시즘과 함께 우울증적 증세가 드러난다.[98] 小帆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의 고통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었다. 이런 외로움을 말할 수 없다는 것, 평생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고통의

97) '성인아이(Adult Child)' 또는 '내면아이(Inner Child)'는 흔히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란 아이를 지칭하는 말로, 어린 시절에 정서가 충족되지 못하고 상처받은 결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이나 태도, 행동 등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성인아이의 정의 및 특성에 대해서는 존 C. 프리엘, 린다 D. 프리엘 공저, 《성인아이》, 글샘, 2010. 참고.

98) 프로이트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들의 자기 비하는 실상 강력한 나르시시즘과 맞닿아 있는데, "우울증은 제값의 사랑을 못 받았다는 불만이 자기 비하, 혹은 자기 징벌이라는 우회로를 거쳐 대상에 대해 복수를 가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랑스럽고 잘난 제 자신이 왜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억울함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놓고 요구하는 것"이 우울증이다. - 지그문트 프로이트, 〈슬픔과 우울증〉,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 역, 열린책들, 2004, pp. 239-266.

실체였다."(p. 412.)

鐵凝의 소설에서 자주 묘사되는 자매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아동기에 文革을 경험하면서 부모와의 분리나 가정 안팎에서 고립을 겪은 일차적 괴로움보다는 그 당시의 괴로움을 가장 친밀해야 하는 가족과도 나눌 수도 없으며 고통을 언어화할 수조차 없다는 이차적 괴로움이 더 크다는 점이다. 다수 작품에서는 이러한 자매 유형 및 갈등 상황이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 不通의 신체적 증상과 자아분열

이 절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玫瑰門》에서 재현되는 不通의 메타포라 할 수 있는 신체적 증상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庄坦의 딸꾹질이나 宝妹의 변비, 蘇瑋의 잠꼬대, 그리고 姑爸의 귀지 파기에 대한 집착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고질적 증상들은 발생한 이유도, 고칠 방법도 알 수 없으며 가족들을 노상 괴롭게 한다.

庄坦은 신체가 약하고 겁이 많으며 무능한 지식인 남성으로 모친에게조차 무시당하는데, 쉬지 않고 딸꾹질을 함으로써 자신의 소리를 낸다.[99] 문제가 있을 경우 직접 대면해서 해결을 촉구하기보다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庄坦은 부친인 庄紹儉에게 회피 성향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庄紹儉은 아내 司猗紋을 크게 다치게 한 뒤 그가 살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도망쳐버린다.

> … 그는 일생 믿고 싶은 것만 믿었고, 부정하고 싶은 것은 부정했으며, 직시하고 싶은 것만 직시하여 그가 직시하고 싶지 않은 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마치 司猗紋의 피처럼. 그는 北京으로 도망쳤다. 마치 그의 가정에 그 사실

99) 한국 소설 이청준의 《빈 방》(1979)에 등장하는 '지승호'도 庄坦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딸꾹질을 해대는데, 그 현상의 시초는 과거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이고, 이후 자신의 상황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자 딸꾹질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이청준은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이러한 증상을 지닌 주인공을 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떠맡기고.[100]

庄坦 역시 아내 宋竹西가 쥐의 배를 갈라 죽이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며, 쥐들을 살해하는 광경을 볼 때면 그저 경악하며 외면할 뿐이다. 그는 결국 가마솥에 삶아진 콩들을 새끼 쥐들로 착각해 심장마비에 걸려 죽고 만다.

庄坦과 宋竹西의 딸인 宝妹는 영아시절부터 시종일관 변비로 고생하는데, 그에게 관장제를 넣는 일은 "사활을 건 전투"나 마찬가지로, 宝妹는 통곡하며 눈물범벅이 되곤 한다. 화자는 냉정하게 말한다. "새끼손가락 굵기의 좌약을 영아의 항문에 밀어 넣는 것은 틀림없이 잔인무도한 일이긴 하지만, 영아의 항문을 위한 사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라면 그 잔인무도한 일은 불가피하다."[101] 결국 宝妹의 항문에서는 굳어진 채 쌓여있던 변 덩어리가 굴러 나온다.

또한, 小瑋는 이른바 혼자 놀기의 달인으로, 혼자 시장놀이, 병문안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즐긴다. 司猗紋의 四合院에 온 이후에는 자기 비판투쟁놀이까지 하는데, 이를 괴상하게 여긴 司猗紋이 더 이상 자기 비판투쟁을 하지 못하게 막자, 小瑋는 낮에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고 밤에는 잠이 들면 잠꼬대를 하기 시작한다. 깊게 잠든 상태에서 "開灯!(불을 켜!)" 라고 반복해서 외치고, 司猗紋이 매번 깨우고 물어도 小瑋는 아무런 꿈조차 꾸지 않았다고 답할 뿐이다.

> 이 낭랑한 소리, 과감한 울부짖음은 司猗紋에게 마치 명절날 귓가에서 돌연히 터지는 폭죽소리처럼 느껴졌다. 이 갑작스런 폭죽은 항상 司猗紋의 심경을 위축시켰다. 불을 켜고 小瑋에게 불을 켜서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고 물어도 小瑋는 司猗紋의 말을 알아듣지도 보지도 않았고, 깬 것 같지도 소리를 쳤던 것 같지도 않아보였다. (중략)

---

100) "…他一生都相信他愿意相信的，否定他愿意否定的，正视他愿意正视的于是他不愿意正视的就仿佛不存在，比如司猗纹的血。他逃离了北京就把那仿佛是不存在的事实推给了他的家庭。" - 《玫瑰門》, p. 305.

101) "一个小拇指粗细的栓塞进一个婴孩的屁股眼儿，那确是一种人间的惨无人道，但你为了对一个婴儿屁股眼儿的人道，还必得施行一点必要的惨无人道。" - 위의 책, p. 92.

"불 켜! 불 켜!" 그녀는 외쳤다. 방금 전의 외침보다 더욱 급해졌다. 마치 불을 켜지 않으면 천하에 무슨 일이라도 날 것처럼. 司猗紋은 재차 불을 키고, 재차 小瑋의 수면 상태를 관찰했으나 小瑋의 모든 낌새는 마치 "죽은 듯이" 자고 있을 뿐이었다.[102]

小瑋는 영아시절부터 부모가 농장 일을 하는 동안 방치되어 자랐을 뿐 아니라, 司猗紋의 四合院에 온 이후로는 친손주인 宝妹를 편애하는 司猗紋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 司猗紋은 小瑋의 대변 양이 많다는 이유로 밥을 많이 먹지 못하게 제지하기도 하였으며, 小瑋가 대변을 많이 본 날 이웃들을 불러 모아 구경시키며 수치감을 주기도 하였다. 공감과 보호를 받기보다는 방치와 억압 사이를 오가며 자란 小瑋에게는 늘 정서적 결핍이 있었고, 심각한 잠꼬대를 하는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玫瑰門》에서 司猗紋의 시누이인 姑爸는 미스테리한 인물이다. 姑爸가 시집간 신혼 첫날밤 신랑이 홀연히 사라져버렸으나, 그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소문으로만 짐작해볼 뿐이며 姑爸 스스로도 신랑이 도망간 이유를 영원히 추측할 수밖에 없다. 姑爸의 신랑이 원래 무례하고 평판이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나마 납득이 될 수 있겠으나, 화자에 따르면 姑爸의 신랑은 '보통 가정의 보통사람'이었고 또는 '성실한 가정의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유를 알리지 않은 채 그는 사라졌고 영원히 실종되었으며,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다.

姑爸가 갈 때는 기쁘고 비장했으나, 돌아올 때는 슬프고 처량했다. (중략) 알고 보니 신혼 그 첫날밤에 신랑은 사라졌다. 누군가는 신랑이 신혼방에 들어간 이후에 도망쳤다고도 하고, 누군가는 신랑이 손을 뻗어 신랑의 붉은 얼굴 가리개를 열어본 후에 사라졌다고도 했다. 어찌됐든 그 날 밤 신랑이 없어졌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일년, 이년, 삼년 후에도 眉眉가 姑爸를 보게 된 날 까

102) "这一声清脆、果断的呼喊，使司猗纹觉得像过年过节时在耳边突然炸裂的爆竹，这冷不丁的爆炸常把司猗纹弄得心惊胆怯。开始她给小玮拉开灯问她开灯干什么，小玮不理她也不看她；不像醒着更不像喊过。(중략) "开灯！开灯！" 她喊着，比刚才的喊声还急。好像你不开灯天下就指不定要发生什么事。 司猗纹再次拉开灯，再次观察小玮的睡眠，一切迹象都表明小玮睡得更"死"了。" - 《玫瑰門》, p. 288.

지도 그 신랑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103]

소설 속에서 姑爸는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도 그녀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거나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서도 姑爸는 庄씨 집안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의 진상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또 어떠한 이유에선지 밝히지 않는다. 姑爸는 귀이개를 가지고 다니며 타인의 귀지를 파서 병에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참으로 메스껍게 여겨지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가족에게서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姑爸는 다른 사람들의 귀지를 파는 것으로 그의 소통 욕구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지만 姑爸는 다른 이들에게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며 시집간 첫날 소박맞고 친정으로 돌아온 천덕꾸러기일 뿐이다.[104] 蘇眉가 眉眉에게 "넌 어떻게 해야 너 스스로 소통할 수 있겠니? 마치 姑爸가 귓구멍에 대해 가지는 그 정도로 열렬히 애를 쓰며 말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미 蘇眉는 姑爸의 소통 욕구를 간파하고 있기도 하다.(p. 39) 姑爸는 자신을 기피하던 羅大媽가 자고 있는 틈을 타 그의 귀지를 파내는데 성공하나, 이 행동을 공격으로 받아들인 羅大媽의 눈 밖에 나게 되어 결국 보복을 당하게 된다. 姑爸는 羅大媽의 아들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하고 미치광이가 되어 그녀의 애완묘 大黃의 사체를 먹다가 질식해서 죽고 만다. 大黃을 수백 가지의 애칭으로 부르며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던 姑爸가 결국 입이 막혀 '질식'하고 만다는 사실 또한 의미심장하다.

딸꾹질, 잠꼬대, 귀지파기 등이 결국 억압된 발화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타인'과의 소통에 실패하여 발생한다고 본다면, 蘇眉는 '과거의 자신'인 眉眉와의 소통을 위한 자아분열의 증상을 드러낸다. 《玫瑰門》의 눈에 띄는 서술

---

103) "姑爸走得欢欣悲壮，回来得忧伤凄清。(중략) 原来新婚当天的夜里新郎就不见了。有人说新郎是在人洞房之后逃走的，有人说新郎伸手揭开了新娘的红盖头之后就不见了。总之，当晚没了新郎。之后一天，两天，三天，一年，两年，三年……直到眉眉看见姑爸的时候，那新郎再也没有出现过。" - 《玫瑰門》, p. 43.

104) 姑爸는 소설 속에서 유일하게 본명이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다. 그녀에게 원래 이름은 모두에게 잊혀진 지 오래이며, 姑爸의 요구에 따라 가족과 이웃들은 모두 그를 '姑爸'라고 부른다.

적 특징 중 하나는, 蘇眉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타인을 만나듯이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만나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다. 소설은 기본적으로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되지만 일부 장이 끝나는 곳에서는 蘇眉와 眉眉가 서로를 "너(你)"라고 지칭하며 주고받는 대화가 추가된다. 대화의 원문에서 사용된 단어를 살펴보면 '底細(속마음)', '溝通(소통)', '隱匿(숨김)'과 같은 단어들이 반복해서 출현하고 있다. 蘇眉는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해왔고, 그로 인해 자아 분열을 일으키면서까지 어린 시절의 자신과 대화하게 만든 것이다. 그 대화는 유쾌한 것만은 아니며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다. 자기 인성의 악한 면까지 대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蘇眉는 자신은 진작부터 眉眉의 악랄함을 알고 있었다 하고, 眉眉는 蘇眉가 眉眉보다 교활하다 답한다. 이 같은 불편한 진실에도 불구하고 소설에 걸쳐 蘇眉와 眉眉의 대화는 계속 되기에 결국엔 자신과의 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자기 자신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타인과 소통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과의 소통은, 鐵凝 소설 속 인물들이 가지는 소통에 대한 욕망 가운데 본질적인 것이며 정신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불가결하다.

叶龍北는 반혁명분자로 몰려 모진 고문을 당하고 司猗紋의 四合院으로 들어온 이후 사람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고 오직 닭들하고만 말한다. 姑爸가 고양이 大黃과만 대화를 나누다 죽은 뒤, 그 姑爸가 살던 서쪽 방에 들어온 叶龍北 역시 닭들하고만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다 四合院 내 사람들이 지나치게 부당한 언행을 할 때면 유일하게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蘇眉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맞다", "된다"라고만 외쳐야 하던 시대, 유일하게 "틀리다", "안 된다"라고 외치던 叶龍北에게 신선한 충격을 받고, 자신은 열세 살이 될 때까지 온 세상이 다 한 목소리로만 외쳐야 하는 세계에 살아왔음을 깨닫는다.[105] 叶龍北는 닭에게도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냐는 眉眉의 질문에 닭의 작은 귀를 보여주며, 닭에게는 귀가 숨겨져 있을 뿐이지, 영민하지 않은 것은 아님을 기억하라 한다. 화자는 사실상 叶龍北가 眉眉와 대화를

105) "她猜想着有一天当你说"是"时有人却说"不是"，当你说"可以"时有人却说"不可以"时世界该是什么样子。现在叶龙北和他那鸡的融洽，就是对这院子的一种不融洽，就是他们共同对这院子整日发表着"不是""不行"的声明。" - 위의 책, p. 228.

나눈다고 하기보다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 설명한다. 叶龍北는 결국 자아를 분열해서 자기 자신과 소통할 뿐이다.[106]

이처럼 鐵凝 소설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타인과의 대화에 좌절을 겪고 자신과의 대화에 몰두한다. 앙투안 베르고트에 따르면 개인의 정신병리적 현상들은 사회의 역사·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107] 蘇眉 등에게서 나타나는 정신병리적 현상은 文革 시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감이 좌절되고 억압되면서 내면 깊숙이 상처와 불안이 쌓인 인물들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06) "叶龙北的讲也是一种象征，那实在是自己讲给自己的灵魂听。南屋那个手上常常裂着小口子的正呼吸着宇宙的小女孩，仿佛就是他自己那肉眼可见的充盈着骨血的灵魂。" - 위의 책, p. 232.

107) "프로이트가 정신과 임상체험이나 문화인류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의 해석을 발달시켜 나갈수록, 그는 한 사람의 정신병리와 인류 전체의 문화사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 개인의 정신병리는 인류 전체의 장애가 그를 통해서 표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앙투안 베르고트, 《죄의식과 욕망 - 강박신경증과 히스테리의 근원》, 학지사, 2009, pp. 24-25.

# 제4장 트라우마에 대한 성년기의 합리화와 현실 대응

이 장에서는 소설의 외화 또는 결말에 나타나는 공통된 패턴에 주목하여, 성년이 된 주인공이 과거사를 재인식하고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108]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소설의 내화에서는 문혁시기 아동기를 보낸 주인공이 경험한 잔혹 행위들과 가정 내 억압된 소통으로 인한 고통이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소설의 외화 또는 후반부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현실은 이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년이 된 주인공은 (조)부모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않았지만 병들고 초라해진 그들에게 점차 연민을 느끼며 포용하게 되고, 고통스럽던 자신의 아동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며,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 역시 합리화하며 지난 일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태도는 주인공이 아동기에 겪은 트라우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으로 볼 때,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09] 인물들의 구체적인 행동들은 방어기제의 여러 유형 가운데 '억압', '부인(否認)', '동일시(同一視)', '합리화' 등으로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여러 작품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합리화'의 경향이 잘 나타나고 있다.[110]

---

108) 鐵凝 소설의 외화에서는 공통적으로 여성 주인공들의 이십대부터 사십대 초반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성인기 중 20-40세 시기를 가리키는 '성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성인기는 크게 3단계(20-40세까지의 성년기, 40-60세까지의 중년기, 60세 이상의 노년기)로 구분된다.

109) 방어기제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처음 이론화한 이래 많은 연구자들이 그 개념을 발전시켜 왔으며,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여,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 의식이나 행위"를 가리킨다.(네이버 두산백과 '방어기제(防禦機制)' 용어 설명 참고.) Arthur J. Clark는 방어기제의 개념을 "자동적이고 미분화된 반응을 통하여, 고통스러운 감정과 갈등을 줄이려는 무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왜곡"이라고 정리한다.(Arthur J. Clark,《방어기제를 다루는 상담기법》, 김영애 외 역,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2005, p. 16.)

110) 방어기제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안나 프로이트는 방어기제를 "퇴행, 억압, 반동 형성, 격리, 취소, 투사, 내사, 자기 향하기, 역전, 승화"로 소개하였고(안나 프로이트,《자아와 방어기제》, 김건종 역, 열린책들, 2015, p. 63), Arthur J. Clark는 "부인, 전치, 동일시, 소외, 투사, 합리화, 반동 형성, 퇴행, 억압, 취소"로 분류하여 각 사례를 고찰하였다. (Arthur J. Clark, 《방어기제를 다루는 상담기법》, 김영애 외 역,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2005) 본고에서는

주요 인물들은 가족 또는 자신이 저지른 지난날의 과오를 정당화하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치부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다스리고 위안을 얻으려 하는데, 이러한 양상을 각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소설의 중반부에 이르기까지 묵직하게 드러났던, 역사적·개인적 과오에 대한 토로 의지가 소설의 후반으로 갈수록 약화되고 주인공 역시 '默認'에 가담하는 형태로 소설이 끝나게 됨을 고찰하면서, 작가가 이러한 창작을 하게 된 동기와 사회적 맥락은 무엇일지 여러 각도에서 유추해보고자 한다.

## 제1절 부모에 대한 容認과 자기 방어

《玫瑰門》에서 蘇眉는 열네 살의 나이에 동생 蘇瑋를 데리고, 자신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억압한 司猗紋으로부터 극적으로 탈출하였고,[111] 이후 십여 년 간 司猗紋을 찾아가지도, 자매끼리 司猗紋에 대해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고자 무의식적으로 '억압'이란 방어기제를 사용하는데, 蘇眉 자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112]

> 그녀들은 기어이 響勺胡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고, 한번은 響勺胡同에 가봐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말하기에 이르렀다.
> "언니는 가고 싶어?" 蘇瑋가 물었다.

---

Arthur J. Clark의 저서를 주로 참고하였다. Clark에 따르면, '합리화'는 여러 문헌에서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방어기제 중 하나로 Ernest Jones에 의해 처음으로 개념화되었고, 사람들이 '그럴듯한 합리성의 연결 고리'를 통해 수용될 수 없는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같은 책, p. 11, pp. 161-182 참고.)

111) 蘇眉 자매는 사람들이 다 잠든 새벽에 짐을 챙겨 도망친다. 무일푼으로 다짜고짜 버스에 올라타 구걸하여 기차역까지 갔고, 기차역에서는 고향까지 가는 기차표를 살 수 없어 배회하다가 叶龍北를 만나 차표를 얻었다.

112) "사람들은 고통스런 사건들에 부딪혔을 때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직면할 수 있을 때까지 모욕적 감정을 의식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정서적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반응이다." - Arthur J. Clark 저, 《방어기제를 다루는 상담기법》, 김영애 외 역, 김영애 가족치료연구소, 2005, p. 229.

"천 년이 지나도 가기 싫어."
"나는 만 년이야."
"만약에 한 번 가본다면 어떨 것 같아?"
"언니 정말 가고 싶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야?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지."
"그렇다면야 괜찮지만."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할머니한테 널 보게 하는 것도. 할머니가 지금의 나를 보는 눈빛을 넌 모르지."
"언니 가본 적 있어?" 蘇瑋가 깜짝 놀랐다.
"나 가본 적 있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대체 왜 '천 년이 지나도'라고 큰소리 친 거야? 당최 언니가 뭔 일을 하는지 누가 알겠어."113)

위 대화에서 보듯이 蘇眉・蘇瑋 자매가 響勺胡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蘇瑋는 만 년이 지나도 가기 싫다며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蘇眉는 響勺胡同에 이미 다녀왔으면서도 가보기 싫다는 모순적인 발언을 한다. 蘇瑋는 언니가 자신에게 미리 언질도 없이 響勺胡同에 가서 할머니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듣고 아연실색하면서 언니를 좀처럼 이해할 수 없어 한다. 놀라운 점은 蘇眉 스스로도 자신이 왜 혼자 다녀오게 되었고, 왜 蘇瑋에게 "천 년이 지나도"라고 말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이다. 蘇眉는 司猗紋에 대해 '천년이 지나도'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미움과 원망을 蘇瑋와 공유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소녀시절을 보낸 四合院 및 司猗紋의 근황에 대한 궁

113) 她们必然要谈论响勺胡同的，有一次甚至说到该不该去响勺胡同看看。
"你想去？"苏玮问。
"一千年也不想。"
"我是一万年。"
"要是去一趟又怎么样？"
"你是真想去还是说着玩儿？"
"说说而已。"
"那倒不坏。"
"倒也不坏。叫婆婆看看你，你可不知道她现在看我的那份眼神儿。"
"你去过了？"苏玮惊异起来。
"我是去过了，也不知为什么……"
"你穷喊什么一千年，谁知你是怎么回事。" - 《玫瑰門》, pp. 401-402.

금증과 향수를 떨치지 못했다. 蘇眉에게 있어 四合院에서 보낸 약 오륙년의 소녀시절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그 시절 많은 고통 속에서도 즐거움 또한 있었음을 외면하는 일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蘇眉는 四合院에서 이기적이고 집요한 司猗紋의 분부에 따라 고된 집안일과 사촌동생 돌보기, 각종 심부름 등에 시달리는 한편, 밤에는 하루도 편안하게 잠 잔 적이 없을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四合院 정원의 대추나무와 교감하며 상상력을 키웠고, 아름답고 주관이 뚜렷한 외숙모 宋竹西를 선망하였으며, 大旗와 대화를 나눌 때면 설렘을 느꼈고, 叶龍北로 인해 호기심을 키우고 고정관념을 깨게 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면, 蘇眉에게 있어 四合院에서의 시절은 증오만큼이나 그리움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반면 四合院에서 상대적으로 어린 시절 짧은 기간을 보낸 蘇瑋는 미국인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떠나는 날까지도 결코 響勺胡同을 찾아가지도, 司猗紋을 만나지도 않는다. 대신 공항까지 배웅해준 蘇眉에게 편지와 돈을 남겨, 할머니에게 갈 때 영양제라도 사다주라고 부탁하는 것으로써 할머니에 대한 미움의 정도가 다소나마 희석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소설의 과거 이야기는 司猗紋이 겪었던 고난과 함께 文革시기에 司猗紋이 생존을 위하여 행한 비열하고 잔혹한 행위들, 蘇眉 자매를 정신적으로 핍박했던 행위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蘇眉가 십여 년 후 어떻게 갑자기 잔혹했던 과거를 대면하고자 용기를 냈는지, 그에 대한 심리적 동기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는다. 司猗紋 역시 손녀들에게 그 어떤 화해나 교류를 청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蘇眉는 어느 날 문득 과거를 대면할 용기를 갖게 된 것이다. 蘇眉가 司猗紋의 四合院을 찾아가 재회했을 때 司猗紋은 눈물을 흘리지만 蘇眉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밥을 먹고 가라는 할머니의 제의도 냉정하게 뿌리칠 수 있을 정도로 단호함을 보여준다. 재회 이후 司猗紋은 蘇眉에게 점차 집착하게 되고, 蘇眉의 작업실로 전화를 걸거나 蘇眉가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에 나타나 훼방을 놓는 등 손녀와 관계를 재구축하고자 하지만 蘇眉에게 할머니는 성가신 존재가 되었을 뿐이다.

司猗紋이 하반신 마비로 인해 병상에 눕게 된 지 오년이 지나 蘇眉는 다시 四合院을 찾는데, 司猗紋이 통풍을 위해 발가벗겨진 채 침대에서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듯한 자세로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된다. 蘇眉가 외숙

모 宋竹西와 大旗의 성관계 장면을 보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친다.'라고 생각하며 四合院에서 도망쳤을 때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蘇眉는 더 이상 열네 살의 蘇眉가 아니었다. 그녀는 도망치지도 않았으며 도망칠 필요도 없었고, 꼿꼿하게 司猗紋의 침대 앞에 서 있었다."[114] 司猗紋은 蘇眉가 들어온 것을 알고 어떻게든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만,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그에게는 역부족인 일이었고, 결국 그는 눈물을 흘리며 비통함을 드러내고 만다.

蘇眉는 초라해진 司猗紋의 모습을 보면서 양가적 감정을 느끼는데, 어린 시절 자신과 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과 상처를 안겨주었던 그가 결국 순리대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씁쓸함과 함께, 병들고 무력해진 존재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되면서 부정적 감정들은 그리움이나 향수로 포섭되고 만다. 蘇眉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음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대목은, 바로 蘇眉가 司猗紋을 안락사 시키기 전 司猗紋의 이마에 난 상처에 입을 맞추는 대목이다. 蘇眉는 어느 누구도 이 상흔에 입맞춰본 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司猗紋을 안락사 시킨 후 蘇眉는 宋竹西와 대화하며 할머니를 사랑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넌 그녀를 사랑했니?" 宋竹西가 蘇眉에게 물었다.
"사랑했어요." 蘇眉가 답했다.
"당신은 그녀를 사랑했나요?" 蘇眉가 宋竹西에게 물었다.
"사랑하지 않았어." 宋竹西가 답했다.
"그러니 내가 당신보다 잔인해요." 蘇眉가 말했다.
"그러니 나는 너보다 인내심이 있지. 그러나 난 조금의 위선도 없었어."
"당신 말은, 나는 위선이 있단 건가요?"
"아냐. 우리가 만난 그 날부터 난 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 평생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내 말은 네가 그녀를 사랑했고 너의 손을 통해서 그녀를 미소 짓게 했다는 거지.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나의 손을 사용해서 그의 생명을 고통 속에서 연장했어."
"당신은 이런 잔인한 연장을 보길 원했던 건가요?"

114) "但苏眉毕竟不再是十四岁的苏眉，她没有跑出去她也不该跑出去，她镇定地站在司猗纹的床前，司猗纹正侧身向里。" - 위의 책, p. 471.

"가령 네가 내가 그녀에게 생명을 연장해준 것을 잔인하다고 말한다면, 내가 원한 거겠지."115)

蘇眉의 입맞춤뿐 아니라 宋竹西와의 대화 내용을 보면, 蘇眉의 태도가 지나치게 급속히 전환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蘇眉는 어린 시절 司猗紋으로부터 정서적 핍박과 학대를 받았고 그의 각종 비열한 행동들을 목격하며 진저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司猗紋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그를 고통과 치욕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었다. 소설 전반에 걸쳐 지배적으로 묘사되었던 司猗紋의 악질적 행위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나 복수도 없이 종국엔 모든 증오와 원한이 사그라진 것이다. 죽은 司猗紋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있었다는 묘사에서 司猗紋 역시 蘇眉의 행동을 만족스러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사람은 공식적인 화해나 사과 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암묵적으로 포용한다.

蘇眉의 이 같은 행동은 할머니에게서 받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열네 살의 蘇眉에게 司猗紋은 자신의 소녀 시절 모습과 꼭 닮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蘇眉는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 할머니와 자신이 꼭 빼닮았음을 부정할 수 없었으며, 司猗紋을 끝내 거부하지 못하고 용서하면서 자신의 근본을 긍정하고 포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蘇眉는 司猗紋과의 동일시를 통해 그를 받아들이고 과거의 불안감을 극복하는 한편, 司猗紋이 누구에게도 사랑받아보지 못했고, 핍박과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상기하며 그의 가혹했던 행동들을 합리화한 것이다. 司猗紋의 이마에 난 상처는 남

115) "你爱她吗？"竹西问苏眉。
"我爱。"苏眉答。
"你爱她吗？"苏眉问竹西。
"不爱。"竹西答。
"所以我比你残忍。"苏眉说。
"所以我比你有耐性。可我没有一丝一毫虚伪。"
"你是说我有……虚伪？"
"不是。从我们见面那天起我就没有这样想过你。今生也不会这么想。我是说你爱她，你才用你的手还给她以微笑。我不爱她，我才用我的手使她的生命在疼痛中延续。"
"你愿意看到这种残忍的延续？"
"假如你认为我给予她生命的延续就是残忍，那么我愿意看到。" - 위의 책, pp. 478-479.

편의 거친 폭력 때문으로, 당시 司猗紋은 목숨을 위협받는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었다. 蘇眉는 할머니의 그 상처를 대면하며 일종의 면책권을 주고, 그동안 할머니를 증오하면서 느껴왔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것이다.

《大浴女》의 경우에도 외화의 결말처리에 있어서 《玫瑰門》과 매우 흡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小跳 또한 부모에게서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음에도,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아량을 보이며, 부모 역시 애정이 결핍되고 상처받은 인물들이라는 점을 깨닫고 동정심과 연민으로 그들을 감싸 안게 된다.

小跳는 文革기간 중 章嫵의 불륜으로 인한 小荃의 출생 및 그 사건이 초래한 가족들 간의 불화로 인해 강한 분노에 사로잡혔었고, 성장 후에 章嫵와 표면적으로 큰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편안한 모녀관계를 갖지 못했다. 더욱이 중년의 나이에 이르러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싶다는 욕망으로 성형수술을 일삼는 章嫵를 小跳는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어머니에게 '괴물같다'는 폭언을 퍼붓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백화점에서 곤경에 처한 章嫵를 목격하고는 小跳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긴다.

> … 그녀는 지금뿐 아니라 평생을 자기변명이나 해명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 章嫵는 그렇게 크리스찬 디올 매장 카운터 앞에서 지독한 망신을 당하면서 외롭게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등이 눈에 띄게 굽어 있었고 왼쪽 어깨는 오른쪽보다 약간 쳐져 있었다. 章嫵의 이러한 모습 역시 그녀가 열세에 처해 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이런 그녀가 바로 尹小跳의 어머니였다. 尹小跳는 章嫵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대면한 적이 없었다. 순간 그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한 보호본능을 느꼈다. 그랬다. 尹小跳는 이날 이 순간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보살피거나 보호한 적이 없었다. 애원과 원망, 거리감과 무시가 이들 모녀 관계의 전부였다. 지난날 章嫵가 가정을 버렸던 것에 대한 원망과 질책이 어머니에 대한 尹小跳의 의식 전부를 관통하고 있었고, 이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를 무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로 작용했다. 章嫵는 딸의 무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지금, 백화점 이 계산대 앞에서 위세 부리는 젊은 여자 두 명이 尹小跳의 내면 깊은 곳 모성이란 감정을 일깨웠다. 그녀는 이것이 틀림없이 일종의 모성이라는 감정이라고 단정했다. 딸은 모성이라는 감정을

얻어야만 자기 엄마를 소중히 대하고 사랑으로 돌볼 가망이 생긴다.(p. 572)

小跳는 章嫵와 대치하는 두 여자에게 항의하며 章嫵를 '구출'해내는데, 이에 대하여 최은정은 '엄마답지 않은 엄마'인 章嫵가 초래한 가족의 위기는 다시 '엄마다운 엄마'에 기탁할 수밖에 없기에 鐵凝이 가족 화해의 동력을 小跳에게서 찾는다고 분석하였다.[116] 또한 최은정은 이 장면이 小跳가 엄마의 딸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마침내 인정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小跳는 부모를 이해함으로써 파편화된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는 교량이 된다고 분석한다. 소설의 화자가 직접 "모성이란 감정"을 언급했듯이,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장면에서 章嫵를 보호하는 小跳의 행동을 모성본능의 발현으로 보는 최은정의 해석은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소설 전반에서 보이는 小跳의 성격을 바탕으로 미루어봤을 때, 자존심이 센 小跳는 章嫵가 "열세에 처해 있음을" 발견하고 곧 자신의 열세와 동일시하여 반격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어머니의 초라함은 곧 그녀의 혈육인 자신의 초라함으로 느껴져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福安시의 한 아동출판사 부사장이 된 小跳는 자신의 커리어나 외모에 대하여 충분한 우월감을 지니고 있다. 화자의 묘사에 따르면, 小跳는 회사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성과를 쌓아가며 동료들에게도 인정받을 뿐 아니라 " 자신이 마흔에 가까운 여자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때때로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없는 물기 배인 몽롱함이 서려 있고 그녀의 몸매에는 결혼한 적도, 아이를 낳은 적도 없는 여성의 성숙한 생기와 함께 단정하면서도 날렵한 분위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p. 19.) 小跳는 가정 내에서는 어머니를 무시해왔지만 가정 밖에서 어머니와 타자가 대립하는 것을 보는 순간 어머니에 대한 모욕을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며 분노에 휩싸였을 것이다.

蘇眉나 小跳가 초라해진 司猗紋, 章嫵를 보며 느끼는 감정들은 한 인간에 대한 모성본능뿐 아니라 자신의 근원인 부모를 부정하고 싶지 않은 무의식적 욕구 및 '부모와 묶여있는 나'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향한 방어기제가 드

116) 최은정, 〈중국 신시기 여성소설에 나타난 가족 담론의 일면 -티에닝(鐵凝)의 《목욕하는 여인들(大浴女)》를 중심으로-〉, 《比較文化研究》, 2014.

러난 것이기도 하다. 백화점 사건 이후 尹小跳는 집에서 尹亦尋과 章嫵가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을 거두고 그들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 尹小跳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尹亦尋의 질책에서 그녀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다. 때문에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굳이 심판관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를 사랑했다. 한평생을 갈등과 다툼 속에 살아온 이 남녀를 그녀는 오늘만큼 사랑한 적이 없었다. 삶은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앗아갔고 그녀 또한 그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 尹小跳는 이제야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 두 분이 그동안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했는지를 尹小跳는 오늘에야 가슴을 칠 정도로 깊이 깨닫게 된 것이다. 때문에 이날 이후로 尹小跳는 두 사람에게 자신을 이해해달라는 요구를 일절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넓은 가슴으로 두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p. 586)

蘇眉나 小跳가 보이는 관용은 그들의 현재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상 미워했던 가족마저도 포용할 수 있는 자신감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러한 자신감은 다음 절에서 살펴볼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안정된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 蘇眉의 동생 蘇瑋나 小跳의 동생 小帆은 언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환경에 처해 있으며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 제2절 성공의 밑거름으로서의 과거 수용

鐵凝 소설의 여성인물들은 아동기에 부모의 상실이나 가족과의 단절, 정서적 억압 등을 겪었지만, 그러한 과거를 딛고 《玫瑰門》의 蘇眉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화가가 되어있으며, 《午后懸崖》의 韓桂心은 부동산재벌의 아내로 남편의 사업을 내조하고, 《大浴女》의 小跳는 삼십대 후반의 나이에 한 아동출판사의 부사장이 되었다.

《玫瑰門》의 제13장에서 蘇眉는 십여 년 만에 할머니의 四合院을 방문한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던 蘇眉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소녀

시절 그녀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대추나무였다.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지킨 대추나무를 발견하고는 蘇眉는 '자신은 대추나무에게 냉담했지만, 대추나무는 그녀에게 충성을 다하며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四合院에 올 때 품었던 악의를 자기도 모르게 누그러뜨린다. 이러한 서술은 사실상 蘇眉가 화가가 될 수 있게 영감을 쌓은 곳이, 다름 아니라 외가 四合院의 정원이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어, 이십대 중반의 蘇眉와 칠십대 중반이 된 司猗紋이 재회하는 장면의 묘사는 소설의 제2장에서 다섯 살의 蘇眉가 쉰다섯 살의 司猗紋을 만났을 때와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당시 蘇眉는 司猗紋의 기품과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으나 司猗紋은 蘇眉가 말랐다고 지적하였고 蘇眉는 그러한 할머니에 대해 거부감을 느꼈다. 그러나 '현재'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로 바뀌었는데, 司猗紋은 성년이 된 蘇眉의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찬탄을 금할 수가 없으며, 자신의 청춘시절에 비해서 蘇眉의 청춘시절은 온전히 그녀 자신에게 속해있다고 생각한다.

司猗紋과 재회 이후 어느 날 蘇眉는 우연히 석간신문을 본다가 한 가정의 조기 교육자에 대한 인터뷰를 발견하고, 그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다름 아닌 司猗紋임을 알게 된다. 司猗紋은 청년 여성화가를 길러낸 자신의 조기교육 경험에 대해 인터뷰하였는데, 이 신문을 읽으면서 蘇眉는 그제야 자신의 예술 계몽가가 실은 할머니였음을 깨닫게 된다.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蘇眉는 자신이 성공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던 토대에 司猗紋으로부터 받은 억압과 통제, 그로 인한 욕망의 억눌림에서 분출된 감수성이 있었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다. 한 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외조모를 넘어서는 데는, 결국 외조모가 준 고통과 시련이 밑받침되었다는 것을 蘇眉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午后懸崖》의 韓桂心은 매우 부유해 보이는 모습으로 화자 앞에 나타난다. 소설의 화자이자 유명작가인 '나'의 묘사에 따르면, 韓桂心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손톱은 정교하게 잘 다듬어져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다. 또한 손목에는 격조 높아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고, 손의 약지에는 백금 다이아몬드 반지를 꼈는데 다이아몬드 알 크기는 콩처럼 크고 날카로운 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화자가 韓桂心의 나이를 이십대인지 사십대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는 젊고 품격 있는 미모와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韓桂心이 원래부터 그렇게 부유했던 것은 아니었다. 태어나서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열등감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유아기엔 친구를 죽게 만들고, 文革시기 시골로 하방되어 혹독한 추위의 고통을 겪고 자랐으며, 그녀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해서 통조림 공장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났다. 키가 170센티미터가 넘는 韓桂心의 비해 그의 남편은 키가 160센티미터에 불과하였지만, 韓桂心은 자신 보다 키가 작은 남편에게 편안한 매력을 느껴 그와 교제하고 결혼에 이른다. 韓桂心의 남편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아 몰래 보관하던 진귀한 보석 장신구들을 - 그것은 文革 기간 중 훔친 것들로, 오메가 금시계 하나만 해도 십이만위안이 넘는다고 한다. - 80년대 개혁개방 시대 사업을 하면서 뇌물로 활용하여 승승장구하고 부동산업자로 자리를 굳혀 막대한 부를 축적한다.

韓桂心은 결혼한 지 십 수 년 동안 남편의 부와 권력을 누려오면서, 남편과 그의 부친이 보석을 훔쳤던 과거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뿐더러 해가 갈수록 남편에게 더 많은 애착을 쏟아 붓는다. 과거 남편 父子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였음은 자명하나, 그러한 비도덕적 행위가 현재 韓桂心 부부의 윤택한 삶의 발판이 되어준 것이기에 새삼스럽게 비난할 수 없을 뿐더러, 편부모가정에서 태어나 가난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던 韓桂心은 현재의 풍족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남편이 文革시기 저지른 과오들은 암묵적으로 용인할 수밖에 없다.

《大浴女》의 小跳 역시 꽤 넉넉한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소설 속 여러 장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福安시의 아동출판사 부사장이라는 직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경제적으로 꽤 여유로운 커리어우먼으로, 몇 명의 남성과의 연애 실패 이후에도 회사업무에 에너지를 쏟으며 사회생활을 충실히 해나간다. 미국 출장 중 동생 小帆이 있는 시카고로 날아가 개인 일정을 보내는 동안 시카고의 고급백화점인 “마샬필드 백화점에 들러” 트렌치코트와 가죽 가방 등 가족들의 선물을 챙기는 모습이나(p. 403), 평상시에도 “우울을 털어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 쇼핑을 나서 명품상가를 둘러보는 습관 등은 그녀의 경제적 여유로움을 가늠하게 해준다.(p. 566)

반면 《玫瑰門》의 蘇瑋와 《大浴女》의 小帆으로 대변되는 ‘脫가족’, ‘脫

중국'의 인물이 겪는 현실은 매우 냉혹하며, 그들은 중국을 떠나서 안주할 수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도 없고 중국을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재현된다. 두 작품에서 蘇瑋와 小帆은 미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중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한다. 《玫瑰門》에서는 소설 도입부에 蘇瑋 부부가 北京의 호텔에서 신혼생활을 보내다 미국으로 떠나기까지의 여정이 그려진 후, 후반부에서야 蘇瑋가 蘇眉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그녀의 미국생활이 나타난다. 蘇瑋는 미국에서 "대중광고"를 전공한다고 하더니, 그 다음엔 "비교문학"으로 바꾸었다 하고, 다시 "국제무역"이라고 하더니, 또 다시 "호텔관리"라고 소식을 전한다.[117] 이는 蘇瑋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나타내는 한편, 미국에서 좀처럼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大浴女》에서는 小帆의 미국생활이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되는데, 小帆은 사랑 표현에 적극적인 데이비드와 결혼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되지만 데이비드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보다 열 살이나 많은 독일 여자와 사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사이였고 데이비드는 결혼한 후에도 이 독일 여자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던 것이다."(p. 355) 小帆은 남편과 강도 높은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속마음을 나눌 사람 하나 없는 미국에서 정체성의 부재를 실감하고,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남편과의 불화에 대해 차마 알리지 못한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데이비드가 자신에게 불성실할수록 小帆은 小跳에게 보내는 편지에 '우린 서로를 죽도록 사랑해'라고 쓰는 횟수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녀는 인생의 승리자여야 했고, 자신이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받아야 했기 때문이다."(p. 356) 小帆이 가족들에게 전하는 자신의 실상은 태반이 거짓말이며, 小跳는 小帆이 미국에서 "가정이 있고 MBA까지 취득했으며 해외투자회사에서 근무"한다고 알고 있지만, "小帆의 눈가엔 서른도 안 된 나이에 자잘한 주름이 잡혀 있"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 있다.(p. 362) 사실 데이비드는 小帆의 대학원 진학을 반대했었고 이에 기분이 상한 小帆은 남편의 경제적 도움 없이 공부를 하고자 보험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식당에서도 일을 해야 했던 것이다.

小帆의 미국생활의 어려움은, 그녀가 5년 만에 중국으로 돌아와서야 제대

117) 《玫瑰門》, p. 393.

로 잠다운 잠을 자보게 되었다는 설명에서도 암시되는데, 그러면서도 小帆은 미국과 중국의 생활양상을 비교하며 중국에 대한 경멸감과 미국에 대한 우월감을 뽐내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데이비드와 이혼한 小帆은 또 다른 미국인이자, 小跳와 교제했던 마이클과 장래를 약속한다. 小帆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몸은 미국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중국에 있는 언니 小跳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감시하고 참견하며, 언니와 교제했던 남성들과 관계를 맺으려 한다는 것이다. 方競이나 陳在에게 유혹을 시도하였고, 小跳 몰래 마이클에게 연락해서 사귀게 된 후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다. 小帆은 마이클과의 행복을 빌어주는 언니에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중국에 가게 되면 언니의 더블침대를 쓰겠다고 당당히 요구하면서 마이클과는 이제 떨어져 잘 수 없는 사이가 됐다고 덧붙이기까지 한다. 이러한 小帆의 과시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깃들어 있으며, 파국했던 데이비드와의 관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복선이 깔려 있다. 小跳가 方競을 보고 '정서적으로 불안할수록 과장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게 되고 자랑이 늘수록 정서적인 불안은 더 커지는 거야.'(p. 562)라고 한 생각은 小帆에게도 잘 적용되는 셈이다.

이처럼 蘇瑋와 小帆은 중국을 떠나서도 중국에 대한 애착을 끊어낼 수 없고, 가족을 미워하면서도 가족 없이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며 오히려 더욱 집착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미국에서 불안정한 생활로 인해 심사가 뒤틀리고 거짓말을 일삼는 등 부정적 면모를 보여주는 그들에 비하여, 蘇眉와 尹小跳는 중국에서 경제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보여준다. 나날이 발전하는 중국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여유가 바탕이 되어, 어두운 과거사에 대해서도 보다 수용적인 자세로 돌아서게 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화가 蘇眉의 예술적 감수성은 文革시기 부모와 떨어져 외가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길러졌으며, 아동기의 시련들은 무궁한 창작소재와 영감의 보고가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작가 鐵凝 역시 文革 시기 부모와 떨어져 외가에서 자라며 목격하고 경험한 일들을 창작의 소재로서 지속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와 주인공에게 있어서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성과를 있게 한 바탕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 제3절 진실 규명의 포기와 默認 가담

이 절에서는 鐵凝 소설 속에서 文革시기 가정 안팎에서 발생했던 불편한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등장인물들이 결국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하고자 한다. 鐵凝의 소설은 자주 개인의 과오와 인류의 과오를 오가며 그것의 분리불가능성을 묘파한다. 《玫瑰門》에서 蘇眉가 眉眉에게 "이것은 너의 과오가 아니라 인류의 과오일 것이다." 라고 말한바 있듯이(p. 103), 《玫瑰門》을 비롯하여 文革시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에서는 개인 또는 가정의 은폐된 과오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그것이 文革의 과오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주요 인물들이 아동기에 직접 가담한 타인의 살해 또는 타인에 대한 가해의 경험을 이삼십년이 지나 성인이 된 후 어떻게 수습하고 대응하는지, 또한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습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文革 발생 후 이삼십년이 지나 그 시대를 인식하는 중국인들의 관점 및 감정과 상통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김창규는 〈문화대혁명, 그 기억과 망각〉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게 있어서 문혁은 가급적이면 빨리 그리고 영원히 지우고 싶은 기억이지만, 망각은 모든 고통을 제거해주지 못하며 文革의 지속적인 기억과 규명, 되물음이 필요하다고 논한다.[118]

> 부정적인 과거는 단지 단발적인 반성이나 응징으로만 처리될 문제는 아니며 끊임없이 새롭게 규명되고 또 되물음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기억의 과정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문화적 차원이다. 상징(물), 도상, 묘비, 사원, 기념비, 박물관 또는 제의와 축제 등이 없이는 기억은 오래가지 못한다. (p. 333)

> 온전한 과거극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거의 진실을 파헤쳐야 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하고 희생자를 복권시키고 배상해야 한다. 과거의 망령은 오직 그것을 현재화하고 공개함으로써만 잠재울 수 있다.(p. 337)

118) 김창규, 〈문화대혁명, 그 기억과 망각〉, 민주주의와 인권 10(2), 2010. pp. 307-345, p. 337.

과거의 상처 극복을 위해서는 '진실규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생소한 것이 아니다. 심리학자들은 집단적 트라우마의 치료를 위해서는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진실규명은 인간의 본능이자 남은 이의 죄책감을 덜어내고 불안과 무력감을 떨쳐내게 하는 길이라고 말한다.[119]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鐵凝 소설에서 작중인물들은 부정적인 과거를 규명하거나 되물음하고 지속적인 기억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결국엔 부정적인 과거를 없었던 것으로 '否認'하거나, 진실 규명을 포기하고 '默認'에 가담하게 된다.

《午后懸崖》은 소설 전체가 거의 韓桂心이 '나'에게 하는 죄의 고백 형식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후반에 이르면 韓桂心은 어머니와 자신이 은폐한 陳非의 사고 경위에 대한 고백을 포기한다. 심지어 韓桂心의 고백 내용이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남편이 진단을 내린 대로 韓桂心은 정신병 때문에 헛소리를 한 것인지조차 확실하게 알 수 없게 된다. 韓桂心은 '나'에게 자신이 陳非를 죽인 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자신이 상상한 일이었을 뿐이라고 둘러댄다. 고백으로 인해 남편의 사업을 그르쳐 자신이 버림받게 될 것 같으니 진상을 '否認'해버린 것이다. 소설 전반에 걸친 韓桂心의 고백 내용이 지나치게 자세하고 개연성이 풍부하다는 점을 볼 때 거짓 자백이라고 볼 여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정확한 眞相은 모호한 채로 묻혀 버린다.

물론 陳非의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가 韓桂心의 고의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진실보다는 陳非 본인의 실수로 미끄럼틀에서 추락하여 죽었다고 알고 있는 편이 덜 가슴 아픈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韓桂心이 陳非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고민하는 모습은 전혀 그려지지 않으며, 韓桂心은 오직 현재 자신이 누린 것들을 포기할 수 없기에 진실을 묵인하기로 결심할 뿐이다. 고백을 들어주는 '나' 역시 진실 여부에 크게 관심이 없다. 그것이 진실이든

119)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심리학자 373명이 "세월호 트라우마는 '진실 규명' 없이는 못 벗어난다."며, 유가족과 국민이 입은 심리적 상처 치료를 위해서는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집단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성명의 요지는 비극적인 사건의 이유를 밝히고자 함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고,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일은 살아남은 이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첫 걸음이며, 진상규명만이 불안과 무력감, 좌절감을 떨쳐낼 수 있다는 것이다. - 성현석, 〈심리학자 373인 "세월호 트라우마, '진실 규명' 없이는 못 벗어나"〉, 프레시안, 2014.08.28.

거짓이든 간에 '나'에게 韓桂心은 생면부지의 타인일 뿐이고, 韓桂心이 사십 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고 억압에서 자유로워지든 말든 '나'에게는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이다.[120]

《大浴女》에서는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더욱 적극적으로 포기된다. 이 작품에서는 《午后懸崖》보다 더 강하게 '진실을 규명한들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자포자기의 심리가 엿보인다. 이 소설에서는 많은 진실들이 끝까지 은폐되고 묵인되는데, 章嫵가 唐医生과의 사이에서 小荃을 출산한 일, 小荃이 맨홀에 빠지는 것을 小跳와 小帆 자매가 보고도 방관하여 죽게 한 일, 唐菲의 친부가 누구인지, 정말 俞大聲이 맞는지에 관한 일 등 불편한 진실들은 결국 밝혀지지 않는다.

《大浴女》의 후반부에 이르면 小跳와 小帆은 말다툼을 하다 결국 이십여 년 전 小荃의 죽음을 입 밖에 꺼내게 되고 죄의 책임을 다투는데, 小跳는 자신이 小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이후, 小荃의 사촌언니이기도 한 唐菲가 죽고 나서 小跳는 죄책감을 느끼며 연인 陳在에게 과거를 털어놓는다.

이에 대해 다수 논자들은 주인공 尹小跳가 오랜 세월 죄책감에 시달려왔으나, 마침내 과오를 참회하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간과하면 안 되는 점은 尹小跳가 小荃의 죽음에 대해서 오랜 세월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그 일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부정하거나 잊으려 노력해왔던 것 또한 사실이라는 점이다. "尹小跳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은 그대로 믿고, 믿고 싶지 않은 일은 아예 없었던 일로 치부해버리기로 했"었으며,(p. 11) 小帆은 당시의 기억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실용주의를 택하기로"하고 모든 것은 언니 小跳의 잘못으로 전가했다.(p. 391) 두 자매는 망각 또는 기억의 조작을 위해 애써 노력해왔으며, 이는 앞서 살

120) 소설에서 韓桂心과 화자는 소설 도입부에는 전혀 생면부지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韓桂心의 할머니를 통해 접점이 있음이 소설의 중반부에서 밝혀진다. 陳非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죽은 이후, 당시 시장이었던 화자 할머니가 北京시내 유치원에서 미끄럼틀을 전부 철거하게 조치시켰기 때문이다. 화자는 할머니의 장례식 이후 슬픔을 달래기 위해 국립묘지를 찾은 후 그 곳에서 韓桂心과 처음 마주친다. 鐵凝 소설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성인 이 같은 플롯의 응집성은 한 개인의 과오가 다른 이들과 무관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곤 한다.

펴보았듯이 과거 트라우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억압'과 '부인(否認)'의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 이러한 기억은 실제 상황일 수도 있고 尹小跳에 의해 개작된 여러 가지 기억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었다. 만약 인간의 기억이 많건 적건 간에 스스로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 거라면, 이는 인류의 본질적 나약함이지 단지 그녀만의 과오는 아닐 것이다. 尹小荃은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던' 그날로부터 불과 엿새 후에 죽었지만 尹小跳는 굳이 그 '베개 의자' 사건이 있던 그날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과 小帆도 그 사고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p. 10)

小跳가 陳在에게 죄를 고백한 것 역시, 小荃에게 진심으로 속죄하고자 했던 의도라기보다는 혼자 간직하기 벅찬 비밀을 털어놓고 홀가분해 지고 싶었던 이유가 더 크다. 즉, 《午后懸崖》의 韓桂心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자백인 것이다.

> "…난 살인자야. 징벌을 피해 달아난 죄인이라고. 아무에게도 이런 사실을 털어놓지 않으려 했어. 하지만 오빠를 사랑하게 된 뒤로 오빠한테 다 털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지.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야. 단지 小荃이 맨홀에 빠지던 모습이 세월이 갈수록 더 또렷해져서 그래. (중략) 오빠, 난 누군가 날 도와주기를,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를 간절히 바라 왔어.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오빠인거 것 같아. (중략) 이제 다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홀가분해 지는군. 오빠가 이런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겁이 나긴 하지만 말이야."(p. 492)

小跳는 죄를 고백함으로써 마치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마음의 짐으로부터 급속히 해방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에게는 고작 세 살의 나이로 맨홀에 빠져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언니들이 구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허우적거렸을 小荃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이나 죄책감 등이 결여되어 있으며, 딸을 잃은 章嫵와 唐医生에 대한 죄책감도 부재하다. 그저 비밀을 숨겨온 답답함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자기본위의 참회를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陳在로

부터 小荃의 사고 전날 唐菲가 맨홀 뚜껑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듣게 된 小跳가, 小荃이 죽은 것이 자신의 탓만은 아니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은 자못 천진난만해 보이기까지 하다.

劉玉霞는 《小說評論》에 발표한 鐵凝 소설에 관한 평론들에서, 작중인물들이 모두 여러 층면의 죄를 범하였으나 대체로 자신의 과오를 자각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있음을 논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행복을 얻을 수 없었다고 분석한다.[121] 이를테면 《大浴女》의 小帆은 미국인과 결혼 후 미국으로 도피하여 새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편안함을 얻지 못하였고, 章嫵와 尹亦尋 역시 삼십년 넘게 부부로 살아가면서도 과거 章嫵의 혼외정사와 출산에 대해서 서로 털어놓지 않기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俞大聲 또한 자신이 唐菲의 친부임을 인정하지 않아 결국 행복해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劉玉霞는 주인공 小跳만큼은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인정함으로써 자유를 얻었다고 평가한다.[122] 그 근거로서 小跳가 小荃에게 잔인했음을 인정하였고, 方競으로부터 받는 감정의 학대에서 벗어났으며, 모친이 과거 불륜으로 인해 현재 생활에서 억압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小跳는 부친의 원한과 유약함, 절망감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과 陳在의 혼인은 이기적인 천진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결국 포기를 선택하였다고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劉玉霞가 평가하는 小跳는 탐욕과 원망을 포기하고, 가족과 주변인들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며, 자기 인성의 어두운 면을 용감하게 대면하여 자유를 달성하는 인물인 것이다. 그러나 정말 小跳가 완벽한 성장을 이루어내고 해탈에 이르렀으며 자유를 얻을 자격을 가졌는지, 소설은 정말 주인공의 이상적 결말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소설 전반에서 小跳에게 보이는 불가해한 면 중의 하나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불륜과 사생아 동생의 출생에 그토록 격노하고 고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역시 가정이 있는 남성들과 계속해서 불륜관계에 빠진다는 점이

121) 劉玉霞, 〈論鐵凝小說中的無罪之罪〉, 《小說評論》, 2016年6期, 〈論鐵凝《從夢想出發》的創作意識〉, 《小說評論》, 2017年06期, 〈鐵凝長篇小說的夏調元素〉, 《小說評論》, 2019年01期.

122) 劉玉霞, 〈論鐵凝小說中的無罪之罪〉, 《小說評論》, 2016年6期.

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어머니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잘못된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며, 혼외관계로 인해 자신이 당했던 피해를 이제 가해자의 입장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른 이들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부인과 자녀가 있는 方競과 연애하는 동안 小跳에게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으며, 아내가 있는 陳在와 오랜 기간 연애하면서도 자신들의 사랑만이 진실이라고 믿는다. 章嫵가 최초 唐医生과 관계를 맺었던 이유가 文革 기간 葦河 농장의 고된 노동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서였다면 小跳의 불륜에는 그 정도의 당위성조차 찾을 수 없으며 그저 이기적인 욕망만을 보여주는 듯하다.

안나 프로이트는 방어기제의 하나로서 '공격자(가해자)와의 동일시' 개념을 소개하였는데, 공격자에게 위협을 느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공격자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자신이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킨다고 한다.[123] "위협적인 사람의 성격을 받아들임으로써 취약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힘과 통제력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다."[124] 아동기에 어머니의 불륜으로 가정이 와해될지 모른다는 강한 위기감과 두려움을 느꼈던 小跳는 무의식적으로 어머니를 닮아감으로써, 어린 시절 느꼈던 불안감을 극복하고, 손상되었던 자존감을 복구하려는 것이라고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小跳는 어머니가 그동안 힘든 세월을 보냈음을 이해하게 되긴 했지만, 정작 자신이 과거 어머니가 과거 저질렀던 잘못보다 더 가혹한 짓들을 일삼았음은 깨닫지 못하였다. 小跳는 小荃 사건의 진실을 陳在에게 고백하고 나서도 3년이나 더 陳在와의 관계를 이어간다. 그러다 결혼을 앞두고 陳在에게 문득 감정이 식어감을 느끼며, 陳在와 万美辰 부부 사이의 연민은 자신의 열정 보다 더 강한 것임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小跳가 陳在와의 결혼을 포기하고 그를 万美辰에게 돌려주려 한 것은 치열한 자기반성에 기반한 참회 때문이라기보다는 욕망의 감소 때문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小跳의 가정은 부모가 좋은 지도자로서 가정을 이끌어 가지 못했고, 부모

123) 안나 프로이트, 《자아와 방어기제》, 김건종 역, 열린책들, 2015, pp. 143-158.
124) Arthur J. Clark, 《방어기제를 다루는 상담기법》, 김영애 외 역,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2005, pp. 94-95.

자신부터 혼돈된 생활을 하고 있어 자녀에게 어떤 지침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란 자매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기 어려웠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小跳의 이기적 행동들과 태도는 결코 이상적이진 않지만 현실적인 결과라고는 이해할 수 있다. 도덕성을 함양했어야 하는 아동기에 가정 안팎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무규범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목격한 결과, 몸은 성인으로 성장하였어도 내면은 여전히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서 적절히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무의식적인 방어기제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大浴女》에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문제들 중 하나는 唐菲의 친부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唐菲가 굳게 믿고(바라고) 있는 것처럼 俞大聲이 맞는지 아닌지, 독자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는 없다. 작품 속 화자는 때론 지나치게 상세하게 작중인물의 내면을 설명하는 반면, 정작 궁금한 사건의 眞相은 확언해주지 않음으로써 독자의 답답함과 괴로움을 자아내는데, 특히 唐菲 문제에 있어서는 俞大聲이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암시들만이 소설 곳곳에 흩뿌려져 있을 뿐이다.

唐菲의 친부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唐津津이 오물을 마시고 결국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친부의 정체를 숨겨야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唐津津이 끝내 폭로할 수 없었던 것은, 진실을 밝힐 경우 아이가 위험해지거나 아이 아버지가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唐菲가 俞大聲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것은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직감적으로 그가 자신의 아버지 같다고 '느꼈기' 때문인데, 唐菲의 죽음 후 小跳가 俞大聲을 추궁하자 그는 끝내 인정도 否認도 하지 않으며, 이 대목은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다.

만약 唐菲가 俞大聲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는 확증을 찾았다면 – 자신의 어머니가 俞大聲과 함께 찍은 과거사진을 발견한다는 등의 – 구태의연한 전개가 되지만 최소한 독자의 궁금증은 풀리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唐菲는 무작정 자신이 일하는 공장의 공장장 俞大聲의 친절함과 자상함에 그를 아버지가 아닐까 상상하고 믿어버린다. 독자는 궁금증을 마지막까지 안고갈 수밖에 없으며, 결코 선명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 虹影의 《飢餓的女兒》나 余華의 《許三觀賣血記》같은 동 세대 작가의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아버지 찾

기' 모티프의 경우, 결국 '친부'의 실체가 밝혀지며 주인공들이 그로 인한 괴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반면, 鐵凝은 唐菲 친부의 실체를 끝까지 덮어둠으로써 唐菲를 죽을 때까지 정체성의 혼란 속에 남겨둔다.[125]

수천만 명에 달하는 北京의 인구 속에서 단순히 육감만으로 아버지를 찾는다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그런데 왜 兪大聲은 唐菲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일까? 소설의 묘사를 주의 깊게 본다면 兪大聲은 고매한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보이는 동시에 唐菲의 친부는 아닐지라도 그에게도 비슷한 과오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그에게도 唐菲와 같은 사생아가 있을지 모르며, 그래서 唐菲에게 미안함을 느끼는지 모른다.

鐵凝은 兪大聲이 唐菲의 친부인지 아닌지 진위를 정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설 속 특정인물의 개인사가 아닌 兪大聲과 같은 권력자들 일반의 문제로 삼고자 하였을 수 있다. 촉망받는 권력자들 중 누구라도 唐菲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상상을 유발하여, 鐵凝의 다른 작품에서들처럼 고위관료나 권력자의 위선에 대한 비판의식을 나타낸 것이다. 唐菲의 친부를 兪大聲으로 특정하는 순간 독자에겐 더 이상의 궁금증은 남지 않고 兪大聲에게 비난의 화살을 겨누게 되는데, 鐵凝은 비판 대상에 있어 보다 광범위한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다.

鐵凝이 소설에서 친부 여부를 확실히 밝히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진실이 규명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 득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尹小跳는 唐菲가 죽은 후 兪大聲을 만나지만 결국 唐菲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唐菲에 관한 얘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한편으로 쓸데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에겐 짐작만으로 그의 자백을 유도할

125) 虹影의 《飢餓的女兒(굶주린 여자)》(김태성 역, 한길사, 2005.)에서 주인공 六六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묻고, 어머니의 실토로 친부가 누군지 알게 된다. 六六는 가난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와 친부 사이를 오가는 가혹한 생활을 하며 굴욕을 겪지만, 적어도 출생의 비밀을 모른 채로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살지는 않는다. 余華의 《許三觀賣血記》(최용만 역, 푸른숲, 2013.)에서 許三觀은 一樂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갈등 끝에 아들로 받아들이며 一樂 역시 자신을 희생으로 키워준 許三觀을 아버지로 따른다.

> 권한이 없었다. 자신의 추측에 대해 그가 뭔가 이야기하도록 강요할 권한이 없는 것이었다. 그녀에게도, 唐菲에게도 자신들의 일방적인 바람을 관철시키려는 이러한 권한 따위는 없었다. 어쩌면 그가 오늘 尹小跳를 만나려 한 것은 처음부터 唐菲에 관해 뭔가 말하려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말대로 그저 유태인에 관한 책을 읽고 나서 이에 대한 감상을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p. 596)

위 단락에서 尹小跳가 '쓸데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거나 그에게 '자백을 유도할 권한이 없었다.'고 한 서술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이미 唐菲가 죽고 없어진 시점에서, 그녀의 친부가 俞大聲이었는지 밝힌들 그 사실로 인해 득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 모른다. 또한 小跳는 분명 俞大聲에게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자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와 唐菲는 친구사이일 뿐 법적 대리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며, 俞大聲과는 더욱 아무런 친분이 없는 타인일 뿐이다. 그래서 小跳는 더 이상 俞大聲에게 유도심문이나 추궁을 시도하지 않고, 진실 규명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小跳의 상황은 현실적으로 수긍이 안 가는 것은 아니나, 小跳의 묵인으로 인해 唐菲는 죽어서도 누군가의 '딸'로서 복권되거나 어떠한 인정이나 사과도 받지 못한다.

소설에서 唐씨 일가는 하나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唐津津은 미혼모라는 이유로 비판투쟁에서 고문을 받은 후 목을 매어 죽고, 唐医生은 불륜현장에서 도망치다 알몸으로 추락사하고, 唐菲는 젊은 나이에 암으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며, 세 살배기 小荃은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어둡고 차가운 맨홀 속에서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고통스럽게 죽었다. 唐씨 일가가 거의 전멸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보다 더욱 잔인한 것은 唐씨 일가를 기억해주고 추모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죽음은 文革이라는 시대의 광기에 기인한 것으로, 남녀 간의 사랑이나 육체관계를 퇴폐적이고 부르주아적인 감정으로 간주하며 금기시한 文革의 논리가 아니었다면 唐津津이나 唐医生이 자살까지 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章嫵가 농장 일에서 도망치기 위한 방편으로 거짓 진단서를 발급받고자 唐医生에게 접근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小荃이 탄생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온 가족이 차례로 세상을 떠야만 했던 비극적인 역사에 대해서 남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은 소설에 나타나지 않는다. 唐菲의 희생에 기대

어 출세한 尹小跳마저도 唐菲 친부의 정체를 더 이상 알아보려 하지 않고 묻어둔다. 唐씨 일가가 다 죽음으로써, 남은 사람들은 영원히 불편한 진실을 묻어둘 수 있게 되었다. 小跳는 陳在에게 小荃의 죽음을 방관한 일을 털어놓은 후에도, 부모에게는 결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小荃의 죽음 이후 章嫵는 극심한 슬픔에 빠져 괴로워했었다. 그러나 小跳는 끝까지 章嫵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자신의 비정한 행동에 대하여 온당한 비판을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章嫵를 진심으로 위로하지도 않는다.

《玫瑰門》에서 司猗紋이 시부를 강간한 날 姑爸는 아버지 방 문 앞에서 司猗紋을 마주쳤지만 두 사람은 암묵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다. 司猗紋은 姑爸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大浴女》의 俞大聲이 唐菲의 친부였다면, 내연녀였던 唐津津의 죽음에 이어, 자신의 '숨겨둔 아이'인 唐菲마저 죽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불순했던 사생활을 증명할 이가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 모른다. 《大浴女》의 마지막 문장은 小跳가 唐菲를 닮은 어린아이를 보며 말을 건네는 장면으로 의미심장하다.

> 아이가 다시 저쪽으로 뛰어가면서 연신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내내 尹小跳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아주 먼 곳에서 정다운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얘 꼬마야 너 왜 그러니?' '얘 꼬마야 너 왜 그러니?' 그녀는 방긋 웃으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달콤한 고통이 가슴 가득 퍼져갔다.(pp. 596-597)

"얘 꼬마야 너 왜 그러니?(嗨, 小孩儿, 你怎么啦？)"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앞의 말은 小跳가 어린시절 陳在에게 들은 말을 떠올리는 것이며, 뒤의 말은 小跳가 唐菲를 닮은 아이에게 건네는 것으로 해석된다. 小跳는 결국 小荃 죽음의 진상도, 唐菲 출생의 진상도 밝히지 않은 채 그들의 핏줄일 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태연하게 말을 건넨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鐵凝 소설 속 인물들은 진상 규명을 중단하거나 또는 포기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잘못한 이가 처벌을 받거나 보상을 하지도 않는 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끝까지 남겨둔다. 이로써 과거는

극복되기 보다는 묵인되어버린다. 앞서 鐵凝과 세대가 비슷한 余華가 아동기 文革 경험을 재현한 《兄弟》를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소설의 경우, 李光頭는 천하의 몹쓸 짓을 다 하는 불량배로 형제 宋鋼까지 배신하였지만, 宋鋼의 죽음으로 자신의 과거 행동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후회하며, 이미 죽어버린 宋鋼에게 마음을 다해 사죄한다. 李光頭는 宋鋼의 유서를 "한 번 읽을 때마다 자신의 뺨을 한 대씩 후려치며 통곡했다. 宋鋼이 죽고 나서 李光頭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126] 李光頭는 신체적로도 벌을 받게 되는데, 宋鋼의 아내였던 임홍을 포함하여 많은 여성들과 방종한 관계에 탐닉하던 그는 宋鋼이 죽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성기능을 상실한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 따른 대가로 받아들이고 宋鋼의 유골을 들고 우주로 가서 그의 흔적을 영원히 남기자 한다.

이러한 다소 상투적이지만 안정감 있는 결론인 '사과'나 '화해', '처벌'이나 '보상' 또는 '반성' 등은 鐵凝 소설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일시적인 죄의 인정이나 단순한 사과로 오랜 상처를 해결해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피해자에 대한 기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 화해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거의 진상을 밝히고 그에 대한 서로의 감정을 고백하는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인 또는 사회의 과거사에 대한 언어화가 부담스럽다고 하여 은폐하고 회피한다면 가족 간, 인간 사이의 소통의 욕망을 좌절시키며 또 다른 오해와 원망을 낳고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鐵凝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아동기 경험에서 강하게 표출된 소통의 욕망을 성인이 되어서 충족시키거나 해소하기보다 스스로 내려놓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부끄럽고 불편한 과거를 덮어둠으로써 남아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126) 위화, 《형제》, 최용만 역, 휴머니스트, 2007, p. 856.

## 제4절 성년기의 태도 전환에 대한 고찰

지금까지 소설의 외화 및 결말을 고찰한 결과, 주인공이 아동기에 겪은 트라우마와 상처는 성년기에 망각되어 가고, 과거 이야기에서 강렬하게 표출되었던 과오에 대한 고발과 비판의 의지 역시 흐려지며, 결국 주인공이 과거를 합리화하고 묵인하는 태도로 소설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鐵凝 소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 각도에서 해석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당대 중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위주로 고려한다면, 작품들을 과거의 문제와 상처들을 외면하고 망각하려는 현 중국사회에 대한 정치사회적 알레고리로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文革이라는 역사적 사건 및 작품이 창작된 80년대말-90년대의 사회적 배경이나 분위기를 관련짓는다면, 성년이 된 주인공이 과거의 잘못을 더 이상 규명하려 하지 않고 덮어두려는 태도는, 文革 종결 이후 중국 당국이 대약진운동이나 文革과 같은 국가적 과오에 관한 논의를 금기시하며 '망각을 강제'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127] 또한, 소설에 나타난 주인공의 가정은 중국사회의 축소판이며, 주인공의 가정 내에서 소통이 억압되고 회피되는 양상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된 중국 사회 전체의 성격을 함축하여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不通의 메타포로서 등장인물 개개인에게서 발현된 딸꾹질, 잠꼬대나 정신분열 등의 증상들은, 집단적 不通으로 인한 사회의 부작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大浴女》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가정의 치부를 언급하지 않는 尹亦尋이나, 자신의 과거 모습을 지워버리고자 성형수술을 일삼는 章嫵

127) 錢理群은 〈망각을 거부하라〉에서, "중국인과 중국의 지식인에게 20세기의 중국적 경험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기억이기도 하지만, '반우파투쟁'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89년 대학살' 등처럼 차마 돌이켜볼 수 없는 고통과 굴욕의 기억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錢理群은 특히 1981년 〈關于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이 채택된 이후,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당국이 "망각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사의 피냄새는 일상 속에서 점점 묽어져 소멸되게" 됨을 경각시키고, 1990년대 이후 시대적 분위기에 대하여 엄중히 비판을 가한다. - 錢理群, 〈망각을 거부하라〉, 《고뇌하는 중국》, 장영석·안치영 역, 길, 2006.

는, 국가적 체면을 지키고자 치부를 묻어둔 채 외적 성장에 치중해온 중국 당국을 표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尹亦尋과 章嫵에게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尹小跳 자매 역시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거나 반성하지 못한다. 마치 어린 시절 부모의 폭력적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이 부모가 됐을 때 자신의 아이에게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鐵凝 소설 속 주인공의 부모 세대에서 문제시되었던 '반성의 부재'와 '소통의 부재'는 주인공의 세대로 대물림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午后懸崖》의 서사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 대입한다면, 과거사를 은폐하는 데에는 세 종류의 세력이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韓桂心과 張美方으로 대변되는, 실질적・물리적으로 가해를 저지르고 비판과 처벌이 두려워 은폐한 이들이며, 다른 하나는 韓桂心의 남편으로 대변되는, 즉 현재의 이익을 위해 그 죄가 밝혀지길 '차단'해버리는 이들이고, 마지막 하나는 '나'로 대변되는,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 치부하며 그 죄의 진실 여하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들이다.

앞서 陳曉明의 논문을 인용한 바 있듯이, 중국 당대 작가들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文革 서사는 거대담론을 연상시키며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알레고리로 읽힐 수 있는 측면이 있다.[128] 특히 鐵凝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文革 시기 아동의 트라우마와 그에 대한 성년기의 방어기제는 당대 중국의 현실에 대한 정치사회적 알레고리로 읽어낼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한 반면,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향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鐵凝의 작품들은 작가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상처와 아픔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성장소설로 이해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 다룬 작품들의 경우, 사실상 작가에 대한 사전정보가 전제되어 있다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작가 鐵凝의 유사성 – 출생년도, 성별, 고향, 직업, 가족관계, 성장과정 등 – 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129] 작품을 개인적 기억의 소환과 가감(加減)의 작업으

128) 본 논문 2장 2절 및 陳曉明, 〈The Extrication of Memory in Tie Ning's Woman Showering: Privacy and the Trap of History〉, Chinese Concepts of Privacy. Eds. McDougall, Bonnie S. and Anders Hansson. Leiden: Brill, 2002. pp. 195-208. 참고.

로서 접근한다면, 鐵凝이 작중인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지는데,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鐵凝 소설의 화자(話者)의 존재에 대하여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소설 속 사건과 인물들의 다양한 심리는 작중 화자의 눈과 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되는데, 화자의 존재감을 쉽게 의식하기 어려운 소설들도 있는 반면, 鐵凝의 장편소설에서는 화자가 빈번하게 논평을 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본고의 2장에서는 鐵凝 소설의 화자가 박학다식하며, 역사와 예술 방면으로 지식이 풍부하고, 세상사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논평하길 좋아한다는 점을 논증한 바 있다.[130]

이런 화자의 서술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大浴女》에서 화자가 아동기의 小跳를 관찰하고 서술할 때와, 어른이 된 현재의 小跳를 관찰하고 서술할 때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화자는 어린 시절의 小跳가 선량한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과거 이야기 곳곳에서 피력해주며, 그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성년이 된 주인공을 관찰하는 화자의 시선에서는 과거 이야기에서만큼 우호적 기색을 느끼기 어렵다. 화자는 아홉 살의 小跳가 학교 비판대회에서 단상 위로 끌려 올라간 唐津津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 ‘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입을 열지 않는 거냐고요?’ 小跳는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이는 것처럼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唐津津 선생님이 어서 입을 열기를, 제발 무슨 말이든 하기를 바랐다. ‘그래야 똥물을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았다. 그들은 唐津津이 자

129) 《玫瑰門》과 《大浴女》는 각 소설의 도입부에서 주인공이 1957년생임을 밝히고 있으며 주인공이 北京 출신이고 여동생이 있는 점, 지식인 부모가 하방된 일화 등은 鐵凝 자신을 연상케 하는 요소가 많다. 陳曉明은 鐵凝이 《大浴女》의 尹小跳에게 출판사의 문학편집자라는 신분을 부여함으로써 자신과 자전적 관계를 구성했다고 말하고 (“…the author sets up an autobiographical relationship with her protagonist, Yin Xiaotiao, most obviously by giving her a social identity as a literary editor in a major publishing house, and, more significantly, by attributing to Yin Xiaotiao a recollection from her own life.” – 陳曉明, 위의 논문, p. 195.) 王蒙은 鐵凝이 자신을 책 안에 놓는 작가라며, 책 안의 곳곳에서 鐵凝의 맥박, 눈물, 미소, 염원, 원한 등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王蒙, 〈讀大浴女〉, 《讀書》, 2000. p. 114.)

130) 본 논문 2장 2절 참고.

> 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 상황이 종료되길 바라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한 똥물을 마셔야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의 고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똥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p. 65)

위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은 화자의 견해로서, 남의 고통을 보고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악한 본성과, 본능적으로 동정심을 품는 小跳의 선량함을 대비시키고 있다. 또한, 케산병에 걸린 어머니에게 직접 요리를 해주겠다며 고작 열한 살의 小跳가 "꿈틀대는 잉어를 낑낑대며 집으로 가져"가면서 "즐거움과 안도감, 그리고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이나(p. 96), 돈이 넉넉지 않아 자신은 "애써 사과와 갈치를 좋아하지 않는 법"을 익히면서 동생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기만 하는 모습(p. 209) 등에 대한 묘사는 독자의 감동을 자아내기 충분하며 화자가 애정과 슬픔이 어린 시선으로 小跳를 관찰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무엇보다 小跳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是非之心과 惻隱之心을 지니고 있는데, 唐菲에게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말을 듣자마자 슬퍼하며 그런 줄 몰랐다며 사과하는 모습이나, 章嫵의 외도를 尹亦尋에게 고발하는 편지를 부친 후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모습들에서도 그러한 면을 잘 찾아볼 수 있다. 이같이 조숙한 면모는 《玫瑰門》의 眉眉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는 유아기 때부터 본능적으로 선악을 판별할 수 있어, 악행을 일삼는 외할머니에게는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반면 성품이 어진 이모할머니를 동경하며 그의 불행을 몹시 안타까워한다. 두 작품 모두 아동기의 주인공들이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으며, 그러한 주인공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에도 애정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성년이 된 小跳를 서술하는 대목들에서는 화자가 과거 이야기에서만큼 호의적으로 小跳를 대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小跳는 출판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唐菲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해 자신을 도와줄 것을 종용하고, 마지못한 唐菲는 부시장을 찾아가 "비위가 상하는 것"을 참고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하여" 육체관계를 가짐으로써 小跳의 입사를 돕는다.(p. 344)

尹小跳는 唐菲의 자존을 희생하여 자신의 순결을 지켜냈고 그렇게 바라던 대로 아동출판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10년 뒤, 그녀는 이 출판사의 부사장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언젠가 尹小跳는 동생 小帆에게 이 일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그녀는 小帆이 어릴 때와 마찬가지로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제 편에 서주기를 바랐다. '괜찮아, 언니.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래? 唐菲 언니는 원래 그런 여자잖아. 몸을 한 번 파나 열 번 파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 이렇게 말해주기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른다. 그녀는 小帆이 그 누군가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 말 한마디면 그녀는 마음의 해방을 얻을 수 있고 더는 자신이 비열하게 느껴지지 않을 터였다. 그러나 小帆은 차가운 냉소로 반응했다.

"언니는 너무 비겁해. 어쩌면 그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지." (pp. 344-345)

小跳의 속마음을 나타낸 문장은, 小跳가 小帆에게 듣길 기대하는 말인 동시에 小跳가 평소 唐菲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의 小跳는 어머니가 안 계신 唐菲에게 깊은 슬픔과 연민을 느꼈고 친구의 고통에 잘 공감하는 아이였으나, 성년이 되어서는 唐菲를 쉽게 이용하고 그녀의 고통에 무심해져버렸다. 또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었던 아동기와는 달리 부정한 방법으로 출세를 도모함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는다. 전지적 화자는 小跳의 머릿속에 들어가 그의 졸렬한 생각을 독자에게 드러내주는 동시에, 동생 小帆이 小跳를 나무라는 말을 전달해줌으로써 小跳의 비열함을 확인사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물의 유년시절부터 성년이 되기까지를 그리고 있는 성장소설의 경우, 유년기 인물은 지적·도덕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세상을 통찰하거나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이지만 일련의 시련을 겪고 극복을 거듭하면서 세상의 의미를 깨닫고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玫瑰門》의 眉眉, 《午后懸崖》의 韓桂心, 《大浴女》의 尹小跳 등은 어린 시절 매우 조숙하며 높은 수준의 통찰력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성인이 되어서는 이전만큼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131] 특히

131) 국내 소설가 은희경의 《새의 선물》에서 이와 유사한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성민

《大浴女》의 尹小跳는 아동기엔 상황파악 능력이나 타인의 심리파악 능력이 뛰어나고 본능적으로 惡行에 저항하려는 정의감을 갖추고 있었지만, 어른이 된 현재는 무분별하고 사려 없는 행동을 하며 정신 연령이 아동기 때에 비해 떨어져 보이기까지 하다. 유부남이자 난봉꾼인 方競과 진정한 사랑에 빠졌다고 믿는 小跳에게 唐菲는 "네가 '사랑'이라는 몽둥이에 한 방 맞고 멍청해진 줄 진즉에 알았어야 했어."라고 일침을 놓는다.(p.272) 식당을 하는 孟由由에게 小跳는 부유한 손님에게는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여 비싸게 받으라며 즐거워하는데, 이를 지켜본 小帆은 언니의 "삐딱한 속물스러움"에 "심기가 불편해지면서 짜증이 나기까지" 하다.(p. 374) 화자는 이렇게 주인공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부정적 시선까지 섬세하게 관찰하고 서술함으로써, 현재의 주인공을 결코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小跳의 부정적 면모를 보여주면서도 때론 그를 옹호해주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大浴女》 프롤로그에서는 죽은 小荃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워하는 小跳에 대하여 화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러한 기억은 실제 상황일 수도 있고 尹小跳에 의해 개작된 여러 가지 기억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었다. 만약 인간의 기억이 많건 적건 간에 스스로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 거라면, 이는 인류의 본질적 나약함이지 단지 그녀만의 과오는 아닐 것이다.(p. 10)

또한 소설의 마지막 장인 10장에서는 小跳에 대해서 "이제껏 자신의 마음이 주먹만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깊고 넓어 끝 간 데 없이 이어져 있었다."고 서술하며, 小跳가 보다 관대해지고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이렇듯 화자는 현

---

엽은 이 소설의 화자 '나'가 과거 이야기를 대할 때와 현재 이야기를 대할 때의 정서 차이에 주목한 바 있다. "과거의 이야기는 냉소 뒤에 숨은 것이 냉소를 은연중 따뜻하게 감싸는 데 비해 현재의 이야기는 오직 냉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략)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불균형까지를 포함한 것이 《새의 선물》이다. 그 불균형까지 포함해서 볼 때 삶은 성장 시기에만 의미 있고(그것이 거짓 의미라 하더라도) 성장이 끝난 뒤에는, 다시 말해 삶을 다 알게 된 뒤에는 그저 무의미한 시간이 계속될 뿐이라는, 삶은 그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일 뿐이라는 암시가 성립된다." - 성민엽, 〈비관 뒤에 숨은 것 - 은희경론〉, 《문학과 사회》18(3), 2005, pp. 260-269.

재 이야기에서 성인이 된 小跳를 한층 냉정한 시선으로 관찰하면서도, 때론 小跳 개인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변명해주거나,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小跳를 두둔하고 보호하려는 의지 또한 보이고 있다.(p. 592)

그렇다면 이러한 화자의 뒤에서 화자를 조종하고 있는 작가 鐵凝의 심리는 무엇일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라온다. 작가 鐵凝이 작중인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화자가 인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동일할 수도 있고, 어쩌면 전혀 다를 수도 있다. 만약 鐵凝이 화자에게 동조하는 입장이라면, 즉 화자가 인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鐵凝이 인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치한다면, 작가 역시 성년이 된 주인공의 여러 부정적 면모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주인공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싶은 무의식을 지녔으리라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성년이 된 주인공이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이들을 포용하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거나, 자신의 과오를 끝내 고백하지 않고 은폐하고 마는 것은, 작가 스스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기 싫어 덮어두고 싶다는 무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그러한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은 방어기제가 작용했으리라 짐작된다.

鐵凝이 주인공에 대해 반드시 화자와 같은 시각일 것이라 볼 수만은 없는데, 주인공을 때로 두둔해주는 화자와는 달리 작가는 주인공의 현재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의 반성 없는 태도를 용서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132] 이 경우는 鐵凝의 다른 작품들을 함께 비교하여 볼 때, 가능성이 높아진다. 鐵凝은 다수의 중·단편소설에서 이기적이고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는 성인들을 반복적으로 그려내며 독자의 비판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133]

---

132) 王蒙은 작가가 尹小跳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작가가 唐菲를 종용해 부도덕한 방법으로 목적으로 이루어내는 尹小跳를 그려냈음에 주목한다. “作者并不原諒尹小跳, 作者甚至寫了尹小跳爲了辦某种事不惜托付唐菲去用不道德的手段以求達到目的。” - 王蒙, 〈讀大浴女〉, 《讀書》, 2000. p. 117.

133) 鐵凝의 단편소설 〈誰能讓我害羞〉(2002)는 한 성인 여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양심을 외면해버리고 마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은 마흔 살의 부유한 여성으로 다섯 살 아들을 둔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는 정기적으로 생수를 배달시켜 받는데, 그가 이용하는 생수 가게의 점원인 열여덟 살 청년은 이 여성의 부유한 자태에 압도되어 그의 고급스런 아파트에 배달을 갈 때면 굳이 거추장스러운 정장을 빌려 입고선 무거운 생수통을 옮기느라 고생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주인공은 청년에게 어떠한 관심도 갖지 않고, 힘겹게 배달을 마친 그에게 생수가 아닌 싱크대의 물을 마시게 한다. 청년은 어느 날 배달을 마친 후

《玫瑰門》과 《大浴女》에서 논평적 화자의 존재는 독자로 하여금 주인공들에게 감정 이입을 하기보다는 그들을 타자(他者)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데, 이 역시 鐵凝이 의도한 것일 수 있다. 그로 인해 독자는 인물들에게 동일시되기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 그들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작품을 작가의 경험을 반영한 성장소설로 접근하더라도 작가와 화자를 분리하여 볼 때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다.

성장소설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주인공의 개인사는 정치사회적 알레고리로서의 거창한 의미를 갖지는 않더라도,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鐵凝은 본인의 상처 뿐 아니라 수많은 개인과 가정들이 겪었을 트라우마와 아픔을 생생하게 드러냈으며, 그 '드러냄'은 고통스럽고 부끄럽기도 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鐵凝은 文革 기간 외가에서 거주하였는데 이 경험들이 《玫瑰門》에 다량 반영되어 있다.[134] 蘇眉가 어린 나이에 외가에서 식모에 가까운 생활을 하며 司猗紋으로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받고 수모를 당한 것이 실제 鐵凝의 경험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 같이 치욕적이고 괴로운 기억을 소설로 풀어낸 것은 그 자체로 용기 있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午后懸崖》나 《大浴女》에서는 대약진운동과 文革 시기에 어린 아이였던 주인공들을 순진무구한 피해자로서만이 아닌, 또 다른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로서 그리고 있는데, 흔히 아동을 전쟁이나 재난 상황의 피해자로만 인식하고, 가해자로 바라보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소신 있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3장과 4장에서 분석한 鐵凝 소설에 나타나는 특징과 패턴을 어

---

물 한잔을 달라고 부탁하나, 역시 주인공이 자신에겐 싱크대의 물을, 자신의 아들에겐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에 분노하여 칼을 빼들며 위협하게 된다. 나중에 주인공은 경찰의 말을 통해서 그 청년이 당일 엘레베이터 고장으로 인해 8층까지 물통을 메고 걸어 올라왔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곤혹스러워하며 생각한다. '내가 부끄러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라고. 이렇게 주인공이 양심의 가책을 끝내 부정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 鐵凝, 〈誰能讓我害羞〉, 《伊琳娜的禮帽-鐵凝小說精選集》, 新地文化藝術, 2012.

134) 본 논문 2장 1절 참고.

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여러 각도에서 고찰해보았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본고에서 주로 다룬 《玫瑰門》, 《無雨之城》, 《午后懸崖》, 《大浴女》 등은 공통적으로 여성 주인공들의 삼십대 또는 사십대 초반의 나이에서 소설이 끝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소설은 주인공의 '성년기'에 해당하는 시기까지만 보여주고 있을 뿐, 주인공들이 이후 중년기나 노년기에 이르러서 생각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으며, 주인공들의 생애 전체에 대한 작가의 판단과 결론은 유보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午后懸崖》에서 화자 '나'는 韓桂心을 보고 생각한다. '참회는 용기가 필요하고 시간은 부차적인 문제며, 30년, 40년, 100년, 1000년이 걸리더라도 참회를 시도하는 것이 바로 용기이다'라고.[135] 마흔의 韓桂心은 남편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기로 결정했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추하게 되는 시기인 노년기에 이르면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鐵凝은 한 강연에서, '시간'은 애정과 원한과 같은 것들을 마모시키기도 하지만, 또한 세대 간의 간극과 경시를 상호에 대한 관심과 화해로 변화시키고,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주기도 한다고 말한 바 있다.[136] 2000년대 이후 鐵凝의 작가로서의 활동은 80-90년대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간간이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 연륜이 더 쌓인 鐵凝이 문학 안에서 과거 트라우마와 상처, 역사와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대면하고 처리해나갈지 귀추를 주목하고자 한다.

---

135) "是忏悔就需要勇气，时间是次要的，无论事隔30年，40年，100年，1000年， 敢于忏悔本身就是勇气。" - 鐵凝, 《午后懸崖》, 人民文學出版社, 2006. p. 49.

136) "时间可以磨损很多东西，比如爱恨情仇。时间也能够塑造很多东西，比如让美变成痛苦所能够达到的最高境界，让代际间的隔膜和不屑成为相互凝视与和解，乃至相互的鼓舞。" - 鐵凝, 〈시간과 우리(時間和我們)〉, 《2018 한중일 동아시아 문학포럼》, 대산문화재단. pp. 20-23.

# 제5장 결 론

이 논문은 鐵凝의 주요 장편소설에서 文革 시기를 배경으로 한 아동기의 트라우마가 핍진하게 묘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천착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2장에서는 鐵凝의 생애를 살펴보고, 지식인의 자녀이자 아동기에 文革을 체험한 세대로서의 창작 모티프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으며, 3장과 4장에서는 《玫瑰門》, 《午后懸崖》, 《大浴女》 등 주요 작품들을 아동기의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하였다.

소설 속 과거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文革 시기 가정 안팎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그로 인한 증상을 표출하며 괴로워한다. 소설은 신체적·성적 폭력이 동반된 잔혹 행위, 타인을 모함하고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행위 등을 목격한 아동의 공포감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게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음을 목도한 아동의 환멸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소설은 소통이 억압되고 회피되는 가정 내에서 주인공이 외로움에 시달리며 정서적 트라우마를 쌓아가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이같이 과거 이야기에서는 文革 시기를 배경으로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개인의 죄책감 부재와 가족 간 소통의 부재에 따른 아동의 고통을 세밀하게 보여주고, 과오에 대한 고발과 비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소설 속 현재 이야기 및 결말을 고찰한 결과, 고발과 비판의 의지는 흐려지고 주인공이 과거를 합리화하고 수용하는 모습으로 소설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성년이 된 주인공은 안정된 직업이나 경제력을 갖고 있으며, 고통스럽던 과거를 한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부모나 타인의 과오에 대해서도 포용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또한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비롯하여 은폐되었던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포기하고 더 이상 연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는데, 이 같은 주인공의 태도는 아동기에 자신을 그토록 괴롭게 했던 '책임 회피'나 '默認'의 방식에 가담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나 선행 연구들에서 이 같은 관점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본고는 이 같은 아동기와 성년기 태도 간의 괴리 및 결말의 반복적인 패턴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특징을 지니는 鐵凝 소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작가의 의도를 한 가지 틀로 재단하기 보다는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설들은 文革과 같은 역사적 잘못과 상처를 회피하는 현 중국사회에 대한 정치사회적 알레고리로 읽을 수 있으며, 주인공의 가정은 중국사회의 축소판으로서 부모 세대의 '반성과 소통의 부재'는 주인공의 세대로 대물림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작품들을 작가 자신의 직·간접적 경험과 상처를 그려낸 성장소설로 이해한다면, 성인이 된 주인공이 가족의 과오를 포용하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는 결말은 작가와 동 시대 여러 개인들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작품의 화자는 성인이 된 주인공의 부정적 면모를 관찰하면서 때론 두둔하고 변호해주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작가가 화자에 동조하는 입장이라면 자신의 현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싶은 욕망이 투영된 것일 수 있겠다. 그러나 鐵凝의 다수 작품들에서 이기적이고 죄책감이 결여된 성인들을 반복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만큼, 작가는 화자와는 달리 독자의 냉철한 비판을 유도하고자 했을 수도 있으며, 본고는 이같이 작가와 화자를 분리하여 봄으로써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鐵凝은 현재에도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로서, 향후 변해가는 중국의 상황 속에서 개인적·역사적 상처와 현실의 문제를 鐵凝이 문학 안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해나갈지 귀추를 주목하고자 한다. 본고는 아동기와 문혁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鐵凝 소설에 대해서 그동안 젠더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온 만큼, 후속 연구에서 아동기와 文革, 젠더라는 세 가지 모티프가 복합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지에 대해서까지 논의를 확장한다면 鐵凝 문학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보다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鐵凝과 세대가 비슷한 작가들의 작품에서 아동기 文革 체험이 처리되는 방식과 비교·검토해본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원전 및 번역본

賀紹俊, 《鐵凝評傳》, 鄭州大學出版社, 2005.
鐵凝, 《大浴女》, 作家出版社, 2013.
____, 《玫瑰門》, 人民文學出版社, 2006.
____, 《無雨之城》, 人民文學出版社, 2006.
____, 《午后懸崖》, 人民文學出版社, 2006.
____, 《永遠有多遠》, 人民文學出版社, 2006.
____, 《伊琳娜的禮帽-鐵凝小說精選集》, 新地文化藝術, 2012.
____, 《목욕하는 여인들》, 김태성 역, 실천문학사, 2008.
____, 《비가 오지 않는 도시 1,2》, 김태성 역, 실천문학사, 2007.

## 2. 단행본

김시준, 《중국당대문학사》, 소명출판, 2005.
김양수, 《중국 신시기문학 입문》, 토마토, 1995.
김천혜, 《소설구조의 이론》, 한국학술정보(주), 2010.
김춘경, 《상담학 사전》, 학지사, 2016.
김현, 《분석과 해석/보이는 심연과 안 보이는 역사 전망》, 문학과지성사, 1992.
니체, 《도덕의 계보학》, 홍성광 역, 연암서가, 2017.
다케우치 요시미, 《루쉰》, 서광덕 역, 문학과 지성사, 2003.
안나 프로이트,《자아와 방어기제》, 김건종 역, 열린책들, 2015.
앙투안 베르고트, 《죄의식과 욕망 - 강박신경증과 히스테리의 근원》, 학지사, 2009.
앤서니 스토, 《공격성, 인간의 재능》, 심심, 2018.
오카다 다카시,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동양북스, 2013.
왕후이(汪暉), 첸리췬(錢理群) 외, 《고뇌하는 중국》, 장영석·안치영 역, 길, 2006.
위화(余華),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김태성 역, 문학동네,

2012.
____, 《허삼관매혈기》, 최용만 역, 푸른숲, 2013.
____, 《형제》, 최용만 역, 휴머니스트, 2007.
윌리엄 데이먼, 《아동 도덕발달과 열린 교육》, 문음사, 1997.
전형준, 《언어 너머의 문학》, 문학과 지성사, 2013.
존 C. 프리엘, 린다 D. 프리엘 공저, 《성인아이》, 글샘, 2010.
주디스 버틀러, 《권력의 정신적 삶》, 강경덕 역, 그린비, 2019.
주디스 허먼, 《트라우마》, 열린책들, 2017.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 역, 열린책들, 2004.
천쓰허(陳思和), 《중국당대문학사》, 노정은・박난영 역, 문학동네, 2008.
클락 아서(Arthur J. Clark), 《방어기제를 다루는 상담기법》, 김영애 외 역,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2005,
클로딘 몽테유, 《보부아르 보부아르》, 서정미 역, 실천문학사, 2005,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 역, 열린책들, 2004.
허자오톈(賀照田), 《현대 중국의 사상적 곤경》, 임우경 역, 창비, 2018.
홍잉(虹影), 《굶주린 여자》, 김태성 역, 한길사, 2005.
홍쯔청(洪子誠), 《中國當代文學史》, 北京大學出版社 1999
Cicirelli, Victor G. 《Sibling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 Span》, Plenum Press, 1995.
Damon, William. 《The Moral Child: Nurturing Children's Natural Moral Growth》, Free Press, 1990.
Jean Piaget,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Free Press Paperbacks, 1997.
Martin L. Hoffman.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3. 논문

降紅燕, 〈關于“超性別意識”的思考〉, 《文藝爭鳴》, 1997.
劉艷琳, 〈20世紀中國文學女性生命体驗的性別書寫〉, 湖南師范大學, 2010, 博士.
劉玉霞, 〈論鐵凝小說中的无罪之罪〉, 《小說評論》, 2016.
劉海杰, 〈鐵凝小說悲劇性研究〉, 遼宁師范大學, 2012, 碩士.

李冬梅, 〈地域文化視野中的90年代女性城市小說〉, 吉林大學, 2011, 博士.
孟曉雲, 〈與文學一起成熟－鐵凝訪談錄〉, 《人物》, 1999.
謝有順, 〈鐵凝小說的叙事倫理〉, 《当代作家評論》, 2003. 碩士.
蘇曉芳, 〈論鐵凝小說的忏悔意識〉, 華中師範大學, 2002, 碩士.
宋益群, 〈鐵凝小說創作論〉, 山東師范大學, 2006. 碩士.
楊敏, 〈新時期女性小說的變態心理書寫——以殘雪、鐵凝、陳染爲中心〉, 武漢大學, 2013, 博士.
閏紅, 〈鐵凝与新時期文學〉, 山東師范大學 2007, 博士.
王蒙, 〈讀大浴女〉, 《讀書》, 2000.
王朔, 〈榜樣的力量是無窮的〉, 《知道分子》, 北京十月文藝出版社出, 2016
王志華, 〈人類的關愛与生命的体貼——鐵凝小說論〉, 山東師范大學, 2006, 博士.
張光芒, 王冬梅, 〈鐵凝文學年譜〉, 《東吳學術》, 2013.
鄭文平, 〈鐵凝語言藝術——解构傳統對話形式〉, 曲靖師范學院學報, 2013.
趙艷, 〈對人類的体貼和愛——鐵凝訪談录〉, 《小說評論》, 2004.
周淼, 〈鐵凝小說的話語方式〉, 福建師范大學, 2004, 碩士.
朱育穎, 〈精神的田園——鐵凝訪談〉, 《小說評論》, 2003.
陳洁, 〈論鐵凝小說的“第三性”視角——淺析《對面》〉, 《安徽文學》, 2009.
陳曉明, 〈記憶的抹去与解脫〉, 《讀書》, 2001.
鐵凝, 〈時間和我們〉, 《2018 한중일 동아시아 문학포럼》, 대산문화재단. 2018.
김윤식, 〈6.25전쟁문학: 세대론의 시각〉, 《문학사와 비평》, 1991.
김진공, 〈위화 소설 연구의 몇 가지 문제〉, 《중국현대문학》, 2009.
_____, 〈현대 중국의 상흔문학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중국현대문학》, 2008.
김창규, 〈문화대혁명, 그 기억과 망각〉, 《민주주의와 인권》, 2010.
김현, 〈소설의 길이〉, 《우리 시대의 문학/두꺼운 삶과 얇은 삶》, 문학과지성사, 2006.
박민호, 〈미디어(media) 개념을 통해 본 개혁개방 이후 중국문학의 변화양상〉, 《중어중문학》, 65, 2016.
박창욱, 백영길, 〈鐵凝 소설 《笨花》의 서사적 지향〉, 《한국중어중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
박창욱, 〈철응(鐵凝) 소설 《笨花》에 대한 신역사주의적 접근〉, 《中國語文

論叢》, 중국어문연구회, 2015.
성근제, 〈문화대혁명은 어떻게 재현되는가〉, 《중어중문학》, 한국중어중문학회, 57輯, 2014.
성민엽, 〈모옌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제기〉, 《문학과 사회》, 문학과지성사, 2013.
_____, 〈비관 뒤에 숨은 것 - 은희경론〉, 《문학과 사회》, 문학과지성사, 2005.
이욱연, 〈소설 속의 문화대혁명〉, 《중국현대문학》,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1.
이재복, 〈鐵凝의 《목욕하는 여인들》에 나타난 여성상〉, 《비교한국학》, 국제비교한국학회, 2017.
임효청, 〈鐵凝의 《七天》 중・한 번역 연구〉, 단국대 국제대학원 석사논문, 2017.
천쓰허(陳思和), 〈중국 당대문학과 문화대혁명의 기억〉, 윤해연 역, 《문학과 사회》, 문학과지성사, 2007.
최은정, 〈1980년대 중국여성소설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장지에, 왕안이, 티에닝의 작품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09.
_____, 〈중국 신시기 여성소설에 나타난 가족 담론의 일면 - 티에닝(鐵凝)의 《목욕하는 여인들(大浴女)》를 중심으로〉, 《比較文化硏究》,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4.
_____, 〈鐵凝 소설에 나타난 '가족' 담론〉, 《中國小說論叢》, 한국중국소설학회, 2014.
_____, 〈철응(鐵凝)의 〈영원유다원(永遠有多遠)〉에 대한 소고 -여성인물의 욕망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영남중국어문학회, 2014.
_____, 〈철응(鐵凝)의 《玫瑰門》 다시 읽기 - 인물의 "되기"를 중심으로〉, 《比較文化硏究》,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3.
_____, 〈鐵凝의 《午后懸厓》에 대한 소고〉, 《中國小說論叢》, 한국중국소설학회, 2011.
Chen, Xiaoming 陳曉明. 〈The Extrication of Memory in Tie Ning's Woman Showering: Privacy and the Trap of History〉, 《Chinese

Concepts of Privacy》, Eds. McDougall, Bonnie S. and Anders Hansson. Leiden: Brill, 2002. pp. 195-208.

Healey, Cara Michelle. 〈How Far is Beijing? Gender and the Capital in Tie Ning's How Far Is Forever and "Night of the Spring Breeze."〉, MA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2013.

J. P. Shonkoff, 〈The Lifelong Effects of Early Childhood Adversity and Toxic Stress〉,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 January 2012.

Leung, Laifong. 〈Tie Ning: A Writer of Sensitivity〉, 《Morning Sun: Interviews with Chinese Writers of the Lost Generation》, An East Gate Book, 1994. pp. 165-176.

## 4. 영상자료

陸小雅 導演, 《紅衣少女(The Girl in Red)》, 1985, 100分鐘.

楊亞洲 導演, 《大浴女》, 2007, 45分鐘 共22集.

王好爲 導演, 《哦, 香雪(Oh! Sweet Snow)》, 1989. 90分鐘.

陳偉明 導演, 《永遠有多遠》, 2001, 45分鐘 共20集.

## 5. 인터넷 자료

舒晋瑜, 《鐵凝：偉大，但是請不要忘記艱難——訪中國作協主席鐵凝》, 中華讀書報, 2012年07月 (http://www.chinawriter.com.cn/2012/2012-07-23/135446.html) (검색일:2020.01.15)

謝大光, 《鐵凝和她的父親》, 報告文學 (http://baogaowenxue.xiusha.com)

Ning, Zhao. "Tie Ning, In Her Own Words". Women of China, Feb. 27, 2008. (http://www.womenofchina.cn/womenofchina/html1/people/writers/9/382-1.htm)(검색일:2020.01.15)

# [中文摘要]

本論文是筆者針對中國新時期代表作家之一，同時也是活躍於文壇、並具有市場、公職地位的作家—鐵凝的小說研究，筆者集中考察了鐵凝多數作品中所呈現出的兒童期創傷。鐵凝在超過三十年的創作生涯裡，獲得了四十多個文學獎項，一直受到文壇的好評。長篇小說《玫瑰門》一書在1988年問世以來，陸續再版多次，一直引起讀者關注，《無雨之城》和《大浴女》在中國暢銷逾百萬部，許多作品也被拍成電影或電視劇，吸引大衆居高人氣。此外， 鐵凝於2006年當選爲中國作家協會主席，連任至今，並兼任中國文聯主席及中共中央委員，在中國文學界中的地位特殊，也是重要的作家。

鐵凝的小說研究回顧，主要都是從性別觀點出發，以女性的生存與慾望、性欲等關鍵詞爲中心做研究，儘管累積了很多研究成果，但是對於鐵凝的作品中出現主人公在兒童時期經歷的文革經驗和傷痛、家庭內部矛盾等，專研這方面的研究並不多。因此，本論文針對這些呈現出兒童時期文革經驗的作品，參照兒童心理學和精神分析學理論，分析人物關係和矛盾狀況，並觀察作者藉由小說想表達出來的問題意識。另外，筆者還關注小說結尾的「相似模式(雷同模式)」，試圖探討以文革那段黑暗的歷史爲背景的小說作品，挖掘出其背後所呈現的心理層面的意義。

在具體討論之前，首先對鐵凝的生平與時代背景，文學市場狀況進行了全面的探索，同時理清了不斷獲得讀者大衆青睞的鐵凝長篇小說的變化情況，以及題材反覆性， 固有的創作風格等主要特點。1957年出生的鐵凝從九歲開始就經歷了文革， 在這文革十年間還與父母分開和外祖母一起度過了孤獨的時間。在本文所見的小說中，出現了一個與作者年齡、環境相仿的人物，回憶着兒童時期的經歷，儘管已過很長時間，但仍無法擺脫過去的傷痕，這與作者身份經歷具有相似性。文革結束後，傷痕·反思等文壇主流文學大部分以知識分子受難史爲主再現文學敘事,而鐵凝的小說關注兒童的痛苦和孤獨。

鐵凝主要通過框形結構，在小說內嵌話語中再現主人公的兒童時期，在外部話語中再現成年主人公的現實情況， 本文第三章對主人公兒童時期的創傷進行了具體分析。在第一節， 筆者觀察了與時代特殊性有關的創傷。在文革時期主人公目睹了伴隨着身體暴力、性暴力等殘酷行爲， 也目睹了因惡意地誣陷他人而使其遭受紅衛兵襲擊的等行爲， 因而受到巨大衝擊。主人公不僅對這種行爲

感到恐懼, 而且目睹了他們對犯下的行爲缺乏負罪感, 因此主人公感到極度的絶望,喪失了對人類的信任。在第二節中, 分析了因家庭內部的特質而引起的主人公的心理創傷。卽使在同一時代度過了兒童時期,根據家庭成員的性格及家庭氛圍, 兒童也會出現不同的特點, 但小說中出現的父母或祖父母不會給子女提供適當的保護和關心。本文分析了小說中出現的家族內壓迫溝通和迴避溝通的現象。小說中的人物互相隱瞞錯誤, 不進行關於眞相的對話,不揭露彼此的祕密, 卻因此鬱悶而苦惱。對此筆者具體分析了夫妻之間、父母和子女之間、姐妹之間發生的不溝通的情況和原因。另外, 在小說中, 作爲“不溝通”的隱喩, 不僅在小說中再現了打嗝、便祕、說夢話等各種身體症狀, 而且小說人物也呈現出自我分裂的人格, 這種症狀可以理解爲是“壓迫溝通”的結果。

本文第四章試圖對小說外部話語中再現的成年主人公如何重新認識過去、應對現實狀況做了批判性地考察。在鐵凝的小說中, 主人公雖然經歷了文革時期痛苦的童年, 但是成年後生活的很好, 擁有穩定的職業、優越的經濟條件, 於此相反, 脫離中國在美國定居的妹妹無論在心理上還是經濟上都表現出不安的狀態。主人公將痛苦的兒童期視爲現在成功的基礎, 逐漸承認和接受過去, 對父母或他人的錯誤和不負責任的行爲也漸漸採取包容和憐憫的立場。主人公終於放棄了對過去眞相的查明, 理解“那時只能那樣”的態度可以解釋爲參與了默認的方式。

綜合第三章和第四章的分析, 小說關於過去的敘事中逼眞地描寫出了兒童期的創傷, 可以窺見因個人對非倫理行爲的反省不足和個人之間溝通不足而導致的痛苦的惡性循環, 强烈地表現了作者對歷史的、家族史的過錯的揭露和批判的意志, 但關於現在的敘事中這種意志最終變得模糊, 成年主人公以現在的成功來接受過去的痛苦, 並參與到默認家人及歷史的錯誤的過程。對此, 筆者試圖從多個角度來探討如何理解上述特點、社會歷史脈絡以及作家個人的動機。

鐵凝現在也一直進行創作活動, 今後在中國社會的變化中, 鐵凝在文學創作方面如何處理歷史、個人創傷以及現實問題,將持續受到關注。另外, 如果在後續硏究中進一步拓展, 將兒童期的文革體驗處理方式與鐵凝所處同時代的作家的作品進行比較的話, 將會成爲更有意義的硏究。

關鍵詞: 鐵凝, 兒童期, 創傷, 文化大革命(文革), 家庭, 過錯, 反省, 溝通, 默認
學号: 2017-28862